



Damage to
On the face
within the
them w
be dis
by re
subs
year
not

agement of activity
all area around
ers there might
t be harmed
uffer from
the first
ears did

likely
ket in
zones
; and
deed,
ey do

T
Ren
foot,
discov
active
not all
generate
an adja
Execut

Some of the respondents in the sample reported that subsidised competition was a retelling of the competition which is not a case, subject to some control and was not out of the evidence is however, that the measures did not lead to a distortion of either a quality, or the competitive position of other firms. None of the sample of external firms interviewed by the consultants felt that they had been damaged by firms competing from within the zones, although a quarter of them were in direct competition.

In sum, then, designation seemed in the first year of operation to have had little adverse effect on adjacent areas. In the words of Mr Heselting, 'many of the most heartfelt concerns about the areas outside the zones have not been manifested'.³⁴ In their subsequent study the consultants were unable to draw firm conclusions on the matter. They do, however, comment that, given the restricted nature of many of the activities undertaken in the zones, 'offsetting

2016.10.08(토)

— 10.09(일)

11:00-18:00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놀이 아지트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축제

예술을 통한

일상 속 체험

즐거움 놀이

새로운 발견

프로그램

업사이클 커뮤니티 가드닝
즐거움 예술 체험 놀이
신나는 거리 예술 공연
맛있는 먹거리 장터
아카이빙 전시

장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서울호수공원 옆)

문의 02-2697-2600

www.sfac.or.kr

오마
서민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서울
예술교육센터



신임 대표이사 인사말

즐거운 문화도시를 연출하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중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

청소년기를 문화동(지금은 신당동)에서 보내고 힘이 넘칠 때 PD로 일한 곳도 문화방송(MBC)입니다. 문화재단에 오기 전에는 문화콘텐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뭐냐고 물으면 한 마디로 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가 뭐냐는 것은 삶이 뭐냐는 질문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왜 사는지 의문이 들 때 '우리가 인간이었지'라는 자각을 되살려주는 게 문화입니다. 결국 문화란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방송사를 오가면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저 자신도 성적의 노예, 시청률의 노예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가 혼자 더 잘살기 위해 발버둥치기보다는 함께 다 잘사는 것이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더다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문화재단을 스팩(SFAC)이라고도 하는데 언뜻 들으면 불꽃의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문화가 불꽃이라면 교육은 풀꽃입니다. 더가 불꽃 같은 경쟁이라면 다는 풀꽃 같은 공생입니다. 차제에 저는 시민 모두가 생활문화의 주역이 되는 풀뿌리문화주의를 제안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아이디어 경쟁은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창의와 협의, 두 개의 축으로 일하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많아도 협의해 잘 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전문가들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고 함께 기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어도 시대착오는 없습니다. 제 좌우명은 '재미있게 살고 의미 있게 죽자'입니다. 재미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는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더 즐겁고 다 행복한 문화도시를 향해 신발 끈을 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10월의 테마 토크

한국 창작공간의 오늘

지난 9월 7~11일까지 5일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은 전국의 28개 창작공간 입주작가 180여 명이 참여한, 보기 드문 규모의 전시와 네트워킹이 진행된 장이었다. 예술가에게 필요조건인 '창작공간'을 화두로 한 페스티벌에서는 아티스트의 현실적인 고민이 제기되고 창작공간 운영자와 관객 등 각계의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며 창작공간의 오늘, 나아가 예술과 예술가의 오늘을 가늠할 수 있었다.



사람과 사람

<변칙 판타지> 무대에 올리는 미디어 아티스트 정은영

미디어 아티스트 정은영은 여성의 삶에 지속적으로 천착하며 '여성국극'에 주목한 작품을 이어왔다. 한국에서는 거의 잊힌, 여성 배우가 남성의 역할까지 하는 '여성국극' 무대에서, 화려한 분장을 한 배우가 이상적인 남성상을 연기할 때의 그 독특한 판타지는 "정상도 반칙도 아닌 '변칙'"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영상,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매체로 <여성국극 프로젝트>를 이어온 정은영 작가가 오는 10월에는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한 작품 <변칙 판타지>를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올린다.

진실 혹은 대담

대중음악계 대형 기획사의 서버레이블 설립

YG, SM, 로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형 기획사들이 잇따라 인디신에 눈을 돌리면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YG의 '하이그라운드', SM의 '발전소'와 '스크림 레코즈'에 이어 6월에는 로엔터테인먼트가 서버레이블 '문화인'을 지원하며 화제가 됐다. 대중음악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새로운 지형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관련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눴다.

쟁점1

공연계에 만연한 임금 체불 문제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의 제작사 대표가 공연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연 스태프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SNS에서 퍼져 논란이 되었다. 제작사 대표는 해명에 나섰지만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임금을 포기한 스태프가 더 많은 상황이다. 사실 국내 공연계에서 출연료 미지급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된 지 오래다.

contents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환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오니트(주)

디자인 오니트(주) 사진 249 스튜디오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발행일 2016년 9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4 커버스토리 | 이달의 표지 작가 지희킴

테마 토크

한국 창작공간의 오늘

08 스콧운동부터 10여 년간의 변화, 그리고 오늘의 창작공간 | 공간을 딛고 갈등을 넘어 창작으로

10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 5일간의 현장 리포트 | 창작공간, 따로 또 같이

16 서준호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 총감독 | '예술가가 신나게 놀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18 기획전시 참여작가 김재각, 이완 | 작가와 작가, 작품과 시민이 더 자주 만날 수 있길

사람과 사람

20 <변칙 판타지> 무대에 올리는 미디어 아티스트 정은영 | 잊힌 판타지가 진짜 무대를 만났을 때

26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예술로 상상극장> 예술감독 임도완 | 연극은 발명품처럼, 언제나 새로운 연극에 도전한다

30 진실 혹은 대담 | 대중음악계 대형 기획사의 서브레이블 설립

36 예술가의 밥그릇 | 음악분수 연출가 이시재

38 서울 할나 | 춤으로 보여드리지. 자, 갑시다!

이슈&토픽

40 쟁점 1 | 공연계에 만연한 임금 체불 문제

42 쟁점 2 | 고용 불안 심화하는 예술강사 제도 변경

44 화제 | 서울시 '서울예술인플랜' 발표

48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공간, 공감

50 공간 1 | 문학에 관한 다양한 변주곡 <연희극장>

52 공간 2 | 음악과 사진과 사람의 아지트 '조광사진관'

54 공감 1 | 뮤지컬 <그날들>과 <도리안 그레이>

56 공감 2 | 전시 <군집된 구름들>과 <마음의 기하학>

58 공감 3 | 책 <권혁재의 비하인드>와 <책가도>

60 예술적 상담소

Soul of Seoul

62 메모리 인 서울 | 광복 직후 37년간 유지된 통행금지 제도 그리고 해제

64 서울 단상 | 시집 서점 주인장 유희경 시인의 '이대 앞'

66 강상준의 썰(設) | 2016년 한국 천만 관객 영화의 이변

68 신지수의 음악 정원으로 | 침묵을 작곡하는 사람들, 반델바이저 악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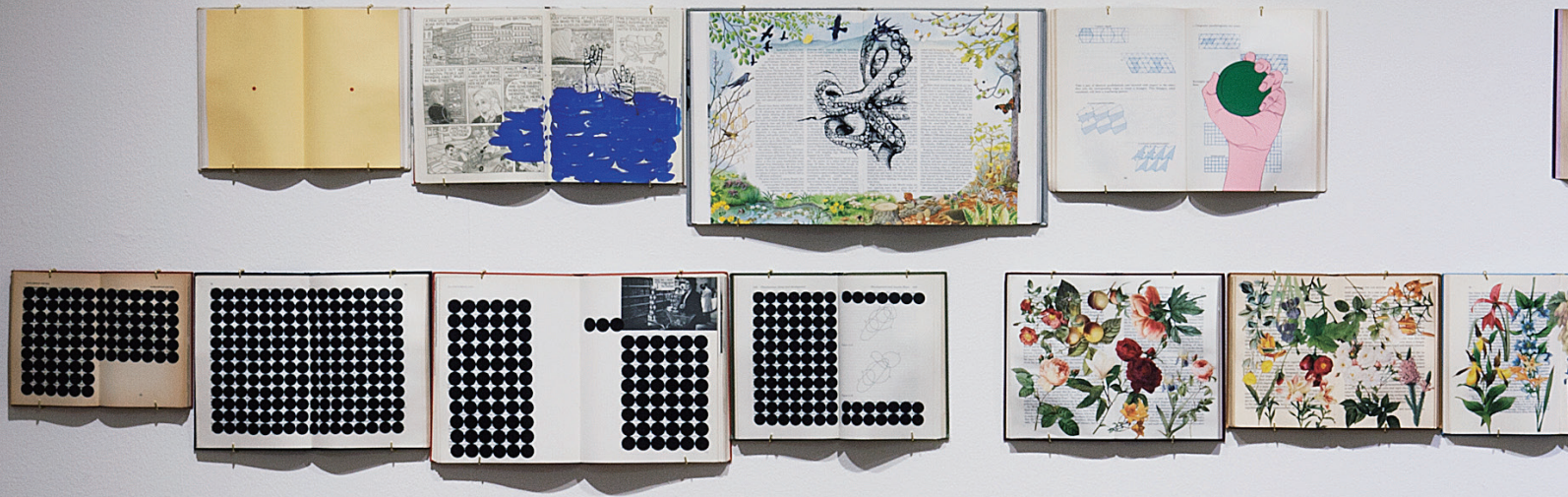
70 서울 건축 읽기 | 종로 4가사거리의 터줏대감 벽화와 건축

72 연극인 10분 희곡 릴레이 | 최지운 작 <연장근무>

10월의 서울문화매뉴얼

74 10월 Calendar

84 편집 후기



이달의 표지 작가 지희킴

나는 수세기 동안 인간의 이성 세계를 대변했지만 현대에는 그 가치를 상실한 채 버려진, 다시 말해 파국(破局)을 맞은 '책'들을 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3년간 각지각처에서 기부받았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체로 해서 시각예술의 맥락 위에서 재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내 개인의 서사가 책 저자의 의식과 맞물려 예술의 영역으로 재탄생되는 지점에 주목했고, 단지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의 매개체로 한정되었던 책이라는 미edium (medium, 매개체) 위에 내 개인의 언어이자 시각적 재현이기도 한 드로잉을 담아낸다. 이를 통해 단순히 물리적인 도구의 차이로만 구분되어온 예술과 텍스트(문학)의 제한적 경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새벽을 헤엄치는 드로잉〉 시리즈 작업은 기부받은 책 페이지를 드로잉의 지지체로 사용하며, 문학을 그 기저로 한다. 기부받은 책 페이지의 문장에서 내 개인의 경험과 사건 혹은 생각을 연상시켜 나가는 일종의 사고의 연장이며 기억의 연쇄 드로잉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게 기억은 있었던 것을 그대로 다시 눈앞에 떠올리는 단순한 복원의 역할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서사적 과정이며, 이 점에서 단순한 데이터 장치와는 구분된다.* 결국엔 내가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에서 생각을 멈추고, 이 장면을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나의 의식과 무의식에 침몰해 있던 기억과 사건

들을 수면으로 떠올리고, 그 문장들을 드로잉으로써 소환하도록 돕는다. 하나의 문장이 불러온 또 다른 기억들은 현재의 나의 기억과 만나며, 그다음 기억을 만들어내고 그 기억은 다시 예기치 않은 새로운 기억으로 몸을 바꾸어 나타나 결국 드로잉의 순간이 된다.

* 〈에로스의 종말〉(한병철 지음, 문학과지성사) p.46

표지작 〈Society〉
collage on donated book page | 21.5×29cm | 2015



지희킴(김지희)

지희킴은 동국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골드스미스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2007년 진흥아트 홀에서 열린 〈Finding my other self〉를 시작으로 서울과 런던에서 4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서울시립미술관, 골드스미스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돼 있으며 올해 11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글 지희킴

112 Science and Politics

research system in the social whole, free research included, even with a lesser degree of assurance than for the other forms of research, and the whole difficulty is overcome. Predetermining what it must aim at, and above all what it must be used for, the forecasting technician will be in a position to direct free research in line with the social aims of which he is the augur.

Normative technological forecasting [writes Erich Jantsch], starting from social requirements, is capable of applying spur and guidance to fundamental research in areas of social relevance, in the same way as they are applied by industry in the economic area.³⁹

Jantsch cannot be charged with failing to put the question fairly and squarely. 'Normative technological forecasting' challenges the whole idea of a 'pure' science with characteristics of such a kind that its evolution cannot in any way be foretold. This is the theory of what he calls the 'encapsulation' of science—its withdrawal into an ivory tower, immune from the pressures of the profane world—and of which he finds, not without reason, one of the best examples in the book by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According to Kuhn, scientific progress is made up of two sorts of movement, that of 'normal science' which develops within the limits of established 'paradigms', and that of science in a period of crisis, when the revolution set off by the 'anomalies' of the concepts in use takes the form of strife between the old and new 'paradigms' until the victory of the new concepts, recognised and adopted, gives rise to a new 'normal' science.⁴⁰

The paradigms provide a criterion which is enough in itself for the selection of the problems to be solved. If the scientific enterprise proves useful, it is because of the solutions provided in the context of 'normal science'. But it is impossible to influence this process from outside, and *a fortiori* to foresee the 'anomalies' which become the source of new paradigms.

We are deeply accustomed [says Kuhn] to seeing science as the one enterprise that draws constantly nearer to some goal set by nature in advance.⁴¹

39. Erich Jantsch, *Technological Forecasting in Perspective*, op. cit., 60; see also the same author's 'Technological Forecasting—A Tool for a Dynamic Science Policy', in *Problems of Science Policy*, OECD, Paris (1964), 113-23.

40.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Press (1962). In many respects Kuhn's anomalies recall the 'epistemological obstacles' of Bachelard in *La formation de l'esprit scientifique* (Vrin, Paris (1938), 92). But just as the idea of 'paradigm' is vague, so that of the 'epistemological obstacle' is precise and rich to the point of being the principle which explains the 'anomalies' themselves.

41. Kuhn, op. cit., 170.

Planning and Forecasting 113

... however, to interpret it as a single full-fledged paradigm, and we shall have to consider whether or not it is a paradigm in the sense of science's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It is not, I think, a paradigm, for evolution has not yet reached a stage where the process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a paradigm.

This assumption of a paradigm conception of history contrasts over the course of time rather than that of a paradigm. The contrast in the opposite direction is the conception of the history of science in the social sciences. The course of history takes precedence here over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knowledge, although knowledge had no significance so far as it was concerned by history. If these conceptions of history appear opposed, it is not so much because they both alike find illustrations founded on facts, but rather because they each refer back to irreconcilable ideas. We have a dialogue of the deaf, because each camp refers to another objective which could be defined independently of the values it attaches to the objective.

Both positions [said Kuhn] strengthen each other in treating the subject of the history of science as the subject of normal science.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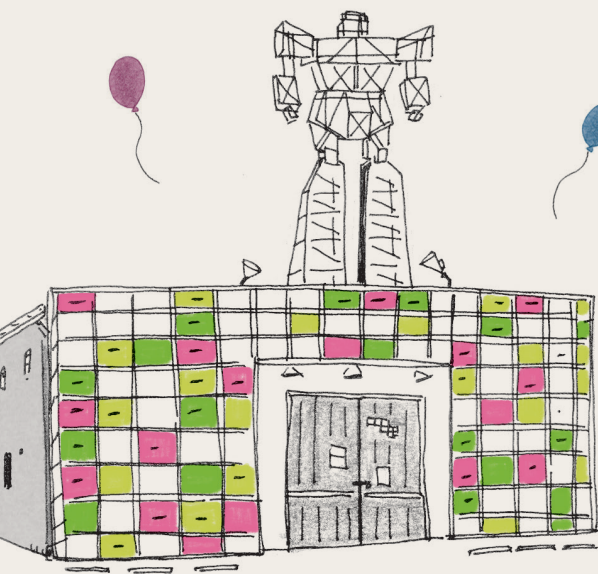
Hindsight or foresight, the misperception of time; if one finds here and there, formulated in terms as they are, the idea of the 'idealistic' interpretation, the conception of the history of science in society, it is because the public reflection of the sciences presumed to be determinable as the subject of a science. 'Pure' science, sheltered in its ivory tower to the point of being needless of the noise of the modern world, is challenged by the evolu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knowledge and reality, contradicted by the intervention of power and the dependence of knowledge, transformed by the absence of strict frontiers between the different stages of the research system. But, just as the social demands and responses of which science is the

42. Ibid.

43. See Georges Canguilhem, *Essai sur les notions d'histoire et de philosophie des sciences*, Vrin, Paris (1968), introduced by Alexandre Koyré and Henry Guerlac accused Koyré of idealism, referring to the dialogue between Alexander of Aphrodisias and Aristotle in Oxford (July 1966), where Guerlac accused Koyré of idealism, that is to say, of regarding scientific activity purely as a philosophical exercise, and giving to the facts of the history of sciences a reality independent of their social context. (Henry Guerlac, *Some Historical Assumptions of the History of Science*, reprinted in *Scientific Change* (ed. A. C. Crombie), London (1963), 797-812, and the reply of Alexandre Koyré in *Études d'histoire de la pensée scientifique*, P.U.F., Paris (1966), 352-61.)

05





한국 창작공간의 오늘



지난 9월 7일~11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이 개최됐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14개 시도문화재단의 28개 창작공간,
18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각 창작공간과
작품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의 창작공간은 2000년대에 작가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유휴 공간을 점유하는 스콧운동이 벌어지는 등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2000년대 말부터
서울 전역 및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감각적 현실 SENSIBLE REALITY’을 주제로 한
이번 페스티벌이 주목한 것은 바로 ‘한국 창작공간의 오늘’이다.
2016년 한국의 창작공간에서는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작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0월호 테마 토크에 담아보았다.



스quat운동부터 10여 년간의 변화, 그리고 오늘의 창작공간

공간을 딛고 갈등을 넘어 창작으로

한국에서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과 창작공간 운영이 활성화한 것은 불과 5~6년 사이의 일이다. 오랫동안 예술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화두를 던지며 자생적으로 움직여왔다. 창작공간이 제법 활성화한 지금 예술가들은 또 다른 갈등을 맞닥뜨리고 있다. 나아진 환경 안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예술가는 공간과 어떻게 관계해야 할까.

10년 전, 자생적 작업실의 네트워킹 시도로부터

전국의 14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창작공간, 이 공간들의 축제인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을 보는 필자의 감동은 남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당시 미술인회의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던 필자는 회원들과 함께 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OSN)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처음 기획했다.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지원이 전무하던 당시, 작가들의 작업실을 연결하고자 했던 것은 '창작의 산실인 작업실로부터 모든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현장 예술가들의 요구도 매우 컸다. 때마침 한국의 스콧(squat)*운동 '오아시스프로젝트'를 추진하던 김



윤환이 목동의 예총회관을 점유하면서 작업실 정책이 급부상하게 되었다. 당시 예총회관은 180억 원의 국고 투여에도 불구하고 1999년 공사가 중단돼, 짓다 만 상태로 텅 빈 빌딩이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던 차였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지원금이 몇몇 보수 예술단체의 건물 임대료 사업 등에 쓰이는 것이 방임되던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었다.

김윤환은 그 일 이후로 OSN의 예술감독을 맡게 되었고, 전국의 800개 작업실을 연결하는 OSN 사이트를 구축했다. 그는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국 8개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오픈스튜디오와 함께 창작환경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작가들의 작업실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실로 무지막지한 열정의 산물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가들이 처한 창작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또 창작공간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여러 곳에 숨어 있던 예술가들의 개별적 공간이 서로 연결되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먼저 9개의 창작공간을 만들었고, 비슷한 시기에 인천아트플랫폼과 경기창작센터도 오픈하게 된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40여 개의 창작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프로젝트 기반의 레지던시 프로그램까지 합하면 그 수는 60여 개를 웃돈다고 하니 지난 10년 동안 실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셈이다.

예술창작공간, 관리와 창작 사이

창작공간은 이미 신진 예술가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유희공간의 활용 1순위가 예술가를 입주시켜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렇게 창작공간이 수적으로는 늘어났지만, 당초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창작 환경을 조성하려던 문예지원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경기창작센터의 가장 호화스러운 스튜디오에 입주해 있던 한 작가는 정작 오픈 스튜디오 내내 창작공간을 비판하는 '깍깍이' 퍼포먼스를 선보인 바 있다. 작업실 운영이 너무도 관료화되어, 작가들의 창의적인 활동이 제한된 상황을 패러디한 것이다. 또 다른 창작공간에서는 작가들에게 출석 체크를 요구하기에 반대하는 작가가 중도 퇴실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것은 창작공간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예술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주는 대신 지역 주민이나 기

관에 필요한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예술가를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생겨난 문제다. 그래서 창작공간 관계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면 늘 현실적인 문제들이 전면에서 등장하곤 한다. 제도화한 시스템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지원 기관과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제약하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예술가들 사이에서 서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마찰일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마찰은 우리가 과도기적 단계를 지나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창작공간의 존재는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작공간의 효율적 활용도 실은 작가들에게 그 해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창작공간, 작가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자 발판

이번 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세미나 프로그램인 'SENSIBLE RESIDENCE 감각적으로 거주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창작의 감각'에 주목해서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다. 1부 그룹별 토론이 끝나고 전체 토론을 진행하면서 필자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지역 곳곳에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공간이 처한 지역적 현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었다. 창작공간이 산골이나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매우 한적한 곳,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곳, 미디어 아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 지역의 역사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곳 등 매우 다양했다. 둘째로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공간에 입주한 작가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적응하고 또 만족하며 자신의 작업을 발전시켜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한계가 있는 창작공간을 고마운 마음으로 잘 활용하는 작가가 많고 이들을 통해서 공간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었다. 무엇보다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예술대학의 졸업생들이 작가로서 성장해 나갈 발판으로 제일 먼저 창작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물론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창작공간의 운영 방식이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제도를 개선해서 나아지게 하는 힘은 결국 창작을 통해 성장해가는 작가들의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작가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더 소통하려는 노력이 창작공간의 운영 주체에게 필요한 이유다.

* 편집자 주 | 스quat(squat), '무단 점거'를 일컫는 단어로, 예술에서의 '스quat 운동'은 도심 속 방치됐거나 버려진 공간에 들어가 소외계층과 삶·예술을 나눔으로써 '예술로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글
백기영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2006년
의재창작스튜디오를
시작으로 프로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듀얼게임(2007~2008)을
기획했고 2009년부터
경기창작센터 건립과
초기 프로그램을 담당해
운영했다. 창작공간과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입주작가 심사,
운영프로그램 컨설팅 등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손민정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 5일간의 현장 리포트

창작공간, 따로 또 같이

지난 9월 7~11일까지 5일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은 전국의 28개 창작공간 입주작가 183명이 참여한, 보기 드문 규모의 전시와 네트워킹이 진행된 장이었다. 예술가에게 필요조건인 '창작공간'을 화두로 한 페스티벌에서는 아티스트의 현실적인 고민이 얘기되고 창작공간 운영자와 관객 등 각계의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며 창작공간의 오늘, 나아가 예술과 예술가의 오늘을 가늠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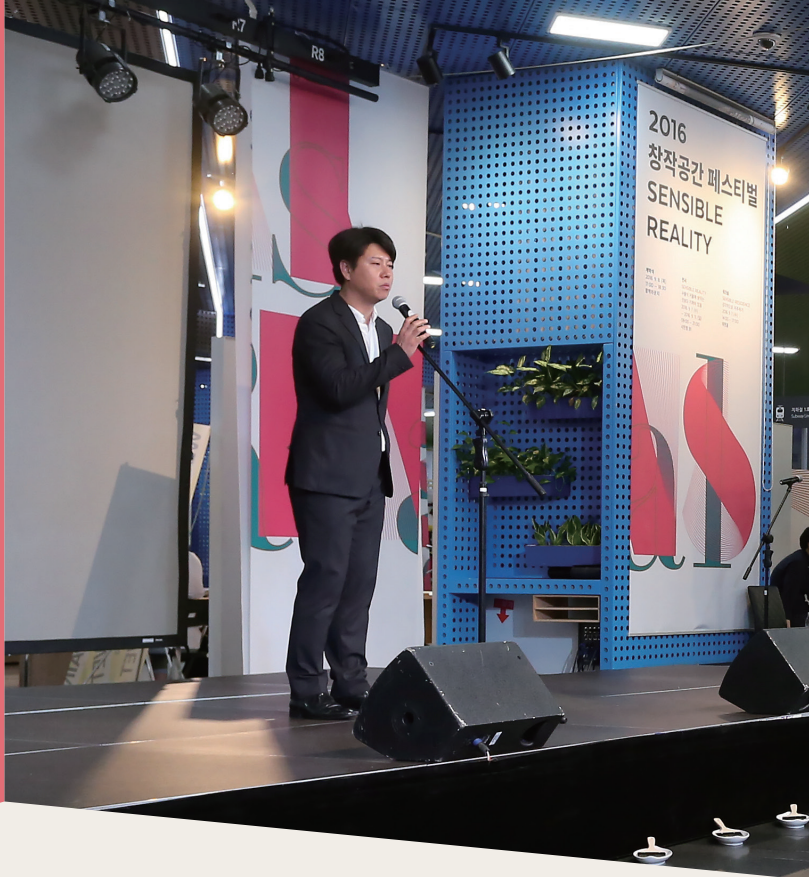
1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
개막식 장면.
2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

해를 건너 돌아온 축제 '창작공간 페스티벌'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은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공동사업으로 전국 14개 시도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해 28개 창작공간과 입주작가 183명이 참여한 대규모 창작공간 축제다.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한 본 축제는 '감각적 현실(Sensible Reality)'이라는 주제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서울시청 시민청 곳곳에서 진행됐다.

다양하게 마련된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도 중심이 된 것은 28개 창작공간 입주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기획 전시 〈SENSIBLE REALITY: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으로, 총 35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한 창작공간들은 각 시도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올해 지원 공간으로 선정된 곳을 모두 포함한다. 서울문화재단의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잠실창작스튜디오를 비롯해 강원문화재단이 올해 지원하는 분홍공장, 정동진하슬라미술관, 태백탄광문화연구소-BOW,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창작센터 등이 그 예다.

축제는 9월 8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시민청 활짝라운지



에서 열린 개막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전국 14개 문화재단 대표이사진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본 개막식에서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지원하는 휘목미술관 입주작가인 모구라의 붓글씨 퍼포먼스와 함께 서울무용센터 지원단체인 온앤오프 무용단의 축하 공연,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인 그레이코드×지인의 사운드 퍼포먼스, 그리고 서울연극센터 지원단체인 서울괴담의 퍼포먼스 등 공연 팀들의 화려한 무대가 이어졌고, 축제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의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축제의 주요 키워드는 '창작공간'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한국의 창작공간은 1998년 홍대 앞에 자리했던 복합문화공간 썸스페이스가 예술가 창작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며 시작되었고, 그 후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창동, 고양스튜디오가 설립·운영되다가, 2000년대 후반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다양한 창작공간이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사라진 창작공간도 있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공간이 꾸준히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지형도를 갖추게 되었다. 어느새 10여 년을 훌쩍 넘은 한국 창작공간의 역사 속에서 이번 축제에 참여한 창작공간과 입



주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페스티벌에 나온 대규모의 작가와 작품의 참여 과정을 설명하면서 본 사업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자.

기획전시 <감각적 현실 SENSIBLE REALITY>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공간 28곳을 대부분 방문했고 그곳의 입주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한 작업이 주를 이뤘지만 지역마다 세분화된 장르를 집중 지원하는 곳도 눈에 띄었다. 광주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아트 레지던시는 미디어 및 설치작업 기반 작가들을 집중 지원·운영하는 곳으로 이번 전시에 안유자 작가의 <마법에 든 빛의 숲>(2014), 이성웅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2016) 등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공예 기반의 레지던시도 주목할 만했는데,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30여 명의 대규모 참여를 비롯해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운영하고 있는 공예미술관 보임웬 입주작가인 이승일의 목공예 작품 <삶>(2016) 등 도예, 금속, 섬유 등 다채로운 공예 작품을 기획전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 충북문화재단의 복합문화공

간 1377은 유일하게 한지를 기반으로 한 공예공방으로 <한지로부터>(2016)라는 공동 작업을 선보였다.

2014년에 설립된 대전문화재단의 대전테미예술 창작센터는 국내의 작가들을 5:5의 비율로 입주시켜 국제적 네트워크와 교류를 강화하는 전문 레지던시다. 이번 기획전시에는 나나와 펠릭스 그룹의 설치작업 <발전>(2016) 및 현재 입주 중인 김지수·전보경 작가 등 여러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대구문화재단은 2007년 가창초교 우록분교(폐교)를 활용해 레지던시로 운영 중이던 가창창작스튜디오를 2012년 재단이 직접 운영하며 시각예술 분야의 실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 기획전시에 안효찬 작가의 <회상>(2016)을 비롯해 30여 점의 작품이 설치되었다. 경기창작센터도 경기도





3

3 창작공간 컨설팅이 진행 중인 시민청.

4 개막식 공연 서울괴담 <미술극장>의 한 장면.

5 개막식에서 공연한 정선호 기타리스트.

립직업전문학교로 사용되던 건물을 2009년 리모델링해 시각예술 작가뿐 아니라 건축, 공연,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를 지원하고 있고, 이번 전시에도 30여 점의 작품이 다채롭게 전시되어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인천광역시가 중구 해안동의 개항기 근대 건축물 및 인근 건물을 매입해 조성한 인천아트플랫폼은 경기창작센터와 마찬가지로 공간이 갖는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장르 작가들을 입주·지원하고 있는데 최선, 고등어, 서해영 등 국내 정상급 작가들의 수준 있는 작품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었다.

작가들에게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또 다른 기관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남예술창작센터가 있다. 경남예술창작센터는 조성·운영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매년 두 차례 입주작가 공모를 통해 작가들에게 공

간 및 창작활동 지원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이번 페스티벌에도 작가 10여 명이 참여해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부산문화재단의 홍티아트센터와 감만창의문화촌도 현대미술 작가들의 창작 스튜디오 제공 및 시민과의 커뮤니티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시민, 예술가와의 소통을 활발하게 실험하고 있다. 본 전시에서도 시민참여형 작업인 함수경 작가의 <HAPPY>(2015)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시민청 관람객과 소통을 시도했다. 그 외에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장애예술가들의 창작 레지던시 공간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입주작가 12명 전원이 본 전시에 참여해 회화, 사진, 설치작업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작업을 보여주었고, 금천예술공장도 시각예술 전문 창작공간인 만큼 박형근 작가의 <텐슬리스-63, 사라짐>(2009) 등 이력이 화려한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출품됐다.

이에 반해 특정 스튜디오 제공을 기본으로 한 창작공간 운영이 아닌, 각 재단에서 지역 거점형으로 기존 민간 창



작공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 곳들도 이번 축제에 함께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충북문화재단에서 올해 지원한 '퍼블릭에어'다. 이곳은 청주시내 일대의 슬럼화하는 지역에 작가들이 이주해 새로운 예술촌을 만들어가고 있다.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 받는 작가들은 개인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하는 작가들의 구성은 상이했다. 청주 지역에서 나고 자라 꾸준히 작업하는 작가부터 공공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이주(?)한 작가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말 그대로 예술적으로 지역 거점을 이루고 있다. 충남문화재단의 아미미술관과 야투자연미술의집도 전문 예술창작공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그곳에서 예술가와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점점의 창작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국제교류로 입주 중인 해외 작가 사이먼 웨탐(Simon Whetham) 등이 본 전시에 참여해 자연미술 작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경우 아트세닉, 제주도 좋아, 그리고 아트창고 art Barn이 참여했고, 유도영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 SENSIBLE REALITY

강원문화재단

분홍공장
정동진하슬라미술관
태백탄광문화연구소-BOW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예술창작센터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레지던스

대구문화재단

가창창작스튜디오

대전문화재단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부산문화재단

감만창의문화촌
홍티아트센터

서울문화재단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연극센터
서울무용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화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해외협력기관] PMQ(HK)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공예미술관 보임선
상상문화발전소 1839
엘리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익산창작스튜디오
창작문화공간여인숙
취묵미술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아트세닉
아트창고 art Barn
제주도 좋아

충남문화재단

아미미술관
야투자연미술의 집

충북문화재단

복합문화공간1377
퍼블릭에어
자계예술촌

주관 서울문화재단

주최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강원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충북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6

6 시민과 작가들은 창작공간페어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7 시민청 입구에 설치된 경기창작센터 양쿠라 작가의 <기억의 페달>은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작품이었다.

8 작가 프레젠테이션 쇼 장면.



7

작가의 <부영이가족>(2016) 등 좋은 작품들을 전시해 관람객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강원문화재단도 올해 만들어진 분홍공장 공간을 지원해 창작 활성화 및 예술 교류 증진에 힘쓰고 있고, 정동진하슬라미술관의 권소영 작가 작품 <풍경>(2016)과 태백탄광문화연구소-BOW 입주작가인 박호용의 <상처-치유>(2010) 등 여러 작품을 보여주었다.

페스티벌 준비에 주어진 시간은 단 3개월. 전국의 많고도 다양한 창작공간이 모여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대규모의 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각 시도문화재단과 창작공간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각 재단의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곧 각 창작공간 실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며 현장 방문을 급히 요청했을 때도 흔쾌히 협력해주었다.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에서는 작가들의 참여와 작품 출품의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간접 지원 운영 공간에서는 진행 사항이나 장비 지원 등 중간 역할을 톡톡히 해주어 큰 사고 없이 페스티벌이 치러질 수 있었다.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본 축제의 부대 프로그램인 '창작공간페어'도 각 창작공간 운영자들의 활발한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축제 기간 내내 시민청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 창작공간을 소개하는 창작공간페어 중 9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각 창작공간 운영 실무자들이 직접 부스에 나와 레지던스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컨설팅 데이'를 열었고, 레지던스 작가 선정 방식이나 입주 기간 등을 궁금해하는 작가 혹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열띤 컨설팅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어느 지역 하나 빈자리가 생겼다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모든 창작공간 관계자들이 빠지지 않고 각 공간의 부스를 지키며 성실한 설명을 통해 창작공간에 관한 예술가 및 일반 시민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인 시간이었다.

이번 축제 기간 중 창작공간 운영진 및 예술가, 일반 시민이 모여 '창작'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장도 마련되었다. 개막 전날 치러진 프로그램 '워크숍'이 바로 그것인데, 시각예술에서의 회화, 미디어(설치, 퍼포먼스 포함), 그리고 예술과 공동체에 관한 서로 다른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한 작가와 창작공간 운영진, 그리고



프로그램 깊이 보기

APT (ARTIST PRESENTATION) SHOW

다양한 작가가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는 극히 드물다.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에서는 9월 8~9일 양일간 24명·팀의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7분 동안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표하는 프로그램 'APT (ARTIST PRESENTATION) SHOW'가 진행됐다.

8일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가창창작스튜디오 서성훈 작가는 지명인 VANYAWOL(반야월, 대구광역시 지명)을 발표 제목으로 선정해 작품을 소개했다. 그는 "어느 날 뉴스에서 반야월 주민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벽이 부서지고 천장이 흔들린다'고 말한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반야월에 살았던 저로서는 다소 과장되었다고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 생각 끝에 소음의 피해를 더욱 과장되게 표현하기로 결심했다. 전투기 소음으로 부서진 전투모와 총을 빨강, 노랑, 파란색으로 알록달록하게 칠해 전시했다.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오화진 작가는 2009년에 <운명, 짝짓기> 프로젝트의 장을 열었다. "사물이나 작품에도 운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작가는 황학동 시장에서 산 촛대를 매일 기분에 따라 섬유 모직물을 바느질한 것으로 꾸며놓았는데, 그것이 그녀에게 촛대라는 오브제와 짝짓기하는 행위이며 작품 활동이었다. 그는 촛대를 시작으로 포장마차 의자, 구두, 컵 등 마주치는 여러 사물과 짝짓기하며 작업을 하나씩 완성해나갔다.

작가들의 프레젠테이션이 마무리된 후 초대 패널들이 소감을 밝혔다. 백남준아트센터의 서진석 관장은 "많은 작가가 자신의 작업을 매체와 적절하게 잘 풀어냈다. 그러나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작업과 사회에서 원하는 작업 사이의 간극이 작품에 드러나는 것 같았다. 사회적 흐름, 예술적 흐름에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보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류지연 학예연구관은 "다양한 작품을 만나서 기뻐다. 레지던시의 성격을 얼마나 자신의 작품에 반영했는지 그 성과를 서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남은 입주 기간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8

재단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세 개의 라운드테이블 전체 모더레이팅은 백기영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이 맡아 논의의 흐름을 매끄럽게 잡아주었다. 워크숍이 끝난 뒤 축제의 모든 참가자가 네트워킹할 수 있는 파티 자리가 마련돼 서로를 소개하며 작가들은 창작의 어려움을, 공간 운영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노하우를 쏟아냈고, 또 다른 관계자들은 말 그대로 자신을 소개하며 친교를 나누는 뜻깊은 밤을 보냈다.

이번 축제는 입주작가들을 위한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9일 양일간 축제에 참여한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 프레젠테이션 쇼(Artist Presentation Show)'는 아티스트가 주인공이 된 대표적인 프로그램. 총 24명의 참여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7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미술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문가와 시민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다. 서진석(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류지연(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신보슬(토탈미술관 큐레이터) 등이 전문 패널로 참여하며 프레젠테이션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참여 작가들은 또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10일, 11일 주

말 동안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했다.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최선의 <나비 project butterflies-숨 그리기 페인팅>이 어린이들과 함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관람객의 얼굴을 캐스팅해주는 서해영 작가의 라이브 조소 퍼포먼스도 자신의 작품 앞에서 이뤄졌다. 경기창작센터의 최두수 작가는 <팽이의 우주여행>을 열어 아이들이 직접 팽이를 돌려보며 체험해볼 수 있는 재미난 시간을 이끌었고, 인형을 가지고 인형극 공연을 한 서영주 작가도 관객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짧다면 짧았던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의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대규모 작품들이 서울로 올라왔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관계자가 이번 페스티벌 자리에 함께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과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자리였으며, '따로 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번 축제를 통해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의 창작활동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작업으로 다음 창작공간페스티벌에서 또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글
조예인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팀 대리
박효린

사진
서준호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
총감독
최영진

서준호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 총감독

‘예술가가 신나게 놀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이번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은 전반적으로 창작공간의 현재, 예술가의 현재에 주목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전국 각지의 창작공간 입주작가 180여 명의 작품을 모은 기획전시가 대표적이다. 100명을 훌쩍 넘는 작가를 만나고 페스티벌 전체의 그림을 그린 이는 서준호 총감독이다. 그와 페스티벌의 이모저모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인 ‘감각적 현실 SENSIBLE REALITY’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시 공간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 많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지만 힘들고 재미없고 짜들어 있는 느낌이었을까. 예전에 예술을 잘 몰랐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예술가’라고 하면 가난뱅이, 놀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뭔가 신나는 일이 벌어졌으면 했다.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을까. 미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 우리가 현실을 감각하며 그것을 다시 감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판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

준비 시간이 무척 짧았는데 18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를 기획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다.

주어진 시간은 석 달이었다. 그동안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한 전국의 창작공간 28곳 중 26곳을 직접 방문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과 의견을 조율해야 하니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힘들었다. 전시만 봐도, 시민청이라는 공간이 좋긴 한데 제약이 너무 많았다. 여기서 작가 183인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게 쉽지 않았고, 제한이 많아서 수정을 무척 많이 했다. 내가 직접 현장을 만들어 일할 때와 방식이 달라서 부딪히는 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가 잘 구현되었다고 보는지.

작가들이 많이 도와줬고 디자인 쪽으로 잘 구현되었다고 생각한다.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설계했다. 페스티벌에는 기획팀 14명이 있는데 코디네이터 한 사람당 작가 18~19명 정도를 담당해야 했다. 18~19명의 전시도 꽤 큰 편인데, 여기는 한 명씩 그 규모의 작가들과 계속 연락해야 했으니 코디네이터들이 정말 고생했고 잘해주었다.

기획전시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그중 ‘아티스트 프레젠테이션’이 새로운데, 의도했던 것과 맞게 잘 진행된 것 같다.

작가에게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잘나가는 작가들은 여기저기 자주 불려다니지만 전시에 참여할 수 없는 작가가 다수다. 그래서 패널을 초대하고 그들과 일반 관객에게 자기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전시를 하면 평가만 받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잘났어’ ‘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



라는 분위기로 시민에게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했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의도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눈치 보지 않는 게 작가들에게는 쉽지 않아 보이더라. 작가들은 말보다 작품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만 자신의 작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트레이닝 같은 차원이었다.

지역별로 창작공간의 색깔이 저마다 다를 텐데, 실제로 다녀보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

대체로 창작공간의 규모가 작으면 가족처럼 지내고, 규모가 큰 경우엔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류하게 된다. 그런데 인천아트플랫폼의 경우 입주작가가 꽤 많은 편임에도 연대가 끈끈했다. 어떤 걸 하자고 하면 모두 모이고, 매년 열리는 행사에 즐겁게 참여한다. 거기에는 운영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은 운영자와 시스템의 문제다. 상당수 문화재단에서는 직원의 보직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공간 운영자의 업무 지속성이 떨어지게 된다. 작가들도 연락하는 사람이 매번 바뀌면 혼선이 생길 테고, 운영자의 전문성도 창작공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자는 10년 정도 일한 사람이다. 업무의

특성을 잘 아니 작가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창작공간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교류'다. 이번 페스티벌은 더 큰 차원의 교류의 장인데, 작가들이 이렇게 모이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는 않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서로 모르고 지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의외로 교류할 기회가 드물다.처음에는 예술가끼리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다(웃음).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단연 '작가'다. 183명의 작가와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작가를 얻었다.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 많은 작가를 만난다는 건 기획자로서 좋은 경험이다. 다른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직접 일을 벌여왔는데, 처음으로 어디에선가 제안을 받고 함께 일했다. 나 자신의 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다.

앞으로도 기획자로서 한국 현대미술에 관한 이슈와 고민들을 풀어낼 것 같은데, 이번 페스티벌에서 하지 못했지만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전에 9명의 작가와 <반시대적 고찰>이라는 전시를 했다. 각자 사회를 바라보는 9가지 방식을 보여준 셈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지 고민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때 9명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만약 300명이 모이면 어떨까 생각했다. 예술가가 시대의 거울이라면 대한민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대한민국에서 분명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다. 왜 버젓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난 유령이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가시적인 것이 비가시성을 보일 때 유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다. 미래를 상상해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예술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와 상관없이 과학자처럼 끊임없이 탐구해가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훌륭한 예술이지만 내가 아직 젊기 때문인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걸 하고 싶다.

기획전시 참여작가 김재각, 이완

작가와 작가, 작품과 시민이 더 자주 만날 수 있길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은 전국의 작가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자리로서도 의미 있었다. 기획전시와 아티스트 프레젠테이션 쇼가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 창작공간 역시 작가들이 모여 작업의 영향을 주고받는 계기가 되는데, 작가와 작가, 이들의 작품과 시민이 더 자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든 가진 공통점인 듯하다. 참여작가 중 김재각(경남예술창작센터), 이완(경기창작센터) 두 사람을 만나 이번 페스티벌과 레지던시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재각 경남예술창작센터에 입주해 있고 조각 작업을 한다. 한 기수의 기간이 6개월인데 첫 번째에 이어 재공모에 선발돼 레지던시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경남예술창작센터는 경남 산청, 지리산 자락에 있다. 내 분야가 조각이다 보니 작업 프로세스로 보면 불편한 게 없지 않지만, 작업에 집중하기에 무척 좋은 환경이다.

이완 경기창작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입주해 있고 내년 3월까지 1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여럿 거친 편이다.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은 전국 지자체의 창작공간과 작가들이 대규모로 참여하고, 특히 올해는 기획전시에 작가 180여 명이 참여해 교류의 폭이 커진 느낌이다.

이완 이렇게 많은 수의 작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전시는 드물다. 공간적으로나 준비 기간으로나 제약이 무척 많았을 텐데, 미술이 대중과 거리가 먼 와중에 블록버스터 전시가 아니라 동시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전시로

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작가들이 적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작가도 장르, 성향, 작품의 지향점 등이 많이 다른 편인데, 지역 레지던시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장소 특정한 작업도 이번 전시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김재각 아무래도 작가들이 작업할 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라 의도하든 하지 않든 작업 공간·지역이 작업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나는 레지던시를 처음 경험하고 있는데, 한정된 기간에 할 수 있는 프로젝트성 작업이라면 그런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겠지만 내 경우처럼 페인팅이나 조각 등 작업의 지속성이 중요한 작가들은 그 안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특징이 덜 드러나는 것 같다.

이완 아마 장소 특정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더라도 이번 전시에 그런 작품을 출품하지 않았을 것 같다. 작가의 경향을 보여주는 게 전시 참여의 목적이었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을 하는 작가의 경우 이번



전시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작가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슈를 다루는 작가보다 시민에게 다가가기 좋은 작품, 이를테면 심미적인 아름다움이 뛰어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순수예술을 하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인데 가능하면 다양한 작가가 고루 지원받는 게 좋을 것 같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끼는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

김재각 전시된 작품이 무척 다양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보이기도 한다. 이완 작가님도 얘기했지만 갈수록 개념작업을 하는 작가가 더 다수라는 느낌도 있는데, 그런 선호도가 현대미술 전반의 분위기와는 다르다는 게 생각할 지점이 있을 것 같다. 조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비 문제 등이 걸려 있어서인지 조각가들이 레지던시에서 소수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각 작업을 하는 분들께서는 작업 공간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

다. 작품의 운반, 작업 소음 등 집적 이익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조각은 공간 지원이 가장 절실한 분야 아닐까.

김재각 조각 전문 레지던시도 있다. 양주시의 장흥아트센터에서 운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계속되는지는 모르겠다. 조각이 레지던시에 맞지 않는 장르일 수도 있다.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작가가 모이는 곳인데, 아무래도 다른 작가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해외 레지던시는 국내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완 해외 레지던시의 경우 목적이 확실하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과 사립 레지던시에는 차이가 있는데,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해외의 사립 레지던시도 공간, 예산의 한계가 있다. 대신 세미나가 강력하게 구축돼 있다는 게 인상 깊었다. 그 지역의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 등이 참여해 환경이나 정치 이슈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어느 정도 관점이 다르고 거리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예산이 적지만 그런 네트워킹이 잘돼 있는 편이다.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창작공간에서 더 개선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

이완 레지던시에서 가장 중심이 돼야 할 것은 작가다. 종종 작가가 수단이 되는 느낌, 즉 레지던시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작가가 존재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행정 중심적으로 돌아가면서 정작 해당 작가가 어떤 활동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그렇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무척 좋은 제도지만, 작가들에게 작업 공간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필요한데, 그럼 매니저가 같이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걸 기대하게 된다. 즉 작가마다 추구하는 게 다 다르니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데 융통성이 발휘됐으면 좋겠다.

김재각 레지던시 기간이 종료되고 결과 보고 전시를 하면 끝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가들이 작업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창작공간페스티벌이 그런 점에서도 좋은 자리인 것 같다. 레지던시를 거쳐간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자리이니. 사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작가들이 모이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지역별, 공간별로도 이렇게 지속성을 갖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변칙 판타지〉 무대에 올리는 미디어 아티스트 정은영

잇힌 판타지가 진짜 무대를 만났을 때

미디어 아티스트 정은영은 여성의 삶에 지속적으로 천착해온 작가다. 그의 작업 방식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독특한 에너지를 띠게 된 것은 〈여성국극 프로젝트〉부터. 한국에서는 거의 잇힌, 여성 배우가 남성의 역할까지 하는 ‘여성국극’ 무대에서, 화려한 분장을 한 배우가 이상적인 남성상을 연기할 때의 그 독특한 판타지는 “정상도 반칙도 아닌 ‘변칙’”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영상,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매체로 〈여성국극 프로젝트〉를 이어온 정은영 작가가 오는 10월에는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한 작품 〈변칙 판타지〉를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올린다. ‘무대를 거의 잃어버린 이들이 진짜 무대에 서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다리는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Silence Can Young Jung

일본의 다카라즈카, 그리고 한국의 '여성국극'

일본 문화예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미혼 여성으로만 이뤄진 다카라즈카 가극단, 일명 '다카라즈카'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일본 전통 예능인 가부키에서 남성이 여성 역할을 맡는 것과 반대로 다카라즈카에선 여성이 남성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특징이다.

1914년 일본 대기업 한큐전철이 온천의 여흥거리로 시작한 다카라즈카는 현재 연간 공연 횟수 1,300회, 관객 250만명을 웃돌 만큼 인기 있는 장르다. 대개 1부에선 뮤지컬을 공연하고 2부에서는 레뷰(쇼)를 선보인다. 배우 양성을 위해 1919년부터 2년제의 음악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매년 80명 정원의 입학 경쟁률이 20~30대 1에 이른다. 다카라즈카 스타가 될 경우 높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데다 가극단을 퇴단한 뒤 여배우로서 연예계나 공연계에서 다시 활동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사랑 지상주의 줄거리를 비롯해 만화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무대와 의상, 분장 등 다카라즈카는 언뜻 보면 유치하

다. 하지만 고도로 양식화한 독자적 장르로 자리매김하며 102년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연기하는 남성역 배우들은 세대를 거둬하며 여성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 다카라즈카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여성국극이 있다. 다만 다카라즈카가 지금도 일반 대중의 각광을 받는 것과 달리 여성국극은 거의 소멸 단계라는 점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다. 여성국극은 1948년 명창 박록주(1906~1979)를 중심으로 여성국악동호회가 무대에 올린 <옥중화>에서 시작된다. 처음부터 서양음악을 바탕으로 한 다카라즈카와 달리 여성국극은 전통적인 판소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춘향전>을 각색한 <옥중화>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듬해 <햇님 달님>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여성국극의 인기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당시 창극이 '국극'으로 불렸기 때문에 여성창극 대신 여성국극이란 이름이 일반화됐다. 새로운 장르인 여성국극의 성공에 따라 단체들이 앞다퉈 만들어졌고, 이들의 공연은 관객으로 가득찼다. 특히 임춘앵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인 <노래는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에는 여성국극의 황금기에 남역 악역(가다키)을 맡아 유명했던 배우 이소자의 이야기가 담겼다.



(1924~1975), 조금앵(1930~2012) 등 남자 역 배우들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1950년대 최전성기를 구가한 여성국극은 1960년대 들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TV 등장 등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데다 후진 양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에는 여성국극에 대해 정통성 있는 판소리 또는 혼성 창극보다 조악한 음악극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물론 그 쇠퇴 원인이 여성들 간의 고질적인 알력 다툼이라는 편견이 존재했지만 최근엔 여성 집단에 대한 사회적 무시와 차별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국극은 간신히 명맥만 이어오다 1990년대 초반 원로배우들을 중심으로 부활에 나섰다지만 쇠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여성의 현실과 판타지의 극단을 한데 안은 배우들, 그리고 이들을 담은 작품

여성주의 미디어 아티스트 정은영은 2008년부터 한국에서 잊혀가는 여성국극을 통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성국극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리서치 기반 작업인 <여성국극 프로젝트>는 여성국극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전·현직 여성국극 배우들과의 지속적인 접촉 및 인터뷰, 워크숍 등으로 이뤄진 작업이다. 그는 그동안 영상, 사진, 설치, 공연 등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오는 10월 5~9일에는 남산예술센터에서 그가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하는 <변칙 판타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성국극은 반칙은 아니지만 정상도 아닌 ‘변칙’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없던 새로운 장르가 아니라 기존 창극의 변칙인 셈이죠. 1945년 광복 후 일본이 기생을 관리하려고 만들었던 권번이 폐지됐는데, 소리와 춤을 익힌 기생들이 자연스럽게 국악계로 편입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늘어난 여성 명창들이 국악계의 가부장적 폭력성에 맞서 만든 게 여성국극이었어요.”

그가 한국 공연예술 역사에서 잠깐 빛났다가 현재 명맥을 잇기도 힘든 여성국극을 소재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데는 2007년부터 2년간 참여한 <동두천 프로젝트>의 도움이 컸다. 그는 고승욱, 김상돈, 노재운 등 3명의 작가와 함께 2년간 동두천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질문하는 작업을 했다. 2000년대 초반 그의 작업이 주로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소극장 방식이었다면 <동두천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석

“광복 후 늘어난
여성 명창들이
국악계의
가부장적 폭력성에
맞서 만든 게
여성국극이었어요.”



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동두천 프로젝트>는 의미 있었지만 작업이 끝난 뒤 저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대학 선배인 여성학자 김지혜 교수로부터 여성국극 연구 모임에 나오라는 권유를 받았습시다. 아티스트인 제가 여성국극을 소재로 예술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고등학교 시절 TV에서 다카라즈카를 재밌게 본 기억도 나고 해서, 선배를 따라 원로 여성국극 배우들의 정기모임에 나갔는데, 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독특한 아우라나 이야기가 그렇게 흥미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매혹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 그는 정기모임에 꾸준히 참석했다. 몇 달이 지나자 원로 배우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 처음으로 자신의 작업에 여성국극 배우를 등장시킨 영상물 <분장의 시간>을 발표했다. <분장의 시간>은 원로배우가 분장을 통해 남자로 변신하는 모습을 극단적인 클로즈업으로 찍은 것이다. 이어 발표한 <뿔밖의 응답>(2009)과 <리허설>(2010) 역시 무대만 오르면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 캐릭터로 변하는 원로배우들의 모습을 통해 성별에 부여된 고유한 규범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현실과의 모순된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여성국극은
반칙은 아니지만
정상도 아닌 ‘변칙’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장르가 아니라
기존 창극의
변칙인 셈이죠.”



작품 〈정동의 막〉은
여성국극에 매료돼 뛰어든
배우 남은진의 모습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남은진의 이야기는
신작 〈변칙 판타지〉의
뼈대이기도 하다.

“여성국극에 대해 공부하면서 2011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보게 됐어요. 연구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남자 역으로 유명했던 배우 조금애와 그의 팬의 가상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사실 조금애는 세 번의 결혼을 통해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녀의 앨범에는 실제 결혼 사진이 아니라 이 사진만이 남아 있어요. 여성국극의 변칙술, 새롭고 이상한 남성 젠더의 탄생, 배우에 대한 팬들의 정념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판타지를 좇는 이들의 불안하고 어렵고 아름다운 삶

주로 사진과 영상 등의 아카이브 작업을 해온 그는 이후 카메라 앞에서 부자연스러운 원로배우들의 모습을 보며 공연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12년작 〈(off)stage〉는 1세대 배우가 등장해 렉처 퍼포먼스를 하는 형식이고, 이듬해 페스티벌 봄에서 〈(off)stage〉와 함께 선보인 〈Masterclass〉는 2세대 배우가 자신의 제자에게 남성의 역할을 가르치는 순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무대다. 무대 이면의 실상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준다는 점



에서 안무가 제롬 벨(Jérôme Bel)을 연상케 한다. 이 프로젝트로 그는 2013년 국내에서 최고 권위를 지닌 미술상인 에르메스 상을 받은 바 있다.

또 당시 리허설을 보러 왔던 도쿄아트마켓(TPAM) 측의 제안으로 두 작품을 일본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2013년 <정동의 막> 비디오·공연은 여성국극의 후계자인 젊은 배우 남은진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그의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확장시켰다. 카메라에서 무대로 작업 방식이 바뀔수록 외부 관찰자였던 그는 점점 더 깊이 개입하게 됐다.

“남은진은 우연히 본 여성국극에 이끌려 이등우 선생님의 제자가 됐어요. 하지만 여성국극이 쇠락해가는 요즘 좋은 배우가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고민 끝에 선생님을 떠났어요. 한때 자신을 매혹시켜 뛰어들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삶이 불안정해질지는 몰랐던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허망한 판타지를 안고 사는 거지만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침 페스티벌 봄에서 선보인 제 작품을 봤고, 이런 방식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동의 막>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변칙 판타지> 역시 남은진의 이야기가 공연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변칙 판타지>는 여성국극에 매료된 남은진이 배우가 되려는 과정을 통해 무대의 판타지를 다룬다. 여성국극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남은진에게 여성국극은 원로 선생님들의 무용담 같은 회고를 바탕으로 그 자신이 상상한 판타지로 서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곧 정통성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작품의 경우 1980년대 촌스러운 분위기를 배경으로 남은진 외에 남성 아마추어 합창단인 지보이스(G-Voice)가 출연할 예정이다. 지보이스를 다룬 다큐멘터리 <위켄즈>는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대한민국 최초 관객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오는 10월엔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 공식 초청돼 국내에서 첫 공개된다.

“무대는 1980년대 게이스러운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촌스러워도 개인들의 활기가 느껴질 거예요. 다들 아마추어라는 게 조금 걱정되지만 내면의 에너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남은진}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4>에서 선보인 퍼포먼스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서울시립미술관).

글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사진
김창제,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작품 사진
<노래는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2015),
<정동의 막> (2013)
영상 갈무리(정은영
작가 홈페이지
www.sirenjung.com).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예술로 상상극장> 예술감독 임도완

연극은 발명품처럼, 언제나 새로운 연극에 도전한다

임도완 연출가(서울예대 교수, 사다리움직임연구소장)는 신체극의 선두주자로 불리며 탄탄하고 섬세한 연출력으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연출가다. 그는 '교육극단 사다리' 창단 멤버(1988년)로 참여하면서부터 어린이극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어린이를 위한 창작극 연출에 계속 참여해왔으며, 올해 서울문화재단에서 처음 시작한 <2016 예술로 상상극장>에 예술감독으로 참여했다. 신체극에서 어린이극까지,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연극적 실험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임 연출을 만났다.



Im Do-wan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로 연극인을 양성하면서 사다리움직임연구소를 이끄는 극단의 대표, 연출가로 끊임없이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일단 학교가 개강을 해서 바빠지기 시작했다(웃음). 10월 말 열리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중 카프카의 <소송>이라는 작품을 이수연 연출가와 공동 연출로 준비하고 있다. 원작의 내용은 힘 있는 기관에서 권력으로 개인을 파헤치는 것이다. 이수연 공동 연출은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로 많이 보강했다. 무대 연출 면에서는 별다른 무대장치가 없고 테이블, 의자들만 있다. 그것 자체가 카프카의 <소송>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다리움직임연구소는 한국 연극계에서 신체극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사다리움직임연구소가 지향하는 연극의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한다.

텍스트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움직임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 언어를 절제하고 이미지화해서 움직임으로 드러낸다. 텍스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언어를 덜어내고 이미지를 극대화해 관객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상상하게 하고 싶다. 연극이 마음을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두드리고, 그다음에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극도 미술 작품을 관람하듯이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 설명 없이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게 된다. 연극도 미술처럼 봐주셨으면 한다.

움직임 중심의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프랑스 자크 르코크(Ecole International de théâtre Jacques Lecoq) 유학 시절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한국의 팬터마임 테크닉을 벗어난, 좀 다른 걸 하고 싶어서 프랑스로 가게 되었다. 자크르코크는 마임뿐만 아니라 오브제, 가면, 움직임 등 흥미로운 걸 하고 있었다. 색깔을 움직임으로 변형하고, 움직임을 스케치하고, 구조물로 공간화하고, 구조물을 마스크로 만들고, 의상으로 만들기도 했다. 매우 크리에이티브한 경험이었다. 사이먼 맥버니(Simon McBurney, 컴플리시테의 창단멤버이자 대표 연출), 태양의 서커스의 아리안 므누슈킨(Ariane Mnouchkine) 등이 자크르코크이 배출한 연출가로, 창의적인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크르코크에서 수학하면서 프랑스 연극계에서 느낀 점과 한국 연극계에 도입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

프랑스에서 느낀 것은 '다양성'이었다. 그곳도 모두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장르, 다양한 시도를 모두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리얼리즘적이며, 스토리 위주의 연극이 주류인 것이 아쉽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보이첵(Woyzeck)>을 공연한 후 사다리움직임연구소를 '피지컬시어터'라고 명명하는 신문 기사가 나오더라. 우리의 시도가 국내외로 주목받게 된 이후에 유사한 형식의 공연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다. 우리 연극계의 새로운 형식, 장르의 융·복합 등 다양한 시도를 촉발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실험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나.

우리 연극이 특별히 실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은사인 안민수 교수님께서 늘 '작품을 발명품 만들 듯이 하라'고 하셨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연극은 당연히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 작업 중에 어린이 창극 <미녀와 야수>에 새롭게 도전한다고 들었다. 기존의 임 연출의 극과는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데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

어린이 창극 참여도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창극의 언어는 관객이 이해하기 쉽지

<예술로 상상극장>
작품 제작 개발
워크숍 중.



않다. 그걸 좀 쉽게 해보려고 한다. 또한 굉장히 새롭게 변화를 꾀해보려고 한다. 통섭이 되든 뉴폼아트(New Form Art)가 되든 어린이극도 창의적으로 해보자고 <미녀와 야수>를 제안한 것이다. 실험적인 것을 오히려 어린이들이 더 잘 받아들인다. 어른의 시선에서 어린이극을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더 제한된다.

임연출이 어린이극에도 관심을 갖고 작업하는 것을 모르는 이가 많은데, 언제부터 어린이극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1988년 '교육극단 사다리'의 창단 멤버였다. 어린이가 좋은 공연을 봐야 미래에 좋은 관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창단하게 되었다. 사다리의 공연은 극장이 아니라 지금의 서울문화재단 <예술로 상상극장>처럼 어린이가 있는 공간으로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예전 극장 시설 대부분은 어린

이의 특성이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했고, 어두운 점 때문에 어린이들이 무서워하기도 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려고 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공연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문턱이 높았다. 고생을 많이 했지. 2~3년 정도하다가 결국은 찾아가는 공연을 포기하고, 대학로 파랑새극장에서 공연을 했다.

현재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어린이극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아동청소년연극 전공이 생겨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작품 활동을 많이 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어린이의 흥미나 관심을 끄는 재미 위주의 공연, 너무 교훈적인 내용으로 훈계를 하는 듯한 공연이 아직도 많다. 어린이극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좀 더 가졌으면 한다. 스핀지처럼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건드려 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예술로 상상극장>

올해 처음 시작한 <2016 예술로 상상극장>은 그동안 우수 어린이 공연을 선별해 초청하는 재공연 위주의 <관악명랑방석극장>을 개편한 사업으로, 어린이 창작극을 개발·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어린이가 있는 곳은 어디나 극장이 된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극 창작 작품을 지원해 다양한 레퍼토리 기반을 마련하고, 이동 가능한 소규모 공연으로 제작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일상 공간에서 보다 쉽게 공연을 관람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누가 더 빠르게?> <쫄! 비밀이야!> <생각을 모으는 사람>, 문짜인형극 <꼬마 장승 가출기> <꼬마 게 이야기> 등 5개 창작극을 개발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 8월 한 달간 공연했고, 11월 어린이시설로 순회 공연할 예정이다.



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마찬가지로 어린이극도 스토리텔링 위주의 극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 장르 융·복합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올해 처음 시도한 어린이 참여형 공연개발·제작지원 프로젝트 <예술로 상상극장>에 예술감독으로 참여했는데, 그 계기와 <예술로 상상극장>에서 만들고 싶었던 어린이극의 방향은 어떤 것이었나.

교육극단 사다리 초창기에 어린이가 있는 공간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중단했는데, 같은 취지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로 상상극장>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데 매우 기뻐했다. ‘어린이가 있는 곳 어디나 극장이 된다’라는 목표로 기획된 <예술로 상상극장>은 어린이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 같다. 찾아가는 공연은 어린이들이 극장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친근한 일상 공간에서 공연에 더욱 몰입할 수 있어 아이들이 더욱 손쉽게 공연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국가에서 인증받은 예술단체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다.

<예술로 상상극장>에서도 보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어린이극을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공모된 50여 개 작품 중에서 5개의 작품을 선정해 2개월간 작품개발·제작워크숍을 진행했다. 단순 관람 형태에서 벗어나 어린이가 참여해 공감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작품의 방향을 이끌었고, 기존의 어린이극 형식에서 벗어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려고 했다.

움직임과 오브제를 활용한 <췌! 비밀이야!>도 그런 작품 중 하나다. 서사적인 줄거리 대신 텐트를 활용해 주크박스, 배, 조개 등 다양한 이미지의 공간으로 변화를 꾀하며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했다.

<예술로 상상극장>에 참여하기 전 기대한 바에 대한 성취와 아쉬웠던 점은?

기대 이상으로 작품이 잘 만들어졌고, 5개 작품 모두 특색이 있었다. 어린이 관객의 반응도 좋았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린이극이 다양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다양한 도전에 열린 태도를 가진 신진 예술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참여하는 팀들이 더욱 창의적으로



공연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겠다. 기존의 어린이극과는 다른 것을 창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으면 한다. 일반적인 텍스트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나 소리를 사용하거나 악기 등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예술로 상상극장>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해 조언 부탁한다.

어린이극의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이 지원을 계속해나갔으면 한다. 시간이 흘러 참여 팀이 더 많아지면 페스티벌을 열면 좋겠다(웃음). 우수 공연을 선정해서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공연을 했다면, 페스티벌에선 극장에서 조명, 음향을 충분히 사용해 공연을 올려보는 것도 재밌겠다.

어린이극 발전을 위해 창작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창작자에게 어떠한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과 창작자로서 무대 위에서 극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르다.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도로 작품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넘치는 사랑에 의해서 작품이 일방적으로 교훈을 주려고 하거나 교육하려 하면 문제가 된다.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가 스스로 관찰하고, 느끼고, 상상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의 상상력을 열어주는 작품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좋은 아동극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다른 작품을 많이 봐야 한다. 끊임없이 어린이를 연구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1 문짜인형극 <꼬마 정승기출기>.
- 2 <췌! 비밀이야!>.
- 3 <생각을 모으는 사람>.
- 4 <누가 더 빠르게?>.

진행
김수현
서울문화재단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매니저

정리
강지은
서울문화재단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대리

사진
김창제, 서울문화재단



임
희
윤



이
경
준



장
규
수

대중음악계 대형 기획사의 서브레이블 설립

대중음악계의 발전적인 방향 찾기

YG, SM,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적인 대형 기획사들이 잇따라 인디신에 눈을 돌리면서 환경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YG는 '하이그라운드'를, SM은 2014년 시작한 레이블 '발전소'와 EDM 레이블 '스크림 레코즈'를 설립했다. 6월에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서브레이블 '문화인'을 지원하며 화제가 됐다. 좋은 음악을 대중에게 더 잘 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과, 중국에는 자본이 음악의 다양성을 압박할 것이라는 불안 섞인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가운데 대중음악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새로운 지형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 나눴다.



안
정
일



이
윤
희

사회	임희운 동아일보 기자
토론	이경준 대중음악 평론가
장규수	연예산업연구소 소장
이윤혁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
안정일	현 레잇비 대표, 전 CJ E&M 음악사업부문 음악제작팀장
일시	2016. 9. 5(월) 15:00~17:00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오늘의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돌아가면서 한 분씩 개요를 말씀해주실까요.

장규수 이 주제가 화두가 된 것은 ‘문화인’의 설립 때문인 것 같습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가 ‘문화인’이라는 인디 레이블을 출범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되었지요. 거대 자본을 가진 회사가 산하 레이블을 만드는 것인지, 인디 레이블 시장에 진출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본 종속, 인디 업계의 영향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로엔에 ‘문화인’이 있고, YG엔터테인먼트(YG)에는 ‘하이그라운드’, SM엔터테인먼트(SM)에는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들은 인디레이블인가요, 아닌가요.

이경준 일단 용어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련의 보도자료를 보면 영리한 공생, 창의성 수혈, 자원의 보고, 저비용 고효율 등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보고 있거든요. 다분히 의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명확화한 것처럼 인디의 창의성 고양 내지는 다양성 수혈을 위해 돈을 투자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비용 고효율, 공생을 말하면서 창의성 수혈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 같아서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큼니다.

안정일 제가 보는 서브레이블 이슈와는 개념이 다른데요. 인디 얘기가 언급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를 받은 쪽에서는 대형 회사 레이블의 이미지적인 부분과 자기가 못하고 있는 마케팅적인 톨을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투자한 회사는 여러 레이블로 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지요. 최근 산업이 변화하면서 레이블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콘텐츠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명이 짧아지면서, 자기 콘텐츠를 케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출시 전 후 몇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올린해야 합니다. 많은 미디어를 동시에 커버하려면 자본과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대형 회사가 아니

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도움을 받거나 조직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상호간에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장규수 한국 음악 산업의 흐름을 볼 때 지금이 딱 이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회사별로도 조금씩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YG는 테디, 타블로, 싸이처럼 아티스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특색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대표와 윈윈(win-win)하는 분위기로 가기도 합니다. SM은 요즘 EDM이 유행하니 EDM레이블(스크림 레코즈)을 하겠다고 하고요. 장점은 첫째 수익 다각화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SM이 아이돌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악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음악의 다양화,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창작 시스템의 구축 등 여러 환경에서 이런 시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윤혁 레이블의 입장에서는 할 일도 많아졌고 경영 자체도 디테일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쌓여서 진입장벽이 될지, 기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협회 입장에서는 공연을 만들고 마케팅적인 솔루션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지 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요청이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준 영국에서는 보통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데요. 첫째, 계약과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둘째, 메이저 유통만 도와줄 것인가. 셋째, 메이저 소속에 들어가 있을 것인가입니다. 한국의 발전소, 하이그라운드, 문화인, PSYG는 세 번째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창의적인 측면, 작곡적인 측면에 (회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되고요. 자본이나 경제 논리를 떠나서 거대 자본 레이블에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지는 회의적입니다.

안정일 창의성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한 회사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의 창의성이나 회사의 창의적인 시스템을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들어야 잘 팔릴 것 같다’고 할 만큼 그림을 그려놓은 회사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본 부분은 기존 음악 산업의 투자자가 누구였나 하는 문제거든요. 기존에는 유통사, 레코드

지금의 상태는 윈윈에 가깝겠네요. 레이블 쪽에서는 돈과 네트워크가 생기는 것이고 음악적인 독립성도 보장받고요. 그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임희운 동아일보 기자

콘텐츠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명이 짧아지면서, 자기 콘텐츠를
계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자본과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거나 조직을 불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안정일 현 렛잇비 대표, 전 CJ E&M 음악사업부문 음악제작팀장

사가 산업 내부의 자본가들이었어요. 로엔이나 CJ는 유통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제작사이던 SM, YG, JYP 같은 회사들이 투자자로 나서기 시작한 측면이 강해서요. 3사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다른 산업 내의 주체가 투자자로 나서고 서브레이블을 둔다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요.

지금의 상태는 원원에 가깝겠네요. 레이블 쪽에서는 돈과 네트워크가 생기는 것이고, 음악적인 독립성도 보장받고요. 그렇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경준 바라보는 전제가 다른 것 같아요. 공생, 수혈,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시혜적인 관점이거든요. 인디가 아니라 오버와 언더로 보는 것이죠. ‘너희가 미약하니 우리가 끌어올려서 메이저로 만들어주겠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아무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하이그라운드, 문화인에 들어간 인디 밴드·아티스트들도 솔직히 말해서 돈이 되거든요. 앞으로 소위 말하는 단골이 빠졌을 경우가 크게 우려됩니다. 베풀어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자본이 과연 독립성을 지켜줄 것인지에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안정일 새로 영입된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환경과는 달라진 곳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회사들이 얼마큼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존에 혼자서 많은 것을 감당할 때와는 다른 시스템 안에서의 수익 분배라든지, 자기 활동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이윤혁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생각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안정일 이제는 ‘어떤 음악을 만들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

‘너희가 미약하니 우리가 끌어올려서 메이저로 만들어주겠다’를
전제로 하는데, 시혜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자본이 과연 독립성을
지켜줄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경준 대중음악 평론가

서 요구하거나 매출을 위해 이미지를 활용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아티스트가 기존에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메이저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분명 차원이 다를 겁니다. 실제로 이미지를 소비해서 도움이 될 아티스트도 있지만 기존의 이미지까지 망칠 아티스트들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것을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새로운 국면이 생기는 것은 분명해요.

장규수 예전과 달리 지금의 상황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15년 전 청소년의 절반은 HOT, 절반은 젝스키스 팬으로 나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다양성이 있습니까. 그중 누가 대중성을 가지느냐, 상업적으로도 이슈가 있느냐의 차이이지 다양성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공정한 시장이 형성돼야 하고, 소수가 선택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을 막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미국에는 대형 에이전시들이 프로덕션의 지분을 몇 프로 이상 가질 수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속된 사람들만 쓰면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잃고 대자본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시장이 너무 작고 역사가 짧다 보니 제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거대 자본이 인디 뮤지션에게 투자해서 우려하는 일이 벌어진 사례가 있을까요?

이경준 안 좋은 일보다는 편승하는 경우가 많았죠.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유행한 그런지(grunge)의 경우, 서브 팝(Sub Pop)이 뜨고 밴드 너바나(Nirvana)가 뜨니까 투자한 경우가 있었는데, 명반들도 나왔지만 끝이 별로 좋지 못했죠. 한국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그대로 붙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다양성은 사실 아티스트가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누가 주입해주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요. 시스템이나 자본으로 길들이려고 하는 자체가 다양성의 정의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표준화하는 다양성이잖아요. 특정한 방향이나 자본의 힘으로 다양성을 늘려서 원하는 다양성을 만들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임희운 너바나가 인디에서 1집을 내고, 2집 <네버마인드(Nevermind)>로 록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들 하는데요. 그때 사실 너바나의 리더였던 커트 코베인은 <네버마인드>가 굉장히 영악한 팝앨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 너

바나가 일종의 영향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 워싱턴 주에 사는 소수의 인디음악 마니아들만 그들의 음악을 알고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이경준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후의 성공이 커트 코베인의 자살에 영향을 주었지만 음악적인 면에 대해서는 회사가 간섭을 거의 하지 않았고 1집의 음악을 2집에서 멋있게 잘 구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경우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보호해주고 널리 알려야겠다는 이유로 시작했다기보다는 경영적인 마인드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안정일 저는 산업 안에서 새로운 아티스트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음악이 중간에 치고 나와서 그 안의 강자들을 위협하고 많은 마니아를 거느리는 산업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었던 말이에요. 이제는 대자본이 만들어놓은 울타리 안에 편승하지 못하면 그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주류 혹은 인디였는데 대중의 사랑을 폭넓게 받기 힘들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로엔이나 CJ처럼 음원 유통까지

하고 있는 곳은 아티스트에게 투자하는 개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레이블화 되어 있으면 깃발 아래 모인 뮤지션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어서요. 요즘 하루에 적게는 50개, 많게는 100개가 넘는 음원이 나오는데 메인 화면에 걸리지 않으면 없는 음악처럼 취급당하거든요. 그것도 24시간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과연 인디레이블과 뮤지션들이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경준 생각 자체가 이미 인디를 아래로 보고 있어요. 누구나 자신의 음악이 뜨고 알려지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인디에 있는 많은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하지는 않아요. 자기 음악을 들어주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거든요. 그것이 인디의 출발점이고요. 인디 음악 마니아들은 국내에 약 3,000명 내외로 봐요. 그 수가 갑자기 아이돌의 팬처럼 10만 명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음악을 하든지 내 음악의 독립성과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면 아티스트라는 증거인 데요. 오히려 지금은 그런 친구가 많아졌어요. 레이블에서 눈치 안 보고 혼자서 만들고 릴리즈하는 친구들이 과거 레이블들이 했던 것을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대형 자본의 투자를 바라지 않고 자기 음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인디 뮤지션이 자기 음악을 조금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서브레이블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그냥 평화로운 상태 아닌가요.

이경준 평화롭게 있는 사람들을 괜히 깨워서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고 싶은 사람들을 막지는 않겠지만 전체 신을 도매금으로 넘기는 느낌이 들어서요.

장규수 시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요. 경제적으로 힘이 있다고 해서 작은 시장까지 다 먹고 자기 파이를 늘리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는 쪽도 있겠지만요. 지금 상황은 투자받은 상장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니까요. 강자가 약자를 먹으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아델이 소니와 계약했더라고요. <헬로(hello)> 앨범까지 XL 레코딩스 소속이었지만 계약이 끝났고, 이미 미국 유통은 소니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 2집과 3집 앨범이 인디음반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음악적 색깔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일 아델이 밴드였으면 음악 색깔이 변한 게 눈에 보였을 겁니다. 누구의 영향이라고 얘기하기가 그런 게 아마 옮기기 전 음악 스테프를 다 데리고 왔으면 하나도 바뀌지 않았겠죠. 다른 환경에서 만든다면 분명 다른 음악이 나올 것이고요.

이경준 용어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인디레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전략적인 선택

이었는지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계는 사실 '서브레이블'로 보는 게 맞고요.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인디레이블로 포장해서 보이고 싶은 것인지, 명목상 레이블을 두고 싶은 것인지, '발전소'든 '하이그라운드'든 '문화인'이든 용어 설정을 정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윤혁 해외와 다르게 한국에서 인디레이블이 자체적으로 서브레이블을 두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요, '마스터플랜'이 최근에 '광합성'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했지요. 인디에서 시작해서 성장한 회사들이 서브레이블을 거느리게 되는 경우를 SM, YG, JYP 등 대형 레이블의 서브 레이블 및 로엔, CJ 엔터테인먼트의 서브레이블과 비교했을 때 중국에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갑자기 너무 잘 풀려서 커져버리면, 분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발전소와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면 구분이 가능한가 싶기도 해요.

이경준 저도 구분이 모호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해피로봇 레코드나 마스터플랜을 인디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규모가 커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단어의 연원이나 기원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서브레이블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경준 인디레이블 얘기를 들어보면 90% 이상 접을 것 같다고 해요. 푸념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팀을 줄이고 있지 늘리는 곳은 없거든요. 오히려 인디레이블보다는 자기가 제작해서 릴리즈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윤혁 그러한 최근의 트렌드를 '안녕하신가영'이 잘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직접 움직이는 형태로 계속 음악을 할 것이냐, 파트너를 찾을 것이냐, 파트너를 찾는다면 어느 수준을 목표로 할 것이냐고 믿이 많아질 것 같고, 회사 입장에서는 규모별로 다양하게 접근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분과 가능성을 확보한 회사들은 이미 대부분 투자를 받은 것 같아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요. 당분간 이합집산이 있을 것 같고요.

안정일 지금 기획사 출신의 자본 말고 업계에 돈을 투자하는 자본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 같아요. 서브레이블 내에서 이합집산은 이뤄질 수 있으나 대형 자본을 중심으로 다시 회가 생길까 싶어요. 왜냐면 많은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

소규모 제작사들이 오래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다양한 아티스트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음악의 가격, 분배 방식 등 최소한의 제도나 생존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윤혁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

언가를 찾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낮다 보니 몸집을 줄이는데, 줄이면 더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연합을 하거나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받을 길이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본이 투자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아야 하는데 그런 시절이 지났잖아요. 스트리밍 서비스 위주의 매출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에서는 콘텐츠 하나의 부가가치가 작아서 산업 밖의 자본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서버레이블이 생겨나는 과도기적인 시점이고 그나마 어떻게 보면 마지막 투자일 가능성마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윤혁 중소 제작자 분들이 위축돼 있는 분위기이긴 해요. 거의 혼자 아니면 두 명이 일하는 회사인데요. 협회가 노력해서 도와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투자를 받아서 회사 조직을 구축하지 못하면 다양성을 담보로 하는 수많은 좋은 회사와 아티스트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어요.

서버레이블을 만드는 큰 기획사, 운영하는 분들, 인디신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에게 조언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규수 인디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작의 세련미라든지 마케팅의 과정이라든지 큰 조직의 노하우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발전할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대형 레이블도 너무 틀에 박힌 청소년 위주의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창작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호 간의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이쪽 영역, 우리는 이쪽 영역이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조금씩 접점이 생기면서 자기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윤혁 저는 생존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소규모 제작사들이 오래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다양한 아티스트가 보호받을 수 있고요.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되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책임져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어떤 제도적인 틀이나 생존할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 음악의 가격일 수도 있고, 분배 방식일 수도 있고, 지원 제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서버레이블을 하건 자기 혼자 계속하건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정일 서버레이블 전체가 아니라 인디를 화두로 하고 있는 서버레이블이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잘 안되

미국은 대형 에이전시들이 제작하는 프로덕션의 지분을 몇 프로 이상 가질 수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을 두면 다양성이 파괴되는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규수 연예산업연구소장

면 자본 입장에서 또 독립군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아요.

이경준 저는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팝(K-POP)으로 묶으려는 시도 자체도 탐탁지 않고요. 2,000명이든 500명이든 음악의 완성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길들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서버레이블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든 기대되는 레이블은 어디일까요.

안정일 문화인은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회사가 합쳐져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에 투자자가 얼마큼 기여할 수 있었는지도 봐야겠죠.

이윤혁 저도 문화인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업계에서 활동하던 회사들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자받은 케이스잖아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규수 그동안 인디에 계셨던 분들이 좋은 환경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중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요. 하이그라운드에는 YG가 아티스트나 작곡가들의 의향을 믿어주고 자생하도록 해주는 분위기라서 재미있는 결과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경준 저도 어떤 의미에서든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많이 받은 좋은 음악을 내든 시너지를 내든,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지 회사나 신 자체가 붕괴되길 바라는 건 아니니까요. 로엔은 유통과 제작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구조인데, 잘될지 모르겠어요. 걱정은 되지만 열심히 해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2~3년 두고 보면 다른 애깃거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마침 어제 한 서버레이블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다. 솔직히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5년 뒤에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최영진

음악분수 연출가 이시재

물결을 춤추게, 관객을 즐겁게

공원이나 거리에서 시원하게 쏟아지는 분수를 만나면 그 물줄기의 움직임에 잠시나마 마음이 시원해지곤 한다. 즐거움을 더하는 것은 해가 저물고 음악과 조명이 분수에 함께할 때다. 리듬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물줄기를 뿜는 ‘음악 분수’.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작업하는 연출가다. 즐겁지만 조금은 고독한 일일 수도 있다.

음악분수 연출가가 되려면?

❶ 분수 설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도 분수 연출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분수대에 있는 모든 연출 시스템과 설비 그리고 전기 부분까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다. 분수 연출은 일반적으로 공사가 다 끝난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 혼자 남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작업 인력이 투입되기 어렵다. 빠른 조치를 통해 시간을 줄이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면 금상첨화다.

❷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다.

그러나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해야 하므로 고독함에 익숙해야 한다.



1

드디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내가 출근한 곳은 사무실이 아닌 분수대 공사 현장이다. 서울 인근의 현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몇 시간을 차로 가야 하는 곳이다. 분수대 현장이 여러 지역에 있다 보니 다양한 곳을 방문할 수 있는데 이는 참 재미있는 일이다.

출근하는 현장은 분수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있다. 이후부터는 분수를 연출하는 나의 손길이 필요하다. 나는 음악분수 연출가다. 음악에 따라 때로는 여러개 때로는 강렬하게, 화려하게 또는 슬프게 분수를 연출해 관객의 반응을 끌어내고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한다.

누군가는 연출하는 직업을 화려하거나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일단 여기는 공사 현장이다. 현장 대부분은 쇼룸에 전기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가동하기가 어렵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하실에서 CCTV 하나에 의지하거나, 별이 뜨거운 광장의 한 귀퉁이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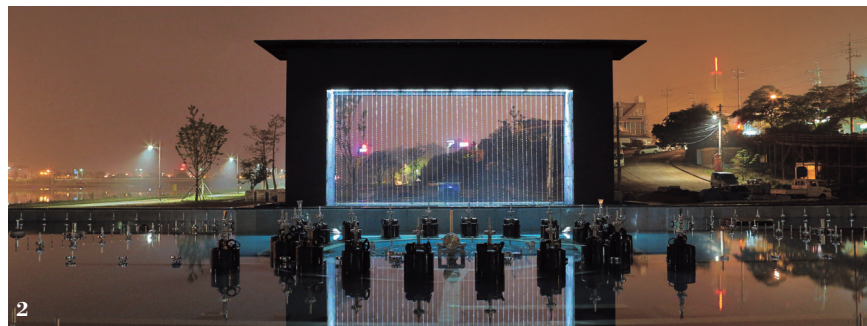
여러 개의 분수 아이টে으로 역동적인 움직임

연출의 시작은 분수대 현장을 구성하는 아이টে의 종류를 파악해 연출할 수 있는 물줄기의 형상을 머릿속에 구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대부분의 현장은 시공된 분수대 아이টে의 종류도 파악하기 전에 분수대 완료 시점이 먼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연출 작업에 주어지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분수 연출은 분수 아이টে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이টে이 많을수록 다양한 연출을 기대할 수 있다.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므로 적어도 5가지 이상의 아이টে를 가져야 연출하는 데 문제가 없고 연출력도 좋아진다. 분수의 아이টে는 물줄기의 형태, 배치와 움직임 형태, 물줄기 경사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수직으로 높이 솟아오르는 고사분수, 나무 형태의 트리분수, 물이 뿜어 나오는 힘에 의해 회전하면서 춤추는 발레분수, 여러 개의 물줄기가 넓게 펼쳐지는 섀플라워분수, 노즐을 다양한 방향으로 제어해 연출할 수 있는 멀티분수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아이টে 중 몇 개씩 조합해 하나의 음악분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확한 시간, 음악과 빛에 대한 감각도 중요

분수는 물을 밀어주는 펌프가 필요하고, 펌프에서 밀어주는 물이 배관을 따라 이동하면 아이টে 각각의 노즐을 통해 분출



되는 것이 기본인데, 분출되는 물줄기를 단속함으로써 연출력을 배가시키는 자동 밸브를 설치한다. 그리고 여기에 조명을 설치해 물줄기를 밝게 비춰준다.

연출 작업을 하기 전에 펌프, 밸브, 조명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분수 패턴을 묶음, 매크로 등의 방법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수 패턴을 음악의 적절한 부분에 적용함으로써 음악의 해당 부분에서 분수 패턴이 연출되도록 한다. 따라서 분수 패턴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분수의 속도와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아이টে를 동시에 연출하면 지지분해 보이고, 너무 적게 연출하면 전체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 있다.

한 가지 더 보탬 사항은 다양한 색의 조명이다. 조명은 분수를 더욱 화려하게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밤에 작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음악분수는 밤에 조명 연출 작업을 하고, 밤에 공연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듯 많은 조건을 고려하다 보니 집중력이 필요하고, 한 곡의 연출을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몇 곡의 연출이 완성된다면 20~30분 동안의 음악분수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 아무리 연출을 잘하고 이를 재생시킬 수 있도록 공연 준비를 했더라도 막상 공연이 진행되면 연출자는 항상 긴장의 연속이다. 그러나 공연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관객들이 즐거워하면 그것만으로도 긴장은 확 풀린다. 이렇게 비로소 지금의 현장에서 연출 작업이 완료되면 나는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다른 현장을 찾아가 새 작업을 시작한다. 음악분수 연출은 특수한 직업이다. 기계적인 원리와 제어 능력에 더해 음악과 빛에 대한 감각, 창의성을 발휘해 작업하고 이를 관객과 나눈다는 점에서 예술가의 영역을 공유한다. 아직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도전해볼 만하고, 현장 업무를 즐기는 이들에겐 매력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1 인천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2 영천 금호강 음악분수.

글·사진
이시재
플러스파운틴(주)
연구소 소속 분수 연출가



“하루 심은 말이 싹이 싹이 싹이었지만
내 허리는 안돼요. 춤으로 보여드리지.
자, 갑시다!”

-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희랍인 조르바〉 중에서

서울댄스프로젝트
‘게릴라춤판_흐르는 돌 안양유랑@광통교’

공연계에 만연한 임금 체불 문제

스태프는 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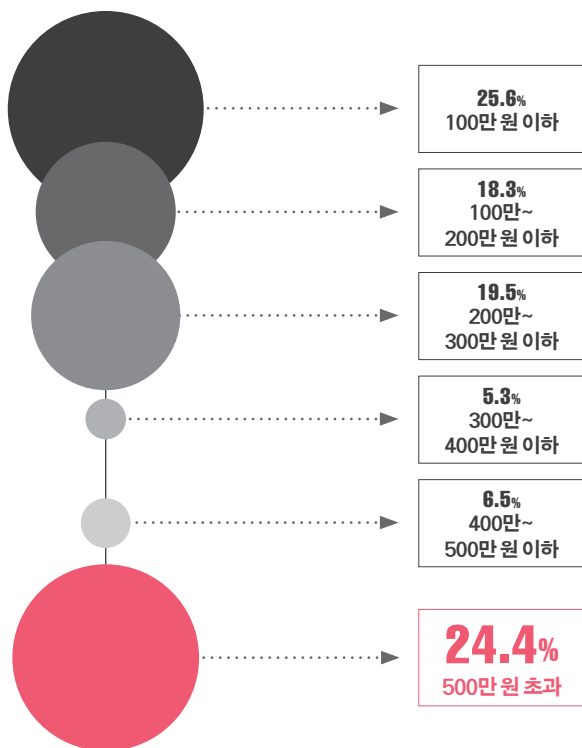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의 제작사 대표가 공연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연 스태프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SNS에서 퍼져 논란이 되었다. 제작사 대표는 해명에 나섰지만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임금을 포기한 스태프가 더 많은 상황이다.

국내 공연계에서 출연료 미지급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된 지 오래다.

“공연 끝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저를 포함한 진행팀 전원이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1원도 주지 않은 대표는 ‘지방 공연이 끝나면 주겠다’ ‘연말 지나고 주겠다’ 하루하루 미루다 끝내는 ‘노동청에 고소한 걸 취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라고 하며 페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신고된 임금 등 미지급 사건(246건)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6)



지난 8월 18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공연 스태프의 고발은 삽시간에 퍼지며 화제로 떠올랐다. 논란이 된 작품은 고두심, 이종원, 이유리, 안재모, 김영옥 등 TV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 제작사 대표는 지난해 같은 공연에 출연한 스태프 수십 명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배우와 연주자도 출연료를 다 받지 못했다.

구설에 오른 정철 스토리팜 대표는 “형편이 어려워서 임금 지급을 미뤘지만, 이번 공연에서 수익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스북에 글을 쓴 위 스태프가 소속됐던 무대 크루 10여 명의 밀린 임금 1,000여만 원을 갚았을 뿐이다.

보도 이후 임금과 출연료를 받지 못한 배우와 스태프들은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지만 한 달이 넘는 시위에도 달라진 것이라고는 피해자 상당수가 희망을 접었다는 사실뿐이다. 지난해 이 작품에서 조연출을 맡았던 오택상 씨는 “임금, 출연료를 못 받은 사람이 30~40명인데, 기사가 나간 후 대표 태도를 보고는 이제 다들 잊으려고 한다.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사람은 4~5명”이라고 말했다.

대학로 5년차라면 누구나 경험

사실 국내 공연계에서 임금 출연료 미지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읍니다>는 다만 TV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상업 공연에서 임금체불 사태가 벌어져 수면으로 떠올랐을 뿐이다. “메르스 여파로 관객이 적었다”는 대표의 말과 달리 “매 공연 80% 이상 객석이 찼던 작품”(조연출 오택상)이고, 그래서 재공연에 또다시 호화 캐스팅을 했고, 이걸 돈 떼먹은 스태프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대규모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이 소식을 ‘기사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줄줄이 언론사에 제보하며 일반에 알려졌다.

연출 15년차인 오씨는 “대학로에서 임금체불은 종종 있는 일”이라며 “15년 전부터 못 받은 경험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저도 <…읍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분야에서 일하면 무조건 떼인 임금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겠는데 예술 장르라 돈 얘기 자꾸 꺼내기가 민망하다”는 게 이유다.

“대기업이 투자하는 대형 뮤지컬 아니면 이런 위험은 언제나 산적해 있죠. 작품 10편 중 7편의 임금을 미뤄서 받았던 거 같아요. 받더라도 100만 원에 계약했는데 흥행이 안 돼서 50만 원을 받는 경우도 많죠.” 오씨는 “대학로 극장에서 5년 이상 일한 배우, 제작진 중 임금을 미뤄 받거나 떼인 경험이 없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행위 신고 규정이 신설된 2014년 이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불공정행위 283건 중 92.2%에 해당하는 261건이 ‘임금 등 미지급’이었다. 261건의 ‘임금 등 미지급’ 사건 중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15건을 제외한 246건을 살펴보니 25.6%가 100만 원 이하 금액을 미지급했다. 100만~200만 원 이하는 18.3%, 200만~300만 원 이하는 19.5%, 300만~400만 원 이하는 5.3%, 400만~500만 원 이하는 6.5%, 500만 원 초과도 24.4%나 됐다.

만연한 구두계약·열정페이 문제 풀어야

제작 관행상 구두계약이 빈번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로 신고된 261건 중 절반이 넘는 151건(57.9%)이 계약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정대경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은 “공연판 자체가 선후배, 동료가 제작하고 출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약서 쓰는 게 튀는 행동처럼

보였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보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인들에게 ‘경험 쌓는 기회’라며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분위기도 이유로 꼽힌다. 지난 8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인 패스를 발급받은 연극 분야 종사자 5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경력을 쌓기 위해 돈 한 톨 안 받고 일한다”는 ‘자발적 무급’이 12.3%나 됐다.

이런 연극인들의 임금 출연료 체불이 발생하면 어느 조합이 나서서 해결할까. 정답은 ‘한국에는 없다’는 것이다. 정대경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연극협회가 유니온 형태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임금체불 문제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곳이 없다. 그나마 최근 정부가 모든 공연 지원사업에 표준계약서 조항을 강제한 게 전부”라며 “계약서를 썼더라도 막상 체불이 되면 중재할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지키지 않으면 제작자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해결을 위해서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됐는데 구체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요. 재단에 권한이 강화된다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지난해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
제작에 참여했다
임금이 체불된 스태프의
일인 시위 장면.
8월 대학로에서 일인
시위를 벌인 이들은
거듭된 요구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 공연 중인
극장 용 연습실에서
시위하고 있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2
올해 재공연을 진행하는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
포스터.

글
이윤주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사진 제공
PRM
(〈불효자는 읍니다〉
포스터)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이해

라. 운영학교

- '예술강사' 지원은 매년 시행되는 모집공고에 의한 선정절차에 따라 접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국악운영단체 등 운영기관과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접수한 내용을 검토하여 학교별 시수/분야/교육과정을 선정
- 선정된 학교는 확정된 시수, 교육과정 등에 따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예술강사의 지원을 받아 수업 운영

마. 지원시수, 지원분야 및 교과

- 지원시수 : 학교당 연간 60시수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630시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분야
- 지원교과 :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학교 돌봄동아리

바. 예술강사 자격

- 예술강사는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자에 한하여 서류·면접(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며, 연 2회 예술강사 연수(상·하반기)를 통해 효과적인 교수법, 학습자 이해, 각 전공별 전문교육 등 재교육을 받고 있음

서울문화재단

고용 불안 심화하는 예술강사 제도 변경

예술강사,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예술강사 제도는 공교육에서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술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강사 평가가 고용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 10년째 강사료가 동결된 점 등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최근에는 학교가 강사의 고용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환될 움직임이 보여 예술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도를 받아들이기에 예술강사들은 더 물러설 곳이 보이지 않는다.

을 잡아주세요. 아이들이 기진맥진하면서도 행복한 얼굴로 '드디어 탈고했어요' 라면서 대본을 들고 달려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연극을 떠나지 않고도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웃던 성씨가 한숨을 지으며 덧붙였다. "내년에 대한 불안만 없다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진흥원)이 당장 내년부터 '예술강사 제도'를 크게 바꾼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예술강사들이 수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것을 보고 학교 교사들이 직접 예술강사를 선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와 계약을 모두 해지한 뒤, 원점에서 다시 계약을 맺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지난 10여 년 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뒤늦게 통보되는 일이 흔했지만, 이번 변화는 심상치 않았다.

"여러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제가 선택한 길이니깐 연극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성석주(50) 씨는 23년차 베테랑 연극배우다. 2004년부터는 학교와 복지관 등에서 학생과 어르신들을 상대로 연극을 가르치는 '예술강사'일을 병행해왔다. "세 아이까지 다섯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생계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12년 동안 학생들을 만나며 행복한 순간이 많았다. "젊은 시절 배우가 되고 싶었다는 복지관 어르신들이 공연을 마치고 내려와 '꿈을 이뤘다'며 손

학교가 예술강사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전환, 무엇을 의미하나

예술강사 제도는 현장 예술인을 학교나 복지관에 파견해 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5,047명의 예술강사가 학교 8,776곳과 550여 개 복지관에서 활동하며 국악, 무용, 연극, 영화, 공예, 사진,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등 8개 분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강사의 계약은 1년 단위인데 방학 때는 임금을 받지 않으니 실제 계약기간은 8개월 보름 정도가 된다.

자조를 섞어 서로를 '8개월 목숨'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재계약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 진흥원의 예술강사 풀에 한번 들어간 이들은 간단한 심사만 거쳐 다시 예술강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자신의 예술 분야에 따라 원하는 학교를 살펴보고, 선택해 지원했다.(이상 2016년 기준)

예술인, 교사, 무엇보다 노동자인 예술강사들은 지난 8월 16일 서울 상암동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예술강사 지침 변경에 거세게 반발하며 보름 동안 노동농성에 나섰다. 예술강사의 장기농성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시민 서명을 받고 촛불집회도 벌였다.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까지 나오게 했나?

학교가 직접 예술강사를 선택하는 제도로의 개편은 예술강사의 고용이 전적으로 '학교 교사의 선택에 달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진흥원과 문체부 등은 "학교들이 상황에 맞게 예술강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학교 현장에서 일선 교사들이 예술강사를 심사하고 선택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치르기보다는 예술강사의 수업 자체를 없애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예술강사 노조) 쪽은 맞섰다. 교사 마음먹기에 따라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학교(교사) 눈치보기'가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있다. "학교와 예술인이 협력해 예술교육을 해나간다는 취지는 훼손되고, 학교가 원하는 성과 위주의 교육만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도 대회 수상 성적만을 압박하는 학교가 많다. 이런 경향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김광중 예술강사 노조위원장의 말이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와 원점에서 다시 계약을 맺는다'는 이야기는 수년씩 학교와 복지관 현장을 누비며 예술강사들이 품고 살아온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더 많은 예술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이지만, 예술강사들은 "1년짜리 불안한 일자리를 서로 돌려 갖는 식의 일자리 창출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10년째 임금 동결,

주관적 평가와 고용 불안 심화되는 예술강사들

문체부와 진흥원은 9월 말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내년 예술강사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예술강사들의 반대를 고려해 전체적으로 올해와 같은 틀을 유지하되, 일부 예술강사에 대해서만 학교선택권 강화 등의 새 지침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예술강사도 원점에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도 잠시



보류했다.

"한숨 돌렸지만 언제까지 이 상태로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깐요." 김광중 위원장은 한발 물러선 문체부와 진흥원의 태도에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고용 불안과 저임금은 예술강사 제도가 시작된 10여 년 동안 지속된 화두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예술강사들의 입지는 좁아졌다. 예술강사 평가 제도가 대표적이다. 예술강사의 점수를 매기는 평가 제도는 2010년 이후 매년 다른 기준으로 바뀌어왔는데, 그때마다 예술강사들은 마음을 졸였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이듬해 지원 때 후순위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외부 심사위원) 현장 방문만을 통해 예술강사를 평가하던 제도에 2010년부터 교사 평가, 학생 평가 등이 들어왔고 비중이 늘더니, 2013년부터 아예 외부 심사위원의 평가가 사라졌다. 객관적인 제3자의 평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은 현장에서 문제를 낳았다. 예술강사가 학교 교사의 개인적인 책상 정리, 짐 정리를 떠맡거나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예술교육에 동원되는 일이 폭로됐다. '좋은 평가 점수가 일자리와 직결돼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임금 수준도 후퇴했다. 예술강사들의 시간당 강사료는 4만원으로 10년째 같다. 그나마도 한 해 예술강사가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 한때 400여 시간에서 374시간이 됐다. 강의시간 삭감은 '강의한 만큼만 돈을 받는' 예술강사들에게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예술강사들의 한 해 수입은 2016년 평균 1,200만원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연봉 1,200만 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술강사들은 거리로 나왔다. "아이들이 선생님 내년에도 볼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 일이 없으면 저는 제 연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숨을 내쉬는 성석주 씨는 올해 연극과 정부지원금으로 400만 원 남짓을 벌었다. 연봉 1,200만 원 예술강사 일자리는 그가 가족과 연극을 지키기 위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한계선이다.

글
방준호
한겨레 기자

사진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서울예술인플랜' 발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몇 년 사이 예술인들이 생계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소식이 몇 차례 보도됐다. 이를 계기로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가 수면으로 떠올랐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와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예술인플랜'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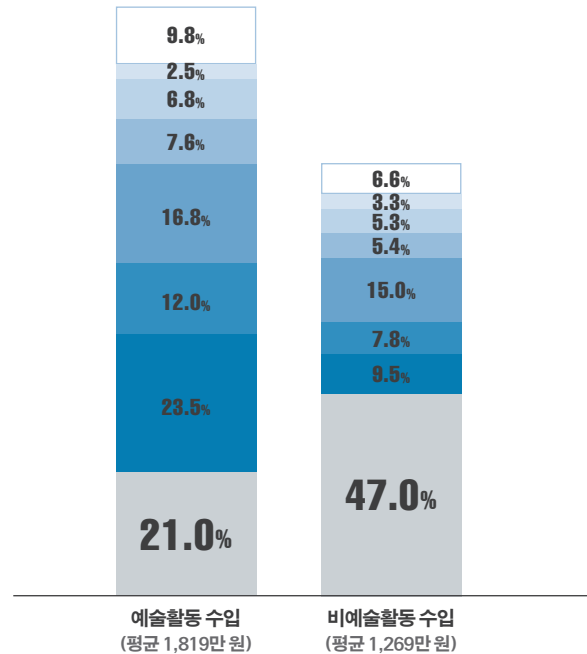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네덜란드의 경제학자이자 시각예술가인 한스 애빙(Hans Abbing)이 쓴 책의 제목처럼 '가난'은 예술가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다. 가난한 예술가들은 창작 활동에 대한 꿈과 예술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든 현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에서 예술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예술인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이런 예술가들의 열악한 삶과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섰다. 예술인들이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창작활동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주거·창작공간부터 일자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예술인플랜'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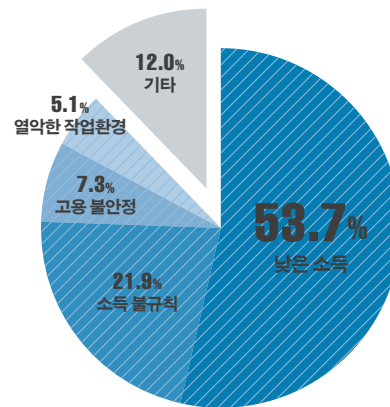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5 예술인 실태조사'(2016. 3)에 따르면 국내 예술인 13만 명 중 38%인 5만여 명이 서울에 살고 있다. 대중음악, 연극, 영화, 방송 분야는 50% 이상이 산다. 그렇다고 서울이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인 것은 아니다.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타 지역보다 많지만(49.3%), 타 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많이 들고(43%), 예술가가 많은 만큼 예술지원사업 공모 시 경쟁이 치열(37.7%)하다(서울연구원 '서울 예술인 실태조사', 2015). 일본 모리기념재단 산하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경쟁력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GPCI) 중 '예술가' 항목은 세계 40개 도시 중 35위다. 서울의 종합 순위가 6위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순위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 사는 예술가들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평균 1,819만 원으로 조

서울시 예술인 연평균 소득

■ 없음 ■ 100만~500만 원 미만 ■ 500만~1,000만 원 미만
■ 1,000만~2,000만 원 미만 ■ 2,000만~3,000만 원 미만 ■ 3,000만~4,000만 원 미만
■ 4,000만~5,000만 원 미만 ■ 5,000만 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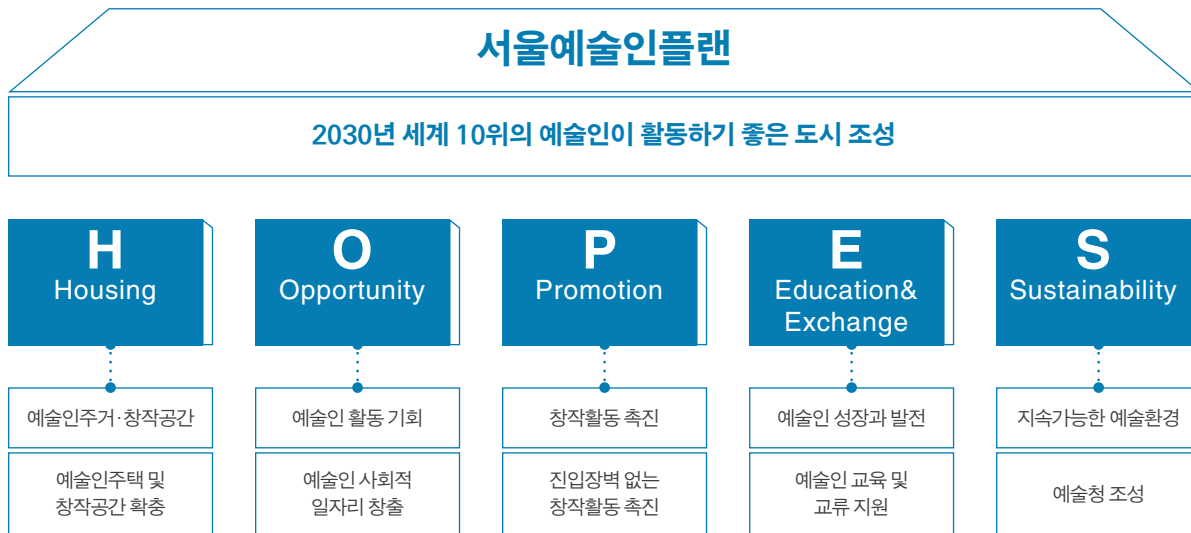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사되었지만, 소득구간별로는 500만 원 미만이 23.5%로 가장 많고, 소득이 아예 없는 예술인도 21.0%에 달한다. 고(故) 최은작가, 김운하 배우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예술인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 8월



TFT를 구성한 이후 1년여간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과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17일 ‘서울예술인플랜’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예술인플랜’을 통해 5대 희망의 제와 43개 지원사업(신규 30개, 기존 13개)을 2020년까지 추진한다. 5대 희망(HOPES)의제는 Housing(예술인주거·창작공간), Opportunity(예술인 활동기회), Promotion(장애 없는 창작활동 촉진), Education&Exchange(예술인 성장과 발전), Sustainability(지속가능한 예술환경)이다.

Housing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우선, 타 도시에 비해 집값이 비싼 서울에 사는 예술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예술인협동조합형의 막쿵(M.A.Coop, Mallidong Artists Cooperative) 29호(중구 만리재로 27길, 사진 1), 연극인맞춤형임대주택 11호(성북구 삼선동2가 77번지), 민간임대형식의 ‘배우의집’ 10호(성북구 삼선교로 18가길 4) 등 총 50호가 공급된 상태다. 앞으로 2020년까지 다가구, 원룸을 매입해 중저로, 정릉 등 예술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조성하고, 창작복합형, 주거전용형, 협동조합형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1,000호의 주거공간을 추가로 공급하고자 한다. 특히 입주 예술인들의 활동이 지역 활성화와 주민들의 예술 향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역과 재개발지역을 위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창작공간도 확충한다. 예술인이 운영하는 민간 공동 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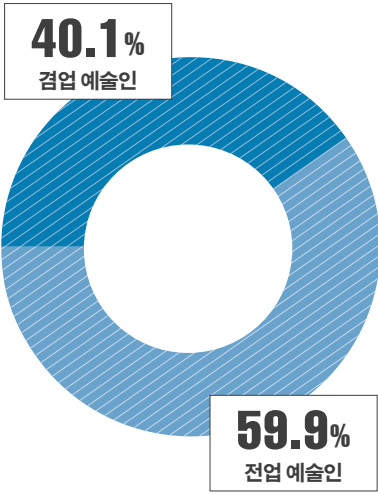
공간 300개소에 최대 6개월간 1,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공유형 창작공간을 조성할 경우 자치구당 1개소씩 총 25개소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문래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등 서울시 창작공간 11개소 중 약 30%는 모든 예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한다.

서울시의 오래된 아파트들도 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시킨다. 입주민의 이주가 진행 중인 서울시 소유의 회현 제2시민

1 최초의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막쿵.

예술 분야 종사 유형 및 고용형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아파트(350가구)와 기부채납이 예정된 창신동의 동대문아파트(134가구)는 구조 보강과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장기 임대하는 복합창작 공간 '예술촌'(가칭)으로 조성한다.

Opportunity 예술인 활동기회

'2015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예술인 10명 중 4명(40.1%)은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수입 탓에 겸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0.3%)은 예술활동과는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85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하고 있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외에 공공예술해설사, 거리예술단 등 공공영역에서 예술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

자리를 만든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미술 600개, 거리 예술·축제 7,000개, 예술교육 6,000개, 예술치유 500개, 생활 예술 200개, 공공참여 1,000개 등 1만 5,000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도입된 표준계약서는 2016년부터 일부 공공 분야에서 의무화되었으나 아직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예술인의 13.4%만 표준계약을 체결한 경험에 있을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예술계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사업, 2018년까지는 공공분야 민간사업 참여자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2017년에는 연구를 거쳐 분야별로 경력단계와 활동유형 등에 따른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서울형 예술인 표준 보수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2, 3, 4

서울문화재단은 올해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는 '최초예술지원'을 마련했다. 사진(2, 3)은 지난 6월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진행된 '2016 서울문화재단 비기너스 프로젝트' 자유발표 장면.

Promotion 장애 없는 창작활동 촉진

서울에는 활동경력 10년 미만의 예술인이 34.2%로 가장 많지만 지원사업은 경력 예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시에서는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경력을 쌓아 지원 대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다리를 놓아준다는 계획이다.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신진 예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6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시작한 '최초예술지원'사



업은 올해 50건에서 내년에는 10배 규모인 500건, 2020년에는 1,000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 35세 미만 청년예술인과 예술 대학 졸업 후 활동 경력이 3년 이내인 예술인으로 유형을 나누어 지원한다.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창작 지원금뿐만 아니라 전문가 멘토링, 홍보·마케팅, 작품 발표 기회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예술 작품 발표와 판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2020년

까지 연극창작지원시설, 사진미술관, 서울아레나, 서울공예박물관 등 예술 장르별로 특화된 공공문화예술시설 13개소를 건립한다. 판로 개척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생활예술시장과 민간 아트페어를 지원하고, 시·구청 로비 등 공공 공간과 온라인을 활용한 ‘Art Wall’도 조성한다. 청년·신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발표하는 ‘영아티스트 페스티벌’도 장르별 페스티벌(연 4회), 통합 페스티벌(연 2회) 형식으로 열어 아티스트는 경력을 쌓고 시민들은 새로운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

Education&Exchange 예술인 성장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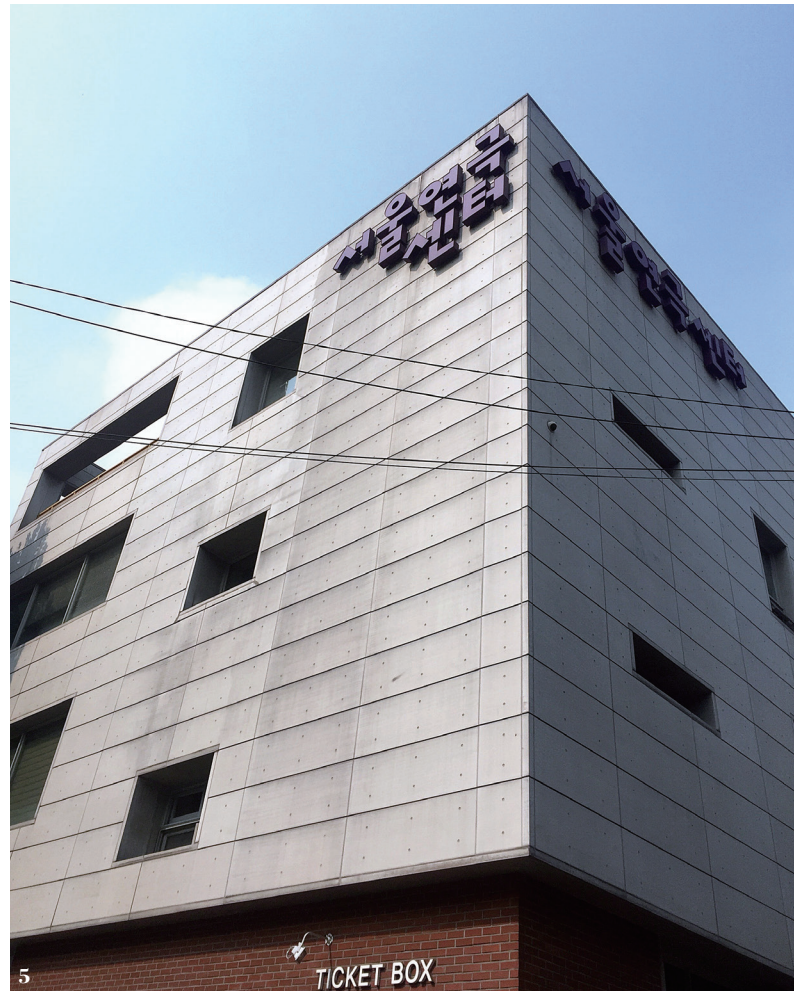
예술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예술인 대상의 교육과 해외 교류 기회도 확대한다. 지원사업 정보뿐 아니라 사회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창작공간, 주거공간, 공공사업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술인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근로계약 체결 등의 권리교육과 직업역량 강화,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300명 이상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0+100 예술인 해외교류 지원’은 매년 100명 이상의 예술가에게 1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52개 자매·우호도시들과의 국제교류사업, 해외 문화예술기관과의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해외 예술인이 일정 기간 서울에 머물면서 시 또는 국내 작가와 협업하는 예술인 국제교류 프로젝트 ‘Air Seoul’을 통해서도 매년 50명을 지원한다.

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예술환경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교류할 수 있는 ‘예술청’ 조성은 ‘서울예술인플랜’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예술청’은 현재 대학로 서울연극센터 자리에 약 4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500m² 규모로 들어서며, 정보자료실, 가변형 작품 발표 공간, 상담센터,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등이 갖춰진다. 서울연극센터는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검토 중이다. 예술청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창작공간과 예술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예술지원사업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및 노동권리 관련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인 종합지원센터’ 역할도 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예술인복지증진조례’ 등 문화예술 분야 통합조례를 2017년 제정해 ‘서울예술인플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



인들의 창작과 생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

‘서울예술인플랜’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년간 15조 3,2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간 720억 5,000만 원, 일자리 511억 200만 원, 창작 231억 7,300만 원, 교육 26억 500만 원, 기반 43억 2100만 원으로 예술인 주택과 창작공간 조성(47%)의 비중이 가장 높다. 내년 예산은 총 334억 71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75억 800만 원이 증액됐다.

예술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종합지원계획인 ‘서울예술인플랜’을 통해 예술인이 많이 살고 있지만 살기 힘들었던 도시에서, 예술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5 예술인 교류의 허브 역할을 할 ‘예술청’은 대학로 서울연극센터 자리에 들어설 예정이다.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이번 호에서는 나무와 숲 등의 자연을 작가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또 다른 자연 풍경을 낳은 최수인 작가의 <구름을 탐하자>와, 수심이 깊어 보이는 물(바다) 한가운데에 고요하게 솟아 있는 사람의 뒷모습을 그리며 눈에 익숙한 일출 장면을 낯선 감각으로 뒤튼 이수진 작가의 <Still Water>를 소개한다.



최수인

구름을 탐하자

캔버스에 오일

63×73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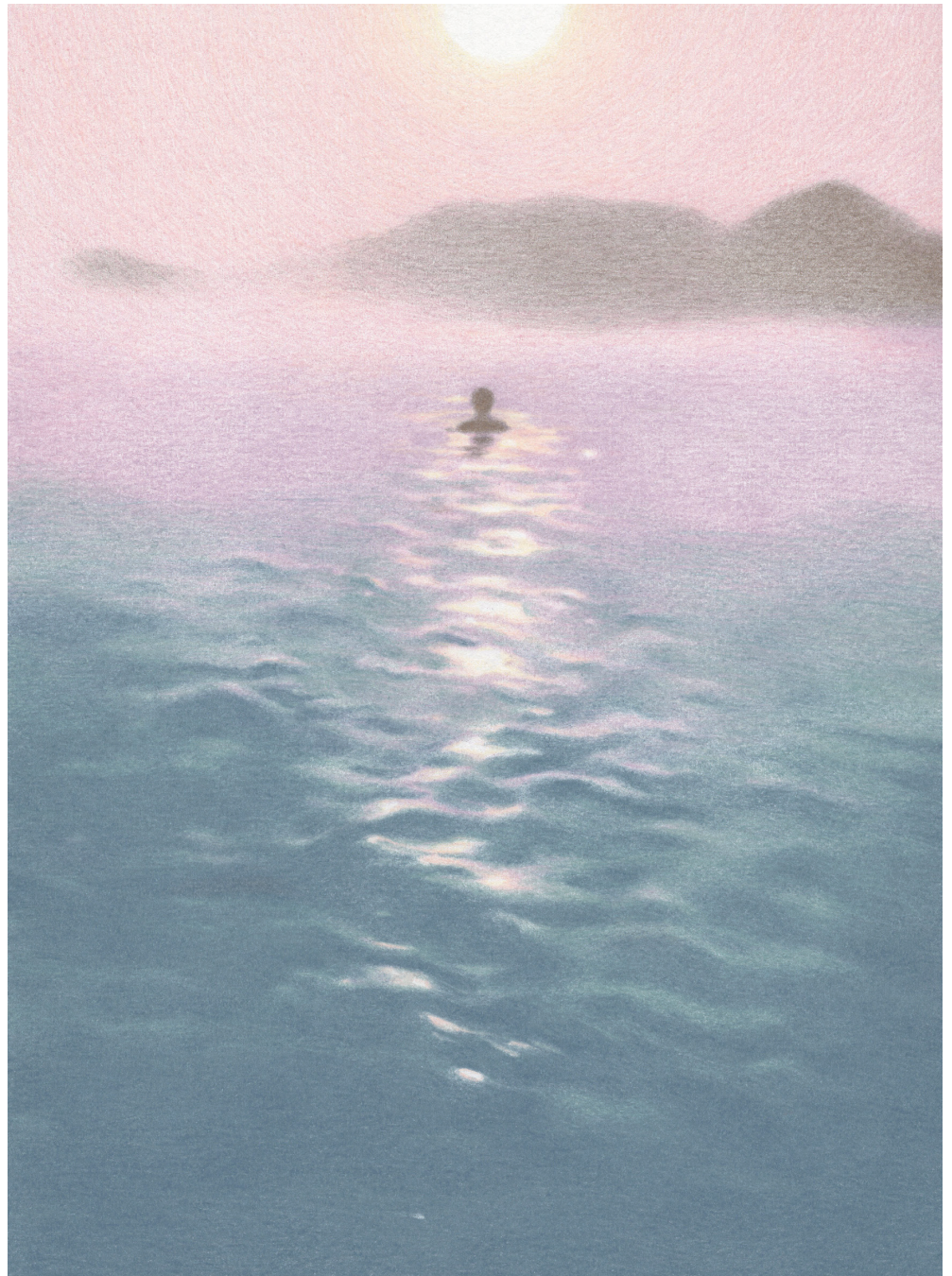
300만 원

‘바람난 미술’ 사용법

- 나는 시민입니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기업입니다. 작품을 구매 혹은 대여해서 우리 회사의 예술지수를 높이고 싶습니다.
- 나는 작가입니다. 내 작품이 시민과 만나면 좋겠습니다. 대여와 판매의 길도 찾고 있습니다.
- 바람난 미술 전체 작품을 보려면? 바람난 미술 온라인 아트 갤러리를 방문해 보세요.

www.sfac.or.kr/artsgallery

* 문의 02-3290-7140(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이수진

Still Water

종이에 색연필

25.7×18.2cm

2016

50만 원



문학에 관한 다양한 변주곡 〈연희극장〉

삶의 고민을 보듬는 문학의 시간

연희문학창작촌에서는 일반인이 문학과 작가를 편하고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은 영화 감상과 낭독공연이 함께하는 〈연희극장〉이 진행됐다. 두 편의 영화, 두 번의 낭독공연, 그리고 작가와의 대화가 가을 초입의 차분한 기운과 어우러진 시간이었다.

참 어렵죠, 시를 쓴다는 게

“어떻게 하면 시를 쓸 수 있어요?” 영화 〈시〉의 주인공 미자(윤정희 역)는 극중 시인으로 등장한 김용택 시인에게 이렇게 묻는다. 글을 쓰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연희극장〉의 첫 문을 연 영화 〈시〉(이창동 감독)는 평범한 60대 여주인공의 험난한 삶 속에 문득 스쳐간 ‘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시를 통해 경험하는 새롭고 낯선 감정은 주인공 미자의 현실 속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힘이 된다.

영화 시작 전에 마련된 ‘작가와의 대화’ 시간엔 세 명의 시인이 무대에 올랐다. 등단 18년차 경력의 시인이자 평론, 에세이 등 다양한 글쓰기 작업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행숙 시인과 작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하며 이제 막 시인으로서는 첫발을 내디딘 홍지호 시인이 초대작가로, 또 이우성 시인이 사회자로 나와 ‘시 혹은 시인의 처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보다 높지 않다

〈연희극장〉 두 번째 시간에는 소설가 한창훈의 신작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를 낭독공연(극단 동네풍경)으로 선보였다.



연희문학창작촌 <2016연희극장> 프로그램

작가와 대화	작품	날짜	장소
<참 어렵조, 시를 쓴다는게> 초대작가: 김행숙(시인), 홍지호(시인) 사회: 이우성(시인)	영화 <시> (이창동 감독·각본)	9. 2(금) 19:00~22:00	연희문학창작촌 야외극장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 초대작가: 한창훈(소설가), 안도현(시인) 사회: 이우성(시인)	낭독공연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한창훈) (극단 동네풍경)	9. 10(토) 14:00~16:00	시민청 활짝라운지
<소수의견> 초대작가: 손아람(소설가), 이해성(극작가, 연출가) 사회: 이우성(시인)	영화 <소수의견> (김성제 감독·손아람 원작)	9. 23(금) 19:00~22:00	연희문학창작촌 야외극장
<코케인> 초대작가: 진연주(소설가) 사회: 이우성(시인)	낭독공연 <코케인> (진연주) (극단 종이로 만든배)	9. 30(금) 19:00~21:00	연희문학창작촌 야외극장



소설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보다 높지 않다'라는 단 한 줄의 법조문만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대서양 남쪽에 실재하는 '트리스탄 다 쿠냐' 섬과 그 섬 사람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낭독공연은 여섯 명의 배우와 한 명의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 진행했는데, 특히 이번 공연은 <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진행돼 보다 많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낭독공연이 끝나고 마련된 '작가와 대화' 시간에는 한창훈 소설가와 안도현 시인이 초대작가로 나왔다. 한창훈 작가는 "작가들 특유의 문장, 호흡, 길이 등을 다 무시하고 마지막 체로 거르고 걸러 최후의 서사를 유지할 수 있는 언어만 남기고 썼다"며, 여러 번 몸살을 앓았을 정도로 가장 쓰기 어려웠던 글로 이 소설을 꼽았다. 또 "선배 세대들이 우리에게 미안해했듯이, 지금 세대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 소설을 쓰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덕목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소설 <행복이라는...>의 추천사를 쓰기도 한 안도현 시인은 "삶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상당 부분 이 책에 있다"며 특히 고민이 많은 중고등 학생에게 이 책을 권했다.

문학에 관한, 혹은 문학에서 비롯된 4개의 작품

추석 연휴, 잠시 숨을 고르고 <연희극장>은 계속됐다. 100원짜리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다룬 영화 <소수의견>을 보며 원작자인 손아람 소설가, 이해성 연출가와 우리 사회의 소수의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감각과 이미지와 우연만으로 서사를 이룬 소설 <코케인>을 낭독공연으로 감상하며 원작자인 진연주 소설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연희극장>의 전 일정 사회를 맡은 이우성 시인은 때론 이야기를 이끌고, 때론 고민을 털어 놓기도 하며 '작가와 대화'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었다.

<연희극장>은 시민들이 문학작품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문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문학은 문화 콘텐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르지만, 때론 그런 이유로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결과물을 발표하는 다른 장르와 달리, 문학은 그저 한 권의 책으로 사람들과 만날 뿐이다. <연희극장>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문학에 관심을 갖고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엔 좀 더 새롭고 풍성한 '문학에 관한 변주곡'을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1
지난 9월 2일 저녁 연희문학창작촌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첫 번째 <연희극장>. 이우성(왼쪽 끝) 시인의 사회로 김행숙(가운데)·홍지호 시인과 '작가와 대화'를 가졌다.

2
9월 10일 시민청에서 진행된 <연희극장> 두 번째 시간에는 한창훈 소설가와 안도현 시인이 초대된 한 작가의 신작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글
이정연
연희문학창작촌 매니저

사진
서울문화재단

음악과 사진과 사람의 아지트 '조광사진관'

음악팬, 영화광, 사진 포비아 모두 '사진관'에서 만나요

충무로역과 명동역 사이 '충무로2가' 지역에는 카메라상과 작은 인쇄소가 꽤 많이 동지를 틀고 있다. 조광사진관 자립본부는 2013년 이곳에 자리 잡은 사진관이다. 물론 그냥 사진관은 아니다.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이곳의 주인장은 가능성을 열어줬다. 다양한 협업 속에서 그는 '사진'으로 통하는 길을 찾고 재미있는 일을 계속 벌이고자 한다.

스튜디오에서 의자에 앉아 조명을 받으며 사진을 찍는 일. 일반 인에게는 이처럼 어색한 일도 없다. 증명사진 촬영이 아니면 좀처럼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에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막상 '찍히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다. 이런 어색함을 덜어내기 위해 지난 9월에 '사진포비아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무려 4회째를 맞이한 심포지엄의 부제는 '핸드폰에 셀카는 오백 장인데 사진기 앞에 서면 얼어붙는 당신을 위해'. 행사가 열린 곳은 충무로2가에 위치한 조광사진관 자립본부, 강사 중 한 사람은 이 사진관의 주인장인 박정근 사진가였다.

음악 공연, 영화 상영, 워크숍이 있는 사진관

조광사진관 자립본부(조광사진관)는 여러 종류의 촬영 작업이 진행되는 스튜디오이자 이런 흥미로운 이벤트를 종종 개최하는 '사진관'이다. 그냥 사진관만은 아니다. 뒤에 붙은 '자립본부'라는 이름이 성격을 일부 설명한다. 단편선과 선원들, 김사월×김해원 등 뮤지션의 음반을 다수 제작한 음악생활협동조합 '자립음악생산조합'(자립)과 공간을 나눠 쓰고 있어 주말에는 공연으로 지하가 들썩이기도 하고 자립에서 여는 음악 관련 행사와 워크숍 등이 이곳에서 진행된다. 공간의 문을 열면 좌측으로는 드럼 세트 등 악기가 세팅된 공간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흰 배경지와 카메라, 조명이 설치된 공간이 보인다. 충무로에서 사이 좋은 동거를 해온 지 3년이 다 됐다.

박정근 사진가는 암사동에서 부모님 때부터 운영해온 조광사진관을 2013년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네를 떠나게 돼 이곳저곳 발품을 팔던 중 지금의 자리를 찾았는데, 혼자 쓰기엔 꽤 넓은 공간이었기에 마침 공연장이나 사무 공간이 필요하던 자립과 공간을 공유하게 되었다. 음악가를 사진에 담아보고 싶던 그에게 좋은 계기가 됐고, 지금도 뮤지션의 앨범 재킷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활동으로부터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을 많이 만들어가고자 한다. 작은 규모의 출력 공장, 오래된 카메라상이 많이 분포돼 있는 충무로는 주말에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가 많아 주말을 이용해(소음이 우려될 법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공간의 일반 대관도 하고 촬영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촬영 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하기도 한다.

"공간을 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영상 찍는 분들께 저렴한 가격에 빌려드리기도 하고 문화예술 쪽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이나 워크숍 공간으로 대관하는 경우도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작년에 한 <시네마지옥>이란 행사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B급 영화를 상영했는데 50명 정도 관객이 오셔서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가셨어요. 한국에서 상영되지 않은 작품들도 있었는데 반응이 좋았죠.”

‘사진포비아’를 위한 심포지엄’과 같이 본업인 사진에 초점을 둔 활동도 반응이 꽤 좋은 편이다. 플러스사이즈 모델 김지영과 김민석 사진가가 강사로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찍히는 입장과 찍는 입장 모두 만족할 만한 사진 찍기 노하우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수강 전·후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데이터를 모두 제공한다. 박정국 사진가는 사람들이 사진과 친해지길 바라며 반향이 맞는

외부강의나 프로젝트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다양한 장르와 사람의 협업으로 ‘오래 갈’ 아지트

조광사지관이 위치한 충무로2가는 명동역과 충무로역

사이 지역이다. 을지로3가와도 가까운데, 이쪽에서 을지로 및 청계천 방향으로, 멀리는 익선동까지 이르는 지역에 몇 년 사이 젊은 예술가의 작업실과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동네 서점 등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작업실과 카페·바를 겸한 공간 중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등 소위 ‘뜨다’는 공간도 여럿 있다. 홍대 앞과 종로, 이태원 등 변화가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건물은 다소 낡았지만 임차료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싼 편이어서 개인작업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사실 이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 운영하며 어려운 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교류가 많지 않다는 점’이 답으로 돌아온 것은 의외였다.

“이 동네가 제가 하는 분야와 달라서 분리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동네 작업실이나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자주 만나게 되진 않아요.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하시는 분들은 협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느껴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근처 명동역 일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탓에 충무로 쪽까지 호텔과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면서 충무로 일대는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작업자들이 들어오는 흐름만큼, 어느 곳은 세가 오르고 누군가는 밀려나기도 한다. 그런 흐름을 박정근 사진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람들과 계속 접점을 만들어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오래가기 때문”이다. 그는 이곳에서 “합이 맞는 사람들과 오래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명함의 약도에 ‘김한웅 사진 연구소’를 표기하며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을 나름의 방식으로 지키기도 한다. 조광사진관에 원래 자리한 사진과 음악 외에도 관심사 다양한 사람들이 편하게 모여 이야기 나누고 그사이에 재미있는 일을 도모하며 협업을 이루는 ‘아지트’가 되길, 자신 역시 우연찮게 길을 찾아왔던 한 사진가는 바라고 있다.

“원래 혼자 조용히 작업하려고 했는데 사람들과 이것저것 하는 게 재미있고 잘 맞더라고요(웃음). 장기적으로는 공연과 사진 외에 다른 식으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연극 포스터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촬영을 위해 모인 배우들이 ‘여기서 재미 있는 걸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작업을 더 해보고 싶어요. 음악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안 듣는 장르로 가고요.” ^{1990년}

- 1
조광사진관 자립본부
입구에 선 박정근
사진가(오른쪽).
- 2
조광사진관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이는 공간.
주말에는 자립의 공연이
진행된다.
- 3
조광사진관
입구(문)에서 보이는
'사진관' 공간 풍경.

글
이아림

사진 제공
조광사진관 자립본부
www.facebook.
com/jokwangst

뮤지컬 <그날들>과 <도리안 그레이>

창작 뮤지컬, 그 가능성

1996년, 우리나라 최초 브로드웨이 진출작 <명성황후>가 초연된 해.

그 후로 어언 20년이 흘렀다. 창작 뮤지컬에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된다.

이제는 우리도 브로드웨이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올해 유난히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 많이 올랐다. 그중 우리나라 뮤지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두 작품이 여기 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우리의 감성을 노래하는 <그날들>과 가보지 않은 어려운 길을 용감하게 택한 <도리안 그레이>다.

김광석의 음악을 충실히 살린 추리극

<그날들>, 8. 25~11. 3,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그날들>은 영원한 가객 고(故) 김광석의 명곡들을 엮어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뮤지컬이 연극, 영화와 대비되는 가장 뚜렷한 장르적 특성은 '음악'이다. 뮤지컬은 결국 사람들에게 뮤지컬 넘버로 기억되기 마련. 제목의 <그날들>을 비롯해 <먼지가 되어> <이 등병의 편지> 등 누구나 제목은 몰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시대의 명곡을 각색한 넘버들은 뮤지컬 <그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작품의 배경은 1992년. 한중 수교 체결을 앞두고 양국의 비

밀 대화에 참여했던 통역사와 청와대 경호원 무영이 사라진다. 20년 뒤 같은 날,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가 한창인 도중 대통령의 딸 하나가 경호원과 또다시 실종된다. 청와대 경호실장이자 20년 전 무영의 동기 정학이 그녀를 찾아나서고 이와 함께 1992년 그날의 비밀이 밝혀지는 추리극 형식을 취하고 있다.

주크박스 뮤지컬의 경우 가수의 명곡은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애초 뮤지컬을 위해 작곡되지 않은 노래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날들>이 주크박스 뮤지컬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복잡한 스토리텔링을 포기하고 대신 가사에 충실한 장면 표현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추리극의 긴장감보다는 김광석이 노래한 엇갈린 사랑과 우정을 담아내길 택했다.

일견 뻘하고 단조로울 수 있는 소재에 소소한 웃음거리와 공감 가는 대사로 변주를 준다. 경호원들의 절도 넘치는 동작을 바탕으로 한 칼군무와 그런 그들이 탈의실에서 펼치는 깜짝 상의 노출 안무에는 박수와 흐뭇한 미소가 절로 터진다. 창작극답게 계속해서 추가되는 '뭐시 중한디!' 같은 유행어와 아재 개그가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다. 정학 역에는 민영기·이건명·유준상이, 무영 역에는 오종혁·지창욱·이흥기가 캐스팅됐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무대다. 믿고 보는 <그날들>은 11월 3일까지 충무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20세기 초 영국 유태주의의 실험적 현현

〈도리안 그레이〉, 9. 3~10. 29,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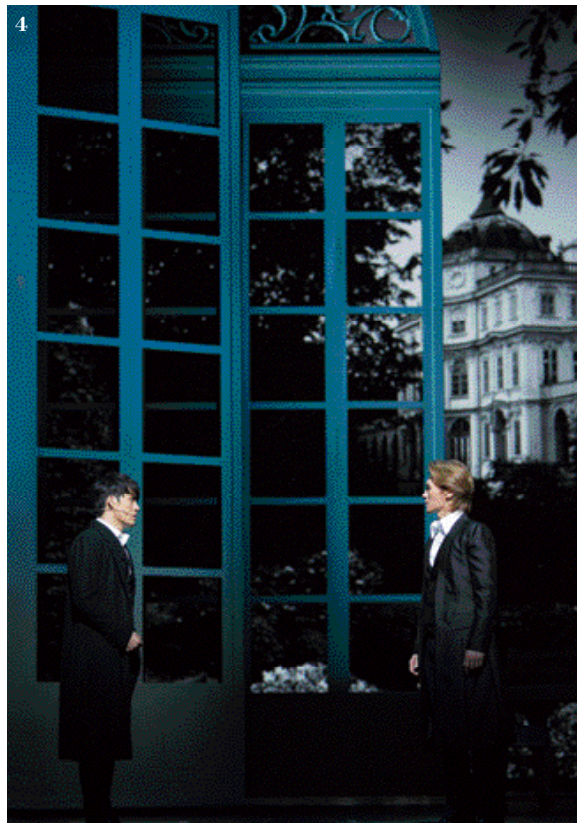
〈그날들〉에 김광석이 있다면 〈도리안 그레이〉에는 김준수가 있다. 〈도리안 그레이〉는 이미 뮤지컬계에서 하나의 장르로 통하는 배우 김준수 원캐스팅에 이어나 연출과 김문정 작곡이 참여하면서 개막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영국의 귀족 청년 도리안이 영원한 젊음을 위해 자신의 초상화와 영혼을 바꾼다는 오스카와 일드의 유태주의*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원작이다. 주크박스 뮤지컬이 이야기 부실로 무너진다면 원작이 있는 뮤지컬들은 원작을 다 담아내려다 쓰러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는 이런 위험에도 유태주의란 철학을 무대 위에 구현해내는 모험을 감행했다.

작품은 배우 김준수를 아낌없이 보여주기 위해 ‘도리안’의 아름다움을 반복해서 보여주지만 진정한 주제는 그 아래, 배짱과 헨리의 대립 속에 숨어 있다. 도리안의 타락을 막으려는 화가 배짱은 빅토리아 왕조의 도덕적 보수주의를 대변하고 도리안을 쾌락의 길로 이끄는 헨리는 이에 탐미주의로 맞선 당대 영국 지식인을 표상한다. 당대 영국의 분위기를 노래하는 양상블은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하늘을 나는 시대를 맞이한 귀족들. 그들은 인간의 위대함에 감탄하며 신의 존재와 신이 대변해온 도덕과 기존 체제에 의문을 품는다. 순수했던 청년 도리안은 헨리와 시대에 설득당해 고통은 아름답지 않다 믿으며 죄책감 없는,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적 쾌락을 추구하다 결국 인간으로서 영혼의 타락을 맞이하고 만다.

스토리만큼이나 넘버는 음울하고 대사는 현학적이다. 이 뮤지컬의 대표 넘버라 할 수 있는 〈찬란한 아름다움〉부터 그렇다. “타락한 순결한 이 알 수 없는 삶이여. 미친한 고귀한 숙명 모순의 삶이여”란 어려운 단어로 가득한 가사에 단조인 불협화음의 기이한 멜로디가 붙어 무대 위를 맴돈다. 한 번에 이해되거나 뇌리에 꽂히는 넘버는 아니지만 김준수의 미성과 만나면 기묘한 넘버들의 여운은 작품이 끝나고도 귀를 감돈다.

무대는 도리안과 함께 관객들에게 끝없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20세기 유럽의 저택과 살롱과 같은 작품의 배경을 세련된 순백의 구조물로 구현했고 체코에서 직접 찍은 풍광 영상은 아름다운 유럽의 여름날을 무대 위로 불러온다. 2막에서의 무대 앞쪽 스크린에 배우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해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틀어 배우들의 감정을 객석에 전달하는 실험적 무대 연출도 볼거리다.

〈도리안 그레이〉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작품이다. 새롭고



1, 2
추리극의 서사에 고(故) 김광석의 명곡들을 녹아낸 주크박스 뮤지컬 〈그날들〉.

3, 4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원작으로 한 〈도리안 그레이〉는 볼거리, 생각할거리가 많은 화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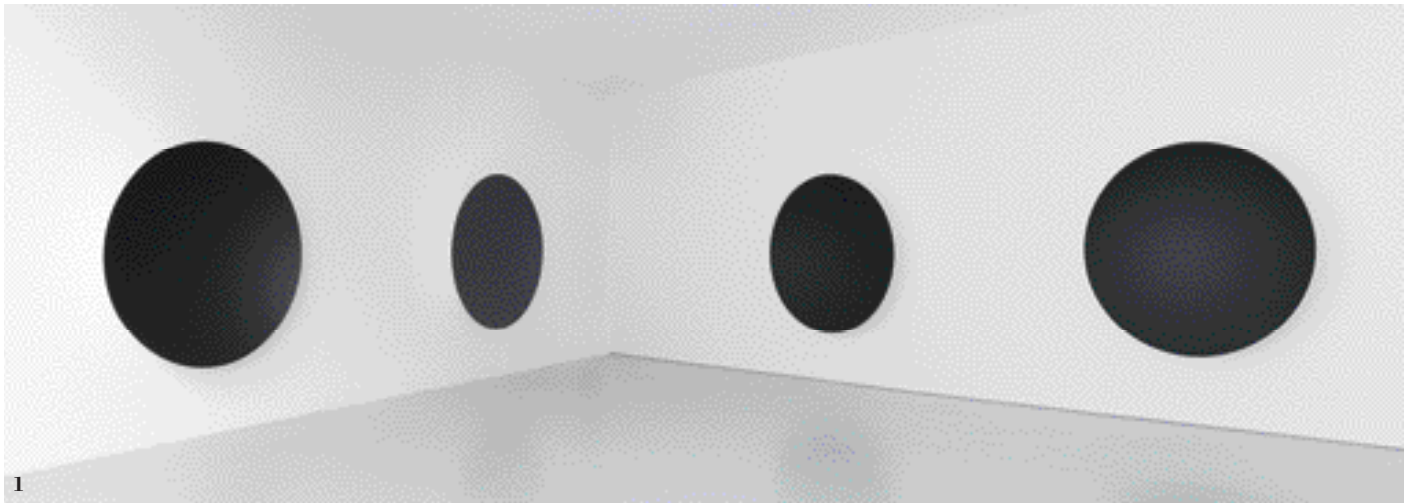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너무나 많은 걸 담으려다 호흡을 잃었다는 평도 있다. 논쟁거리도 생각거리도 볼거리도 많은 ‘새로운’ 뮤지컬이다. 헨리 역에는 박은태가, 배짱 역에는 최재웅이 캐스팅됐다. 10월 29일까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 유태주의의 미의 창조를 예술의 유일 지상의 목적으로 삼는 예술 사조. 미(美)를 진(眞)이나 선(善)보다 높은 가치로 여기며 추구한다.

글
김연주
매일경제 기자

사진 제공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씨제스컬처



전시 <군집된 구름들>과 <마음의 기하학>

현대미술의 두 거장이 만드는 도심 속 '비움'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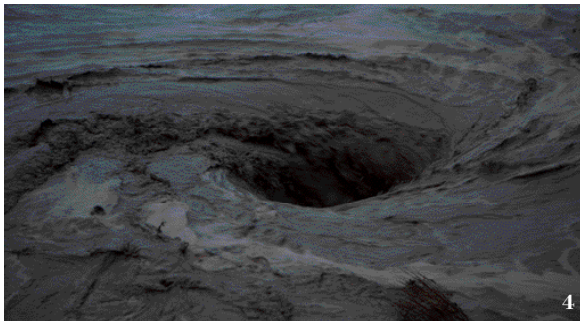
독자적인 작품 세계로 국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두 개념미술가의 전시가 나란히 열리고 있다. 인도 출신의 조각가 아니쉬 카푸어(62)와 한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보따리 작업으로 잘 알려진 현대미술 작가 김수자(59)다. 물질 이면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작업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복잡한 도심에서 예술이 주는 비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물질 너머에 존재하는 영적 세계

<군집된 구름들>, 8. 31~10. 30, 국제갤러리

물질이 갖는 정신성을 탐구해온 현대 미술의 거장 아니쉬 카푸어가 '군집된 구름들(Gathering Clouds)'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갖고 있다.

카푸어의 작품은 쉽지 않다. 그러나 반구를 짙은 검은색으로 빈틈없이 칠한 그의 작품 <군집된 구름>을 보고 있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심연에 빨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카푸어는 이번 전시에 대해 "물성이 만들어내는 초월적, 정신적 요소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발표되는 15점의 작품은 모두 신작이다. 한국에선 2012년 리움 전시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정원에서 대규모 설



치 작품 <더러운 구석(Dirty Corner)>을 전시했다.

물성이 비현실적인 차원을 창출한다는 주제는 그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화두다. 그는 “물질과 비물질이 결합해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낸다”며 “예술의 가장 고차원적인 목표는 실체가 없는 무형의 것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물리적인 속성이 있는 곳까지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색’이 가지는 신화적 측면에 주목하는 작가다. 카푸어는 올해 초 영국 기업이 개발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검은색 안료인 ‘반타 블랙(Vanta Black)’을 곧 자신의 작품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빛의 99.96%를 흡수해 사실상 ‘완벽한 검은색’으로 알려진 반타 블랙의 예술적 사용 권한은 현재 카푸어가 독점하고 있다. 카푸어는 “반타 블랙은 새로운 종류의 물질로 우주에서 블랙홀 다음으로 가장 어두운 검은색이다. 너무나 까매서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고, 표현할 수 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색이다. 마치 꿈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색이다”라고 말했다.

인도 뭄바이 태생의 카푸어는 영국 혼지 예술대학교와 런던 첼시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1990년 44회 베니스비엔날레 영국 대표 작가로 참여했다. 이듬해 ‘터너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뉴욕 현대미술관, 런던 테이트모던, 밀라노 프라다 파운데이션,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관람자가 채워가는 허(虛)의 공간

<마음의 기하학>, 7. 27~2017. 2. 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반면 ‘보따리’와 ‘보자기’ 등 한국적 소재로 작품 활동을 펼치는 설치미술가 김수자는 4년 만에 국내에서 여는 개인전 <마음의 기하학>에서 흙의 원초적 촉감을 관람자에게 돌려준다. 흙은 인간과 가장 밀접했지만 현대 문명에 가리워지면서 인간에게서 가장 멀어진 자연이다. 그러면서도 흙은 소수의 예술가들이 점유하는 가장 미술적인 재료가 됐다.

김수자는 지난 30년간 한국적 일상 사물과 예술을 엮는 창

작 방식을 통해 사회적 쟁점들을 독자적으로 탐구해온 작가다. 자신의 몸을 ‘비늘’ 삼아 세상을 꿰매고 보따리로 감싸 물질성과 비물질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온 김수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9점의 새 작품을 선보인다.

표제작인 <마음의 기하학>은 관객이 직접 참여하며 작품을 완성시키는 퍼포먼스 설치다. 어두컴컴하고 서늘한 전시장 안에 들어가면 관람객은 찰흙으로 구를 만들어 19m의 대형 테이블 위에 놓도록 요청된다. 차진 점토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짓누르고 동그랗게 굴리는 동안 흙을 만지며 느끼는 근원적인 촉감은 행위자를 비일상적인 감각으로 이끌게 된다. 행위자가 의도하는 대로 쉽게 변형되는 찰흙이 갖는 유연성은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극도의 자유로움의 감각이다. 실내엔 작가가 직접 녹음한 여러 ‘소리’가 낮게 흐른다. 찰흙을 빚는 행위와 감각에 몰입하다 보면 좀처럼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작가는 “오래전부터 도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안의 허(虛)의 공간에 관심이 있어서 클레이(찰흙)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 어린 시절에 만진 이후에 흙이라는 것을 내 손에 담아서 만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찰흙이 두 손 가운데서 움직이면서 물질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물질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로 변환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관객과 나누고 싶다.”고 설명한다.

2010년 이후 세계 곳곳을 무대로 진행 중인 비디오 작품 시리즈 <실의 궤적(Thread Routes)>의 새로운 챕터가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세계 각지의 직조 문화를 그곳의 자연과 건축 속에 담으며 인류학의 원형적 미학을 좇는 영상 작품이다. 신작인 다섯 번째 챕터는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나바호족과 호피족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직물을 짜는 원주민들의 문화를 촬영했다. 작품엔 내러티브가 없다. 흙사 ‘시각적 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묘하게 아름답고 기념비적인 이미지들이 직물을 짜는 행위를 둘러싼다. 이것은 ‘세계’라는 직물을 짜고 감싸고 풀어내는 행위에 대한 작가의 인류학적 탐구와도 맞닿아 있다.

1, 5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아니쉬 카푸어의 작품.
사진 1은 반타 블랙을 사용한 <Gathering Clouds> I, II, III, IV(Fiberglass and paint, 2014, ©Anish Kapoor), 사진 5는 <Sky Mirror> (Stainless steel, 2006, Photo: Tim MitchellImage ©Anish Kapoor).
2, 3, 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김수자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사진 2는 퍼포먼스 설치 <마음의 기하학> (19m 타원형 테이블, 16 채널 사운드 퍼포먼스 <구의 궤적>, 2016), 사진 3은 <숨> (새틴 위에 디지털 자수, 사운드 퍼포먼스 <직조공장> 중 한 숨의 시퀀스, 2004, 2016), 사진 4는 <실의 궤적 V> (스틸 이미지, 16mm 필름, 사운드, 2016).

글
심혜리
경향신문 기자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
국립현대미술관

책 〈권혁재의 비하인드〉와 〈책가도〉

그들의 렌즈가 주목한 것은 ‘삶’

사람은 어딘가에 저마다 삶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몸이 그럴 것이고, 직접 적은 글은 물론 읽은 글도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사람의 흔적에 주목하며 그들의 ‘삶’을 드러내고자 한 사진집을 소개한다. 평범해 보이는 얼굴, 비슷해 보이는 책장일지라도 사실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A형은 손이 참 굵다. 50대 남자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매끈하고 가늘다고, 나는 늘 생각한다. 그 손에 눈길이 이끌릴 때마다 그의 삶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궁금해졌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A형인 데다, 직접 물어보지도 않아 잘 알지는 못한다. 다만 고운 손을 볼 때면 A형이 소설가라는 사실을 떠올린다. 저런 손이라면 것처럼 섬세하고 유려한 문장을 쓸 수 있는 걸까. 그가 육체노동과는 거의 인연이 없이 살아왔다는 건 확신할 수 있다.

얼마 전 책장을 정리했다. 책장 안쪽에 있어 평소엔 눈에 거의 띄지 않던, 대학 시절 읽었던 책에서 지금의 나를 봤다. 특별한 목표를 의식하고 읽은 책은 아니었다. 손 가는 대로, 그때 그 때의 관심에 따라 읽었던 책이다. 20년 전과 지금의 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을 발전이 없다고 해야 하는 걸까, 곳곳하게 한걸을 걸어왔다고 해야 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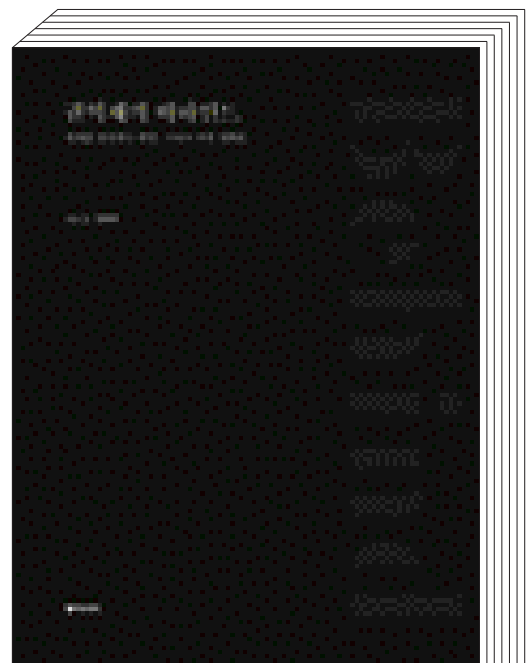
시간은 그저 흘러가지 않는다. 커켜이 쌓여 삶을 이룬다. 각자가 걸어온, 그리고 지금 걷고 있는 축적된 삶의 가장 뚜렷한 흔적은 몸과 책이 아닐지…. A형의 고운 손과 나의 책장처럼 말이다. 〈권혁재의 비하인드〉(권혁재 지음, 동아시아), 〈책가도〉(임수식 지음, 카모마일북스)가 누군가의 삶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몸보다 몸이 드러내는 ‘삶’을 찍다

〈권혁재의 비하인드〉, 권혁재 지음, 동아시아

권혁재는 자신의 사진이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했던 결과라고 말한다. 멋있게 찍기 위해 고민하고, 그럴듯한 장소를 찾기 위해 시간을 쓰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고 자신의 작업 방식을 설명한다. “그들이 들려준 삶의 메시지가 제 사진의 부끄러움을 넘어설 것이라 믿기 때문”이란다.

그는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의 등을 우연히 본 적이 있다. 그때 언젠가 강수진의 등을 찍겠노라 다짐했다. 카메라 앞에서 선 강수진에 대해 권혁재는 “포즈를 취하자마자 등 근육이 툭툭 불거져 나왔고 격렬한 움직임이 없이도 근육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단다. “30년의 부단한 연습의 결과임에 틀림없었다. 등 근육이 그녀 자신의 역사일 뿐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라며 강수진의 등에 주목한 이유를 밝힌다.



권철은 사진 속에서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있다. 눈은 사납게 앞을 노려보고 있고, 입은 신음하듯 살짝 벌어져 있다. 그는 일본에서 활동한 다큐 사진가다. 첫 번째 사진집은 <우토로-강제 철거에 맞선 조선인 마을>이고, 일본의 변화가 가부키초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담은 <가부키초>, 한센병 회복자 시인 사쿠라이 데쓰오와 인연을 맺고 찍은 <땃짱! 한센병에 감사한 시인>을 잇달아 냈다. 가장 낮고 소외된, 그리고 인간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대상을 카메라에 담은 권철은 “한 마리 고독한 늑대로 살고 싶다”며 권혁재의 렌즈 앞에 섰다.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른 책장

<책가도>, 임수식 지음, 카모마일북스

김윤식, 김훈, 황석영, 함정임, 이인화 등 50여 명 예술가, 학자들의 서재와 작업실에 있는 책장을 찍어 책으로 낸 임수식은 책장

을 만나러 가기 전 상상을 한다고 썼다.

“평소에 알고 있던 선생님의 모습을 비추어 만나게 될 책장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데, 대부분 다르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이 한 사람이 이루어낸 존재의 증명이니, 책을 모아놓은 책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탐구하는 여행이 된다.

<영원한 제국>으로 유명한 소설가 이인화는 요즘 한창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많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시도, 소설도 쓴다는 말도 들려준다. 이인화와 한참을 디지털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본 책장, 임수식은 “선생님의 책가도는 더없이 아날로그”라고 감상을 적었다.

책장은 책뿐만 아니라 주인이 사랑하는 오브제의 거처이기도 하다. 사진가 홍순태의 책장. 비대칭의 그것에 책들과 오브제가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있다. 가운데 나란히 배열된 것은 홍순태가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구입한 대형 카메라다. 임수식은 “대형 카메라가 선생님의 삶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문학평론가 김윤식의 오래된 책으로 뾰뾰한 책장을 두르는 책장 주인의 강인한 인상과 닮았다고 말한다.

권혁재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이들이기는 하나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잘생긴 모델처럼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미모를 가지지 않았다. 임수식의 작품들은 비슷비슷한 책장의 나열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저마다의 삶, 그것과 얽힌 이야기를 포착하고 부각한 사진 속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피사체다. 두 책이 독자에게 보여주는 건 피사체 자체, 혹은 자신들의 빼어난 역량이 아니라 삶이다.

자신의 삶을 웅변하는 무언가는 누구나 갖고 있다. 두 책이 말하듯 몸과 책장일 수 있고, 그것이 아닌 무언가일 수도 있다. 들여다보면 자신의 삶이 보이는 그 무엇을 찾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미래의 나를 그려보는 꽤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글
강구열
세계일보 기자

사진 제공
동아시아,
카모마일북스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어드리니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sfac.or.kr) - 열린광장 혹은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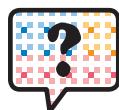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을 발송해드립니다.



**문화·예술적 취향이 맞는
애인을 만난다면, 조금 더
행복한 연애가 될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입니
다. 감정 기복이 심한 제 성격을

잘 받아주는 남자친구 덕분에 지금까지 큰 싸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취향이 너무 달라서 대화를 나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 예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면 남자친구는 옆에서 졸음을 견디려 애쓰고,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면 저는 어서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극장을 나온 후에는 1시간 정도 의미 없는 이야기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저는 소설과 영화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을 공유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취향을 이해하며 대화를 풀어나가려 해도, “난 다 괜찮아”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게 되고,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취향이 딱 맞아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답부터 해볼게
요. 네, 그런 새 애인을 만난다면 ‘당분
간’은 ‘조금 더’ 행복한 ‘연애’가 될 순

예술적 상담소

있을 거예요. 몇 가지 말해주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 수많은 절친 여동생 중 한 친구 커플은 영화관에 가면 따로 따로 볼 영화를 골라 각각 다른 상영관으로 입장해요. 그 후 엔 먼저 영화가 끝나는 사람이 아직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을 기다리죠. 밥을 같이 먹으며 각자의 영화가 어땠는지 대화한 대요. 그래도 꽤 오래 잘 만나고 있어요. 다른 여동생 커플은 이제 갓 만나기 시작했는데, 여자의 경우 영화를 직업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로 취향은 쉽게 말해 ‘예술영화’ 쪽이에요. 남자의 경우 가장 감명 깊은 영화로 <국제시장>을 꼽는다고 하고요. 저도 <국제시장> 참 좋아하지만서도, 여동생의 경우 그 대답에 적잖이 실망해 다시는 영화 이슈를 대화 주제로 삼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언니, 서로 아껴주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취향과 비전을 나눌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연애 생활이 될 거라는 말은 이미 많이 들으셨겠죠? 저 또한 사랑을 찾고 싶으면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해드리고픈 얘기는, 좀 다른 방향입니다. 연애라는 건 어쨌든 처음의 끌림이 있어야 시작되는 것이니,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끌림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 취향남과 유머 코드나 스킨십 선호



<http://bit.ly/ltAX44>

가 맞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취향남의 말투가 세상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뉘앙스를 가졌다면요? 사실 이 모든 요소는 제 절친 여동생들이 남자친구를 구할 때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들이랍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요소를 근거로 '사랑'을 하진 않았어요.

연애는 원래 사랑을 향하는 재미없기도 한 놀이

연애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목적을 향하는 일종의 놀이나 재미 활동이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아직 사랑인 것은 아니고, 좋아하는 마음을 토대로 관심과 보살핌, 헌신과 책임, 신뢰를 연습해보는 과정이라고 저는 배웠고,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의 취향을 저격하고 심장을 강타하는 결정적인 대화의 순간들이 생겼다면 좋겠지만, 재미없음의 순간들도 필연적이라는 것, 그럴 때마다 '넌 정말 핵노잼이야'가 아니라 '이런, 꿀노잼'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연애의 본질이라는 걸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난 너고 난 나야, 우리는 폴 토마스 앤더슨과 코엔 형제를 좋아하고 <본투비블루>를 보고 같은 시점에 울기 시작하는 것' 보다는, 어쩌면 저 깊은 곳 이유 있는 나의 감정기록을 전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 노력하고 보살펴주는 것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도 좋아하는 그 남자친구, 처음에 어떤 이유로 좋아하게 됐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에겐 시간 낭비인,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영화를 꼭 참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 취향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저라면 홍보 문구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감독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 본 그 영화를 보며, '줄음을 건디려 애쓰는' 그 모습을 예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관람 이후의 의미 없는 이야기 시간을, 비록 나 혼자 떠들게 될지라도 본격적인 너만을 위한 영화 교육의 시간으로 활용해볼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난 다 괜찮은' 남자친구 분은 스펀지밥처럼 그 취향을 흡수하거나 '난 다 괜찮지는 않아'와 같은 한결 적극적인 표현으로 관계에 희망적인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취향 같은 남자는 많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질문에서 매우 흥미로우면서 위험한 문장을 발견

했는데요, '어느샌가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게 되고,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요거요. 신뢰를 배반하지 않는 선에서 눈을 돌리고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저는 한때 영화 리뷰를 쓰는 직업을 가졌고, 지금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과거 좋아했던 사람들은 '영알못'이었어요. 또 한때는 함께 영화를 하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같이 영화 만들고 강의 듣고 하는 것도 좋긴 했지만, 그 시간보다 더 좋았던 건 내밀한 개인의 역사를 나누고 공명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취향은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수많은 커플들 중에는 아주 여러 가지 겉보기 측면에서 '잘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의외죠? 취향이 아니라 다른 '별거', 이 사람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나 '성격 차이'와 같은 미묘한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다른 행복을 찾아 떠나셔야겠지만, 아직 좋아한다고 확인하셨잖아요. 사랑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아요. 한번 지키려 노력해보세요. 같이 재미있을 수 있는 놀이는 뭔가요? 저도 인생에서 취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일부러 힘주어 가볍게 마지막 문장을 던져볼게요. "영화는 각자 취향이 맞는 다른 친구들과 봐도 되잖아요?!" 그게 사랑을 위해서라면요.



답변
육진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주간지 <대학내일> 에디터로 9년 동안 잡지를 만들었다. 지금은 여기저기 글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를 집중적으로 만든다.



광복 직후 37년간 유지된 통행금지 제도 그리고 해제

240분의 자유를 되찾던 날

‘야간통행금지’ 제도는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8일 처음 실시됐습니다. 미군정청은 이날 ‘포고 1호’를 통해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포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군정의 치안 유지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후 6·25전쟁을 거치며 자리 잡아 약 37년간 유지됐습니다. 통금 시간은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했지만 대체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였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통금이 시작되면 방범대원들이 단속을 실시했고, 통금을 위반해 적발되면 가까운 파출소에서 지내다가 해제될 무렵 즉결심판을 받고, 벌금을 낸 후 풀려났습니다. 성탄절이나 연말연시에는 통행금지가 일시적으로 해제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새벽까지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사진 2〉 야간통금 해제.

조선시대에도 존재한 통행금지 제도

이 제도는 1982년 1월 5일 오전 4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일부 전방 접전지역과 후방 해안지역은 제외됐지만 이날 도시의 젊은 이들은 거리에서 '새벽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야간통금을 경험하지 못한 요즘 젊은이들은 늦은 밤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에는 〈사진 1〉처럼 통금 위반자들을 해가 뜰 때까지 명동 시공관에 임시 수용했습니다. 부녀자들이 많이 잡혀와 있네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도 보입니다.

야간통금 폐지를 가장 반긴 사람은 아마도 심야에 장사를 하는 포장마차 주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진 2〉는 한 포장마차 주인이 손수레 한 귀퉁이에 '통금해제 환영'이라고 써 붙여놓고 장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야간통금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언제 시작됐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경국대전〉 병전 문개폐조(門開閉條)에 "궁성문은 초저녁에 닫고 해가 뜰 때에 열며 도성문은 인정(밤 10시에 쇠북을 스물여덟 번 치는 것)에 닫고 파루(새벽에 쇠북

을 서른세 번 치는 것)에 연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행순조(行巡條)에는 "2경(오후 10시경) 후부터 5경(오전 4시경) 이전까지는 대소인원은 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1401년(태종 1) 5월에 "초경(오후 8시경) 3점 이후 5경 3점 이전에 행순을 범하는 자는 모두 체포할 것"을 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금해제에 울고 웃던 시민

통금해제가 결정되자 국민들은 이를 반기며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통금해제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은 생리적인 위축감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과 문화생활도 한층 활기를 띠고 명랑해지리라 기대에 차 있다. 그동안 통금을 분단국가의 숙명처럼 체념해왔던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안정되었고, 성장했음을 대내외에 보여준 조치로 마음 든든하며 크게 환영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들은 남편과 자녀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한 주부는 신문에 "술을 좋아하는 남편의 귀가 시간이 더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어떤 가정이나 주부들의 걱정거리가 한 가지 더 늘어나게 된 셈이다. 대부분 강·철도 사건이 늦은 밤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도 태산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반겼고 공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퇴근 시간에 융통성이 생겨 공장 가동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좋아했습니다. 특히 술집 주인들은 통금해제를 크게 환영했지만 음주 소란, 폭력, 성범죄 등의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경찰은 통금 해제 첫날 특별비상경계에 들어갔으나 큰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37년 만에 잃었던 4시간을 되찾은 시민들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통금 해제 첫 밤을 지냈습니다. 대부분 일찍 귀가했으며 서울 시내 삼청·사직 공원과 여의도 광장 등에는 늦은 시간까지 젊은 남녀의 모습이 보였지만 자정을 전후해 모두 돌아갔다고 합니다.

통금 해제 후 '엄살 환자'가 늘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니다. 통금이 있을 때는 야간 응급환자의 대부분이 교통사고 환자였지만 해제 후에는 만성질환자가 입원을 목적으로 야간에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밤중에 병원 문을 두드린 이유는 입원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의료보험이 실시되며 입원환자가 몰려 병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당직 의사들은 엄살 환자를 설득해 돌려보내느라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사진
김현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시집 서점 주인장 유희경 시인의 '이대 앞'

이대 앞 '맛탕들'에 대하여

'이대 앞'은 오랫동안 크고 작은 옷가게들이 뻘뻘이 자리 잡아
패션과 쇼핑으로 기억되던 곳이다.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의 단골 코스 중 하나.
그러나 이화여대와 신촌기차역 사이 지역에 요즘 들어선 작은 서점들과
골목 안쪽에 자리한 맛집 멋집은 이곳만의 '문화'를 엿보게 한다.
시집 서점을 연 유희경 시인은 '맛탕'처럼 따뜻한 이곳 가게들의 품모가 오래갔으면 한다.

신촌기차역 맞은편에 시집 서점 '위트 앤 시니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의 일입니다. 시집만을 취급하는 서점이라는
것이 꽤나 흥미로운 일이었나 봅니다. 4개월 가까이 되는 동안
크고 작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꽤 알려져 손님도 많이 찾
아옵니다. 손님이 온다는 것은 사람이 온다는 뜻이고 그러한 일
은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한 구절처럼,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라서 짧은 사이 많은 이야기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오
들은 서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점이 있는, 그래서 제가 하루 종
일 머무르게 되고 만 신촌역 주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
다. 한 번쯤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의 빗 같은 것도 있고, 왜 젊
은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홍대 등지가 아닌 신촌에 서점을 열었
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사주시던 '맛탕'으로 기억되는 곳, 이대 앞

우선 신촌기차역 주변은 '신촌'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부터 말
씀드려야겠습니다. 행정구획상으로도, 일반적 통념상으로도 이
곳은 신촌이 아닙니다. 신촌에서 약속한 뒤 이 근방에서 기다리
면 욕먹기 십상이라는 뜻이죠. 이곳의 정식 명칭은 대흥동입니
다. 이제는 이화여대길이고요. 그렇지만 통상, '이대 앞'이라고
하죠. 이대 앞은 상점가입니다. 오래전부터 패션·뷰티 관련 가
게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대 앞 부근에
서 자라서 이곳에 대한 기억이 많아요. 친구와 함께 싸고 멋진 옷
을 사기 위해 기웃거린 적도 있고요, 꽃다발을 들고 이대 정문 앞
에 서서 '잠정적 동지'들과 무리 지어 서 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 앞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엉뚱하게도



'맛탕'입니다. 옛기름에 고구마를 튀겨 만든 간식거리 말이죠.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얘기입니다. 엄마와 함께 이따금
이대 앞에 오곤 했습니다. 이곳을 찾는 엄마의 주된 용무는 옷 수
선이었습니니다. 당시 이 부근엔 숨세 좋게 옷을 수선해주는 작은
가게가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게들이 남아 있지요)
그중 한 곳이 어머니의 단골 가게였습니다. 매번 엄마를 따라나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 부디 이대 앞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하고 바랐는데, 그 까닭은 가만 얻어먹을 수 있는 맛탕 때문이었
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걱정 없이 엄마와 사이좋게 어떤 것을 먹
는 게 좋았던 것이겠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대
앞'이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오게 되면 먼저 맛탕을 떠올리곤 합
니다. 그러니까 맛탕의 맛이 제게 중요한 기억이자 곧 이대 앞이
라는 이야기지요.

가게의 입지에 대해 고민할 때, 저는 이 가게가 누군가의 '맛
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 관광객을 위한
상점만 준비할 뿐인 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러 찾아갈 만한 가게 하나 없이 추억 속 아련한 상



점 거리가 되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대 앞이었습니다. 이 거리를 추억이 생길 만한 상점가로 만드는데 한몫해보자는, 귀염 섞인 포부이자 야심이 있었어요. 이따금 서점에 찾아오시는 손님 중에 이곳이 참 오랜만이라고, 언제 이러저러한 추억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때 더없이 반갑고 감사한 것은 그러한 까닭입니다.

골목골목 자리 잡은 '맛탕'스러운 공간의 매력

사실, 이대 앞의 맛탕이 되어가는 곳은 저희 서점뿐이 아닙니다. 구석구석 숨어 있는 곳이 많아요. 큰길만 다녀서는 이 거리의 참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니, 진짜 알짜배기는 골목골목에 숨어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화여대길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편의상 앞길, 뒷길로 나눠보죠. 요란한 가게들과 행인으로 가득한 앞길과는 달리 뒷길은 접어들기 어렵고, 그래서 한적하죠. 제가 생각하는 이대 앞은, 당연하게도 뒷길 쪽입니다. 자꾸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작은 가게들이 잔뜩 있습니다. 장르문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점 미

스터리유니온, 소소한 한 그릇 밥으로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을 살피주는 소소, 숨쉴 좋은 타투 가게도 있고요,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민화 가게나, 한두 평 남짓한 작은 갤러리들도 있습니다. 큰돈을 벌고 싶다가보다 즐거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 즐거움이 손님들의 빵에 이마에 눈에 번져 자꾸 웃게 만드는 가게들입니다. 이렇듯 이대 앞 크고 작은 골목 속에는 맛집 멋집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 골목이 이대 앞의 진짜 풍모를 지켜주는 셈이죠.

이대 앞은 여전히 관광객의 거리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외국어에 '내'가 외국인이 된 듯한 착각마저 일어날 지경이죠. 혹자들은 관광객이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이 거리는 어쩌나 걱정도 합니다. 또 한쪽에선 지나치게 상업화가 된다고 걱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께, 넌지시 골목을 찾아보시라고, 좀아 보이더라도 꼭 들어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곳에는 여전히 혹은 새롭게 이곳만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곳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누군가, 어릴 때 왔었어요, 하고 말해줄 때까지요.

글
유희경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오늘
아침 단어> (당신의
자리-나무로 자라는
방법)이 있다. '2011년
동료들이 뽑은 올해의
젊은 시인상'을
수상했다.

그림
Meg

2016년 한국 천만 관객 영화의 이변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 해의 절반 이상이 지나고 두 번의 큰 명절 연휴가 끝났다. 방학과 긴 연휴는 영화 흥행의 작기이기에 올해 흥행 기대작들은 거의 윤곽을 드러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영화가 관객의 호응을 얻었지만 '천만' 고지를 넘본 대표작은 <곡성>과 <부산행>. 이들은 지난해 <암살> <베테랑>처럼 흥행 엔진을 탑재한 블록버스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장르적인 특성을 강하게 띤 영화들이 보편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점이 일단 눈에 띈다.

한국영화 흥행의 척도 '천만 관객'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극장가는 소위 대목을 맞는다. 긴 연휴도 연휴지만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이던 관객 단위가 순식간에 세 명 이상의 가족 단위로 바뀌기 때문이다. 게다가 명절에 극장 가는 거 촌스럽니 어찌니 한들 영화만큼 만만한 오락거리도 없다는 게 우리네 현실. 덕분에 이맘때면 꼭 이런 우스개가 떠오른다. 1년에 영화관 한 번 갈까 말까 한 사람들이 가서 보는 영화가 '천만 영화'가 된다는 얘기 말이다(비슷한 예로 1년에 책 한 권 살까 말까 한 사람들이 책을 사야 비로소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얘기도 있다). 단순히 우스개로 치부할 수만도 없는 것이 연례행사로 극장을 찾는 이의 수는 실제로 상당하다. 더욱이 이들을 극장으로 모는 시기가 바로 명절 시즌이니 매년 이때만 되면 '승자'를 점치고 천만 영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단 한 편의 영화가 천만 고지를 넘어서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 말이다.

그만큼 한국 영화계에서 '천만'이라는 숫자는 각별하다. 5천만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천만 관객은 대흥행의 척도일 뿐 아니라 그동안 영화와 무관하던 사람들의 관심까지 일거에 환기하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단 어떤 영화가 천만 관객을 목전에 둔 시점부터 언론은 너나 할 것 없이 영화에 다양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다. 이 영화의 장점은 무엇이며, 왜 사람들이 이 영화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그 특별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덕분에 한국에서 '천만 영화'란 단순히 재미있는 영화라기보다는 때때로 한 시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일쑤다.

그렇다고 늘 천만 영화가 동시대의 면면을 투영하는 것은 아니다. 작년만 해도 무려 세 편의 영화가 천만 고지를 밟았지만, 단지 그뿐이었다. 천만 영화 반열에 올라선 세 편의 영화 <암살> <베테랑>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각각 관객을 천만 명이나 동원한 것은 굉장한 일이지만 이 영화의 흥행 자체가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세 작품 모두 대중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검증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티켓 파워를 가진 배우가 다수 출연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여해, 스크린을 독점하다시피 배급한 작품이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철저히 흥행을 목표로 기획된 블록버스터의 성공일 뿐 이 영화의 성공이 이례적인 '사회현상'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과거 <왕의 남자>(2005)나 <괴물>(2006), <7번방의 선물>(2013), <변호인>(2013)처럼 몇 가지 부족한 조건을 달고 뜻밖에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때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2016년, '새로운 세계'를 반긴 천만 관객

그에 비하면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남다르다. 아니, 굉장히 수상쩍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시작은 나홍진 감독의 <곡성>부터였다. 전작 <추격자>와 <황해>로 범치 스릴러 장르에 특화된 탁월한 감각을 자랑한 나홍진 감독은 세 번째 장편작 <곡성>에서 관객들의 기대를 시원하게 배신했다. 시치미 뚝 댄 채 범치 스릴러를 가장하던 영화는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공포영화의 익숙한 소재를 와르르 쏟아낸 것이다.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디딘 스릴러의 세계를 들여다보던 관객들은 환상과 현실을 교묘히 뒤섞다 마침내 오컬트 소재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의 생소한 결에 적잖이 당황했을 법하다. 마케팅 역시 이 영화의 핵심을 공공 감춘 덕에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됐다. 결국 <곡성>은 최근 한국 공포영화로는 이례적으로 700만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다. 또한 영화 밖에서조차 각종 유행어로 화자되는 등 하나의 신드롬으로까지 이

어졌다. 호러팬이 아닌 관객들조차 기분 좋게 뒤통수를 내어준 하나의 '사건'이었던 셈이다.

올해 처음으로 천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부산행>의 성공은 더더욱 예상 밖이었다.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잘 알려진 연상호 감독의 첫 실사영화 연출작인 <부산행>의 실체는 뜻밖에도 좀비 영화였다. 물론 기존 좀비영화와 비견한다면 <부산행>은 상당히 평이한 작품에 속한다. 호러 팬들에게는 다분히 익숙한 무대와 상황, 캐릭터를 배치해 비교적 안전한 방향으로 일관한 영화였던 것이다. 물론 어떤 장르영화든 한국이라는 특수한 요소가 가미될 때 생기는 이질감이 이 영화에도 오롯이 담겨 있다. 여기에 자기 희생과 이기주의가 수시로 교차하고 가족애가 진하게 곁들여지면서 <부산행>의 드라마는 매순간 효과적으로 기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비라는 괴물보다는 재난에 초점을 맞추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 긴박감을 극대화하는 순간, 아마도 좀비가 뭔지도 몰랐을 관객들에게조차 충분히 흥미로운 영화가 됐을 게 분명하다. 늘 마니아의 전유물, B급 문화에 머물던 좀비영화가 비로소 천만, 아니 천백만 영화에 등극한 순간이다.

여전히 천만 영화의 파급력은 대단하다. <암살>은 일제강점기 영화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했고, <베테랑>은 가진 자를 악인으로 설정한 일련의 작품들의 가장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에 비한다면 <곡성>과 <부산행>의 약진으로 호러영화의 득세를 논하기에는 아직 한참 이른다. 그러나 그동안 이 세계에 전혀 발 디디지 않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들의 흥행에 의미를 부여하기엔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관객의 수와 영화의 질은 결코 일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극장에서 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재미와 조우하는 '사건'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그걸 위한 흥행이, 그걸 위한 천만 영화가 나왔으면 한다.

글
강상준

<DVD2.0> <FILM2.0>
<IMBC> <BRUT> 등의 매체에서 줄곧 기자로 활동하면서 영화, 만화, 장르소설, 방송 등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글을 쓰며 먹고살았다. <위대한 망가>를 썼고, <매거진 컬처> <젊은 목소들>을 공저했으며, <공포영화 서바이벌 핸드북>을 번역했고, <좀비사전> <탐정사전>을 기획, 편집했다. 현재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겸 프리랜스 편집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사진 제공
퍼스트룩, 호호호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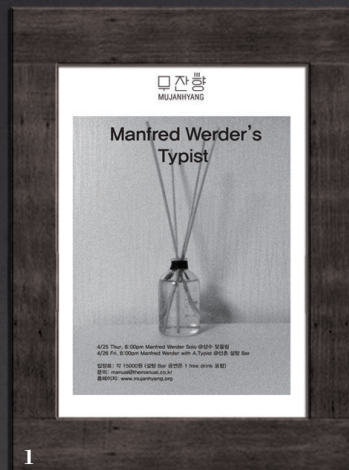


침묵을 작곡하는 사람들, 반델바이저 악파

소리와 침묵, 삶과 예술의 경계에 대해

현대음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음악가가 대중에게 익숙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음악’이라는 개념 자체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반델바이저 악파는 그 극단에 있는 이들이다. 그들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찾기보다 버리는 게 좋다. 기존의 음악에 대한 기대나 관념을 내려놓았을 때, 침묵을 파고드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전혀 다른 음악을 듣게 될 것이다.

지하철 6호선 상수역에 내려서 몇 걸음 걸으면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 평범해 보이는 이 공간에 벨을 누르고 들어가면 등받이도 없는 조그만 의자들이 놓여 있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어색하게 앉아서 한 방향을 바라보며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8시가 되자 그들이 바라보던 책상에 키가 190cm쯤 돼 보이는 중년 백인 남성이 다가가 앉아서 말 없이 종이 한 장을 바라보며 뚜껑이 달혀 있는 펜촉을 이따금씩 그 종이에 갖다 댔다가 떼었는데 그 소리는 들릴 듯 말 듯했다. 5분쯤 지나니 나름대로의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가 되었지만, 정확히 어떤 법칙으로 타이밍을 잡아 펜촉을 종이에 대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규칙적인 듯한데 아



1



2



3



4

니기도 했다. 억겁과 같은 시간이 지난 듯했지만 단 5분이 지나 있을 뿐이었다. 이 “공연”은 9시가 넘도록 계속되었고, 연주자(?)의 진지한 태도는 공연이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되었다.

이날은 스위스의 작곡가 만프레드 베르더가 자신의 작품 〈stück 1998〉을 ‘닷올림’이라는 즉흥음악 공연장에서 연주한 날이었다. 그는 침묵과 극도로 미미한 소리를 소재로 삼아 작곡을 하는 ‘반델바이저(Wandelweiser)’의 일원이다.

소리와 침묵의 관계를 탐구하는 음악

20여 명의 작곡가로 이루어진 반델바이저 악파의 작곡가들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현대음악 작곡, 그중에서도 비주류에 속하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사조를 이루고 있다. 음악과 행위예술의 세계를 넘나드는 작품을 추구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반델바이저는 기존의 음악회장에서의 작품 발표(악기, 또는 성악가가 악보를 보며 시작과 끝이 분명한,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에 도전한다. 그렇다고 파격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소리와 침묵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소리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피아니스트가 무대로 나와 피아노 뚜껑을 연 후 4분 33초 만에 다시 피아노 뚜껑을 닫고 무대 밖으로 나온 존 케이지(John Cage)의 〈4분 33초〉가 초연되었을 당시, 이 공연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관객들이 낸 소리가 유일한 ‘음악’이었다. 이 곡에서는 연주자가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된 작품을 연주(?)했지만, 만약에 엄청나게 작은 소리들을 오랫동안 연주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또한 연주자의 연주와 객석에서 나는 소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반델바이저는 바로 이 현상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극단적으로 파격적인 현대음악을 만들지만, 반드시 그 소리가 소음이거나 불협화음은 아니다. 일반인의 귀에 익숙한 조성음악의 소리를 마음껏 차용하기도 한다. 다만, 그 화음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 일단 하나의 음이 너무나도 작고, 그다음 음이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울려 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진공 상태에 있는 듯 무척 지루할 수도 있는 시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청각을 총동원해 ‘음악’을 찾아 들으려 하게 되고, 문득 그 어느 때보다도 ‘음악’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각이 극대화하는 것이다.

단 하나의 음이 줄 수 있는 위로

소리와 침묵의 관계, 연주자와 객석의 관계를 파헤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상생활과 연주의 경계 또한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위에 언급한 만프레드 베르더의 작품의 경우 각 페이지를 공연하면 다시는 다른 곳에서 재연되지 않아야 하며,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직 공연되지 않은 새로운 페이지를 작곡가에게 직접 건네받아 그걸 연주해야 한다. 악기 편성은 자유지만 연주자 수에 따라 각기 다른 곡이 작곡(?)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해 올바른 악보를 건네받아야 한다. 관객은 없어도 되고, 단지 지구상 어디에선가 이 공연이 행해지기만 하면 된다. 이 악보는 A4용지에 숫자만 적혀 있고 음표는 단 하나도 적혀 있지 않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악보(?)들을 전부 이어서 연주한다면 아마 500시간이 넘을 것이다. 뉴욕 출신 작곡가 크레그 셰퍼드(Craig Shepard)의 경우 31일간 스위스를 도보로 횡단하며 매일 하나의 트럼펫 곡을 작곡하고 이를 그날 저녁에 연주했다. 이 경우도 작곡과 연주, 작품의 개념이 하나의 예술 행위로 귀결되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현장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다. 이 점에서는 행위예술의 특성과도 교집합을 강하게 이룬다.

‘아이디어가 곧 예술’이라는 개념미술의 모토를 음악에 대입한다면, ‘개념음악’이라는 단어로 반델바이저를 분류할 수 있을까? 반델바이저라는 단어 자체도 다다이즘의 ‘다다(dada)’ 못지않게 모호한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 억지로 번역하자면 ‘변화의 지표’ 또는 ‘변화를 현명하게 하는 사람’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표준 독일어에도 없는 단어이고, 결합되기 이전의 두 단어 반델(wandel)과 바이저(weiser)가 암시하는 의미만이 반델바이저의 뜻을 추측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단어 뜻에서부터 악보, 음 재료, 소리, 연주 형태 등 모든 것이 애매모호한 반델바이저 악파는 결국 그 존재 자체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다. 우리의 삶은 어디부터가 연극이고 어디까지가 리허설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기 위해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의 멋진 작품을 완성해 발표하겠다고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그들은 삶과 예술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듯이, 반드시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인생은 하루하루 자체가 작품이고, 모든 사람이 창작자이며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은가? 그 어떤 드라마틱한 선율도 이루어낼 수 없는 가치를 단 하나의 음만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며 잔잔하지만 강렬한 감동을 받게 되었다.

1, 3, 4
상수역 인근에 있는 공간 ‘닷올림’(www.dotolim.com)에서는 만프레드 베르더(사진4)의 공연이 여러 차례 진행됐다. 사진1은 2013년 4월에 진행된 공연 홍보 이미지, 사진2는 올해 7월에 있었던 만프레드 베르더와 기획자·연주자로 위에(lo wie)의 공연 장면.

2
존 케이지의 〈4분 33초〉의 악보.

글
신지수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유학을 마친 후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현대음악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에 대한 글쓰기를 즐긴다.

블로그
jagto.tistory.com

종로 4가 사거리의 터줏대감 벽화와 건축

살구빛 벽화가 있는 건물,
도시의 혼기를 지피다

종로 4가와 5가 사이에 있는 광장시장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각광받는 곳이다. 시장의 서쪽 출입구 근처에는 주변 풍경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웅장한 멋이 있는 테라코타 벽화 한 점이 걸려 있다. 이 작품과 작품이 걸린 건축물(현 우리은행, 구 상업은행)은 1974년에 함께 건립됐는데, 건축과 미술의 당찬 실험과 순수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 마치 숨은 보물 같다.

건축과 예술품의 공생은 어떻게 도시의 한 지점의 감정을 만들어 갈까? 처음부터 계획된 건물과 거리에 놓인 예술품의 관계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흘러왔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여 법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이라 하는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작품이 설치될 때에는 미술, 건축, 디자인,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의해 미술품의 안전성,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의 항목에 따라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그리 인상적이지 않은 미술작품이 설치돼 도시 미관이나 시민의 감성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팝아트의 영향으로 도시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좋은 작품도 놓이지만 진중하고 세련되며 우리 성정에 맞는 따뜻한 예술과 건축의 조화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기하학적 건축언어의 실험과 민중예술의 메시지를 품은 건물

종로 광장시장 서쪽 출입구의 북쪽에는 우리은행(구 상업은행) 건물이 종로 4가 사거리에 면해 있다. 1974년에 지어진 2층 규모의 이 건물은 원래 10층으로 계획되었다고 한다. 은행의 1층은 거리보다 1m 정도 높이 위치해 있고, 사거리에 면한 벽에는 민중 판화가 오윤과 그의 친구인 오경환, 윤광주가 같이 작업한 높이 3.4m, 건물 전면 32m에 걸친 규모의 테라코타 벽화가 걸려 있다. 1974년에 건물이 지어질 때 함께 제작된 작품인데, 건물의 외관은 시간의 흔적을 숨길 수 없이 많이 변화돼 있다. 원래 은행의 입구는 건물 남쪽의 입체적인 삼각형의 예리한 캐노피 아래에 있었다. 입구로 들어서면 큰 원통 2개로 이루어진 매스 안에 나선형 계단이 S자를 그리며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진다.

이 건물은 기하학적인 순수한 건축언어로 건축 설계를 한 젊은 건축가 조건영의 초기작으로 당시 그의 나이는 26세였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출입구는 예리한 삼각형, 계단은 나선 계단, 은행 업무 공간은 네모난 형태로 순수한 기하학적 모양을 다 적용해, 건물 또한 순수한 형태로 만들었다. 지금은 오윤의 테라코타 벽화가 더 많이 회자되지만, 건축가 조건영이 거리를 향해 벽화를 놓을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건축과 예술의 접목을 유도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조건영의 친구 아버지가 당



시 상업은행의 임원이어서 아무런 유명한 작품도 없는 26세의 신에 건축가에게 흔쾌히 설계를 의뢰했고, 조건영은 친교하던 민중 지식인과 예술인 중에 동갑내기이던 오윤과 협의해 벽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민중예술의 선구자 역할을 한 오윤 역시 당시 26세의 젊은 나이로 그의 작품 세계를 열기 시작해, 벽화는 선의 흐름이 명확하고 꽃잎 같은 부조의 모양을 하고 있다. 미술평론가 윤범모는 '1970년대의 오윤은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벽돌공장이나 전통 가마 등지에서 흙 작업에 몰두해, 1980년대에 그가 선이 강한 작품을 내놓게 되는 스케치를 많이 남겼다' 한다. 오윤의 민중예술에 대한 관심은 당시에 50년 정도 앞서 멕시코의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1886~1957)가 보인 저항적인 메시지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의 전통적 표현 양식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광화문에 테라코타 연구소를 열기까지 했던 오윤의 흙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조건영 역시 서울 퍼런 유신 정권시기에 건축사무소를 개업하고 동시에 재야의 지식인들과 교우하며 권력의 시녀와 같던 당시 건축가들과는 다른 행보를 이어 갔다.

흙의 감성과 재치, 도시에 필요한 그것을 오래 보고 싶다

조건영과 오윤은 옛 동대문시장, 즉 지금의 광장시장이 일본 자본에 의해 설립된 남대문시장이나 명동과는 달리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그들은 1960~70년대에 장준하 선생을 구심점으로 움직이며 민중예술을 규합해 1988년에 민예총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뜻을 같이한 이들이기 때문에 영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우리은행에는 광장시장 상인의 편의를 위해 시장과 은행건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놓여 있다. 시장 점포 사이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계단을 올라가면 은행으로 연결된 2층 쪽문이 나온다. 그만큼 상인의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다. 광장시장 안에 있는 점포 상인의 은행 이용이 건축·건물의 의도와 용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시장 밖 테라코타 벽화 앞에 자리 잡은 꽃 노점은 건물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부가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셈이다. 종로구와 은행은 그 앞 사실상 불법 점유되는 것이므로 정비에 나설 수 있지만, 필자가 이 벽을 보아온 십수년의 시간을 돌아켜보니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벽화와 아래의 검정 돌 마감은 솔직히 기대가 딱 좋게 생겼다. 만약에 요즘 지어진 건물처럼 은행 유리창이 거리에 면해 있다면 그 앞 대지 안의 공지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됐겠지만, 40여 년 전에 지어진 이 벽 앞에는 마치 오윤의 민중화가로서의 전력을 알고 있는 듯이 꽃 노점이 자연스레 기대 있다.



2

최근에 붙은 테라코타 벽화의 명패에는 “멕시코 벽화운동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력에 주목한 오윤은 건강한 흙의 생명력을 도심 속으로 옮겨왔다.”라고 적혀 있다(사진 2). 돌격 개발의 시대에 이미 흙을 논하고, 1980년대에는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어 보자는 노랫말도 나올 시경이었다. 무지막지한 도시화 광풍 속에 광화문 일대와 강남역 사거리는 시민이 여름 물난리를 반복적으로 겪는 난개발이 진행됐고, 더 이상 쾌적한 기후도 잃었음을 울려먹에 톡톡히 몸으로 경험했다. 불투수성 잿빛의 벽과 바닥, 심지어 쌓인 먼지와 흐린 대기까지 차갑게 다가오는 현실에서, 살구빛을 내는 흙 벽화와 그것을 기하학적 대조로 돋보이게 하는 건축이 종로4가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광장시장을 알리는 터줏대감이라 하면 무리한 청산일까? 그곳에 불가능할 것 같은 따뜻한 벽과 굳더기 없는 기하학적 건물이 있기에 종로4가를 인식하게 된다면 비약일까? 시장의 주력 상품이 마켓 상황과 국제화, TV 엔터테인먼트 등에 의해 바뀌어가지만 시장 사람들의 금고 역할을 함과 동시에 따뜻한 감성까지 만드는 흙벽과 건축이 이 사거리의 명물이라고 나는 여기고 싶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높아지고 대지가 잿빛으로 변할지언정, 내 눈이 흐려져 앞이 가물가물해질지언정 따뜻한 살구빛의 흙벽은 잿빛 대기의 풍화에도 불구하고 터줏대감으로 이곳에 있어주었으면 한다. 서울의 많고도많은, 넓디넓은 사거리 중에 이처럼 진정으로 따뜻한 느낌을 가진 곳 하나쯤은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있더라도 간직하고 싶다. 이름 모를 벽화에 명패를 붙여 그 의미를 알리듯이, 많은 건축가로부터 그 기하학적 명패함에서 천재적인 건물이라 여겨지는 이 건물도 부디 기하학적이고 순수한 탄 세상과 같은 재미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원형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1
흙을 담은 빗깔과 입체 부조에서 웅장한 힘이 느껴지는 오윤의 벽화. 그리고 조건영의 건축물(우리은행). 광장시장과 이웃한 이 건물은 벽화 아래 들어선 노점과도 이웃할 때가 많다.

2
최근에 부착된 벽화에 대한 설명.

글·사진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미국건축사.
저서로 <랜드마크: 도시를 경쟁하다> <파빌리온, 도시에 감정을 채우다> <표면으로 읽는 건축>이 있으며, 서울건축문화제에서 '담박소세노들: 여름건축학교' '한강감정: 한강건축상상전'을 기획했다.

연장근무

최지운 작



등장인물

남자 알바 20대 후반 | 공무원 시험 수험생

여자 알바 20대 초반 | 대학생

무대 한적한 동네에 자리한 편의점. 입구 옆에 파란색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다.

‘수고해’라는 소리와 함께 편의점 입구에서 나오는 남자 알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옆에 놓인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리고 잠시 스마트폰을 꺼내 이리저리 만진다.
잠시 후, 여자 알바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나와서는
기지개를 켜다.

여자 알바 예휴, 오늘도 이 긴긴 밤을 어찌 보내나?

여자 알바, 잠시 비질을 하다가 남자 알바를 발견한다.

여자 알바 (놀라며) 어, 안 가셨어요?

남자 알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됐어.

여자 알바 시험이 널모레라면서요. 얼른 들어가 책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봐야죠.

남자 알바 그게… 지금 집에 들어가기가 곤란해.

여자 알바 (옆에 앉으며) 뭘 일 있어요?

남자 알바 동생이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대.

여자 알바 우와, 그럼 얼른 들어가서 제수씨 될 사람 구경해야죠.
예쁘려나?

남자 알바 창피해서….

여자 알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창피요?

남자 알바 요 모양 요 꼴이라….

여자 알바 (잠시 남자 알바의 옷차림을 훑어본 뒤) 제수씨 오기 전에 좀 씻고 옷 갈아입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얼굴에 화장품도 좀 발라야겠어요. 왼쪽 볼에 여드름 너~무 흉해.

남자 알바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머뭇거리다가) 백수잖아.

여자 알바 (이제야 상황 파악했다는 표정) 아아… 그래도 백수는 아닌데. 일주일에 3일은 여기로 출근하잖아요.

남자 알바 직장은 아니지.

여자 알바 직장이지요. 월급이 좀 적고 4대보험이 없다는 거 빼면...

남자 알바 그렇다고 제수씨한테 저 세븐일레븐에서 퇴근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럴 순 없잖아.

두 사람 잠시 침묵

여자 알바 그래도 얼굴은 비치셔야죠. 평생 안 볼 사람도 아니고.

남자 알바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방금 전에 연락 왔네.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여자 알바 누가요?

남자 알바 동생이랑... 아버지도... 엄마도 그러는 게 낫다고 하고...

여자 알바 이제 해 떨어지는데 어디 가서 뭐하실 거예요?

남자 알바 그러게. 간만에 친구들이나 불러내서 술이나 한잔 할까?

여자 알바 불러낼 친구들은 있어요?

남자 알바 글썄...

남자 알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남자 알바 애는 회사가 부산이라 안 되고... 애는 지금 한창 장사 하고 있을 테고... 애는 지금 애 보고 있으려나? 애는... 그래 애는 지금 퇴근했겠다.

남자 알바, 신나는 표정으로 전화를 건다.

잠시 신호음이 간다. 이윽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다.

남자 알바 창수냐? 나야 경호. 오랜만이다. 나? 나야 뭐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지. ... 어, 맞아. 이번에도 경쟁률 장난 아니야. 뭐, 어찌됐어. 이 나이에 어디 신입으로 받아주는 회사도 없고... 이걸로 끝장 봐야지. 웬일로 전화했냐고? 아니, 간만에 네 생각 나서 퇴근 중이면 술이나 한잔 할까 하고. 어? 오늘 너네 부서 회식이라고? 그럼 안 되겠네. 아냐 아냐, 불쑥 전화한 내가 잘못이지.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전화할게. 그래 들어가.

남자 알바, 실망한 표정으로 바뀐다.

남자 알바 아무도 없네. 나랑 같이 술 마셔줄 사람이.

여자 알바 연락처 백 개 중에 하나도 없어요?

남자 알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여자 알바 (난감한 표정) 어, 그럼 요 앞에 새로 생긴 공원에 가보실래요? 거기 분수가 장관이라던데, 밤에 조명도 막 쏘주고. 아님 사거리 백화점의 극장도 시간 때우기엔 괜찮아요. 저녁 늦게 가면 할인도 해줘요.

남자 알바 그럴까?

이때, 요란하게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여자 알바가 편의점 유니폼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받는다.

여자 알바 여보세요, 응, 철민아. 나? 뭐하긴 지금 알바중이지. 뭐라고? (놀라는 표정) 아, 맞다. 오늘 너랑 거기 가기로 했었지. 아나 깜빡했어. 어찌지?

이때 여자 알바랑 남자 알바 서로 시선이 마주친다.

여자 알바 잠깐만... (남자 알바를 향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저기... 저...

남자 알바 땀뻗해줄까?

여자 알바 (환해진 표정) 그래줄래요? 죄송해요. 제가 그만 데이트 약속을 깜빡하고...

남자 알바 괜찮아, 어차피 갈 데도 없었는데 뭘.

여자 알바 고마워요.

여자 알바, 땀뻗게 유니폼을 벗어 남자 알바에게 건네준 뒤 무대 오른편으로 퇴장한다.

남자 알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남자 알바 어, 엄마! 제수씨 왔어? 나 오늘 연장근무야. 잘됐지 뭐. 널 새벽에나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제수씨한테는 야근한다고 그러고.

통화를 마치고 여자 알바가 내팽개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챙기는 남자 알바

남자 알바 이 긴긴 밤을 어찌 보내나?

입구로 들어가면서 암전

막. *박지*

<10분 희곡 릴레이>는 젊은 작가 혹은 자망생들의 재기발랄한 10분 단막극입니다.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사에 가시면 더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webzine.e-stc.or.kr)



예술놀이 아지트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축제



오랫동안 방치됐던 김포가압장이 ‘서서울예술교육센터’로 새롭게 태어났다. 비교적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서울의 서쪽 지역에 어린이·청소년 누구나 예술적으로 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최초로 건립되는 예술교육 공간이다. 그 개관 축제가 오는 8일(토)부터 9일(일)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일시 10월 8일(토)~9일(일)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758-2023

- | | |
|--------------|----------------|
| ● 시민청·시청 | ● 신당창작아카데미 |
| ● 서울무용센터 | ● 남산예술센터 |
| ● 서울연극센터 | ● 창작지원팀 |
|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 제휴협력실 |
|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 문화지원기증센터 |
| ● 서교예술실험센터 | ● 공공예술센터 |
| ● 문래예술공장 | ● 축제팀 |
| ● 서울예술치유허브 | ● 문화나눔팀 |
| ● 금천예술공장 | ● 예술교육팀 |
| ● 연희문화창작촌 |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 ● 잠실창작스튜디오 | ● 정책연구팀 |
| | ● 기타 문화행사 추천 |

www.sfac.or.kr

MON

3

- 베토벤 시리즈 V
- 유서진의 The Delicious Piano II
- ARZ Piano Trio 제2회 정기연주회
- 한국음악앙상블 HONA 콘서트

10

- 전시 <Site Spectrum>(~10.23)
- 임형주 & 코리안 내셔널 필 <가을밤콘서트>
- 뉴코리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대한노인회와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 이반 피셔 &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17

- 전시 <인식개선 프로젝트>(~10.29)
- 김이정 바이올린 독주회
- 바로크와 현대가곡연구회 제77회 정기연주회 <G.F. Handel의 9 Ge>

24

- 머레이 페라이어 피아노 리사이틀
- 메조소프라노 신민정 독창회
- 백미숙 피아노 독주회

31

- 제6회 국제2인무페스티벌(~11.27)
- 최소영 & Stefan Gartmayer 듀오 콘서트

TUE

4

- 2016 서울아트마켓(~10.8)
- 2016 대학로소극장축제(~10.16)
- 제11회 여성연출가전 <후레자식>(~10.9)
- 국악 <7번국도: The Nomadic Life>
- 다니엘 호프 &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2016 GMF
- 노바 성악 앙상블 연주회
- 소프라노 김은희 독창회
- 베네플루티 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11

- <올림푸스 엉뚱한 사진관>(~10.23)
- <공상온도 'Here is every where'>(~10.17)
- 서울댄스컬렉션 10주년 기념 역대 수상자 공연 II(~10.12)
- 라스 앙상블 콘서트 <The Solists>
- 선우지현 클라리넷 독주회
- 제13회 벨라보체 음악회

18

- 대한항공 박스 프로젝트 2016 <양지양 그림: 서예, 가장 원시적인 힘의 교류>(~17.8.27)
- 오페라 마티네 <세빌리아의 이발사>
- 이화첼버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 창작발레 <한여름밤의 호두까기 인형>(~10.19)

25

- 세종문화회관 전시 <미인도취>(~12.4)
- 라모아트센터 정기연주회 with 금난새
- 바이올린 듀오 레트리카 내한공연
- 프랑스가곡연구회 75회 정기연주회
- 클래식시칸과 함께하는 실내악 프로젝트 in SEORO

WED

5

- 남산예술센터 <변칙 판타지>(~10.9)
- 음악 <아이다호 'Have a nice Wednesday'>
- 제2회 극페스티벌 재음(~10.9)
- 장사의 소리판 <꽃인듯 눈물인듯>(~10.7)
- 무용 <팔산추야>
- 전시 <예술, 한옥을 품다>(~10.31)
- 국립국악원 <10월 수요일콘서트>

12

- <2016 비기너스(Beginners) 자유발표>(~10.15)
- 연극 <고래행진>(~10.16)
- 남산골한옥마을 <카산드라>(~10.13)
- MMCA 전시 <보이드>(~17.2.5)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19

- 연극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10.23)
- 음악 <신나는 음악회>(~10.19)
- 영화 <빠지다 II>(~10.19)
- 2016 이진우 작가개인전(~10.24)
- 제8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
- 국립국악관현악단 <테마가 있는 실내악>

26

- 남산예술센터 <나는야 연기왕>(~11.6)
- 장애아동 창작지원 전시 <프로젝트A>(~11.7)
- 장우재 연출 신작 <불멸패자>
- 2016 창작국악페스티벌

문화가 있는 날

THU	FRI	SAT	SUN
		1	2
		● 서울거리예술축제2016(~10.2) ● 2016 종아서-예술동아리 페스티벌(~10.2) ● <시그널-그 시절 그날의 널 기억해>(~10.9) ●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12.31) ● [MEET] 전시 <헤르메스의 상자>(~10.2) ● 활력콘서트, 군가유적전시 ● 전시 <ART Beyond ART>(~12.31)	● 서울무형문화축제 ● 연극 <뷰티풀라이프>(~12.31) ● 제15회 오프대학포스티벌(~10.30) ● 알렉산더 크나제브&크세니아 코간 듀오 리사이틀 ● 조운정 피아노 독주회 ● 2016 중앙대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The 9th JOC하이라이트 콘서트2016 ● 연극 <아이들의 그림>(~10.16)
6	7	8	9
● 국립무용단 <목향>(~10.8) ● 닉 나이트 사진전(~17.3.26) ● 리아슈 코리아 아트페어: 서울(~10.9) ● 연극 <나는 성군이다>(~10.9) ● 월드뮤직 <들소리&로조>(~10.7) ●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 <씨씨아이쥬케이>(~10.9)	● 2016 서울 상상력발전소 <세운상가 그리고 메이커스>(~10.31) ● 음악사극 <환상노정기>(~10.8) ● 연극 <산허구리>(~10.31) ● 돈화문국악당 <국악의 맛>(~10.27) ● 세종솔로이스츠 <반고흐 오마주> ● 판오페라 <홍부와 놀부>(~10.9) ● LARS 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 연극 <바나삼촌>(~11.27)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축제(~10.9) ● 한마음살림장(~10.9) ● 2016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 황윤영 천현정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 김혜란·박태형·최재원 피아노 트리오	● 서울솔리스트 첼로앙상블 창단10주년 기념음악회 ● 2016 쉼터 K 정기연주회 ● 테너 안형일과 함께하는 골든보이스 콘서트 ● 최리라 피아노 독주회 ● 윤지원 피아노 독주회 ● 코리아 싱어즈 제13회 정기연주회
13	14	15	16
● 무용 입자에 <한국무용사담> ● 뮤지컬 <리멤버-독도, 그리고 이야기>(~10.29) ● 2016 한국국제아트페어(~10.16) ●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10.30) ● 국립오페라단 <토스카> ● 디큐브, 한국페스티벌앙상블과 만나다 ● 세계민요페스티벌	● 예술로 무한상상(~10.15) ● 국립극장 <NT Live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10.15) ● 남산골한옥마을 <정악: 머물러 듣는 음악>(~10.16) ● 서울시향의 음악극장 4 ●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 서울시민예술대학 연극학교 결과발표 공연 ● 공연 <예술로 자유하는 사람들> ● 2016 한국국제아트페어(~10.16) ● 청배연희단-찾아가는 전통연희 <원> ● 손범수, 진양혜의 Talk & Concert Season 6 ● 신세계와 함께하는 2016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	● 서울시 대표 B-boy Zone(~10.16)
20	21	22	23
● 2016 서울프라이드페스티벌(~11.13) ● 페스티벌 오브 피아니스트-요제프 무크 ● 프랑스 로렌 국립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 공연 ● HIP! CLASSIC!	● 박진영&Nuno Lucas <Welcome Land> ● 율리아 피셔 바이올린 리사이틀 ● 연극 <데미안>(~17.1.15)	● 유니버설발레단 케네스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 ● 제3회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 <화음(和音): 어울리는 소리> ● 이지은 비올라 독주회	● 사랑방위크숍 15초 영화제 ● 예술.마음.치유 전시 <옥 할래? 옥 할래!>(~11.5) ● 소리물앙상블 제32회 정기연주회 ● 안드라스 쉬프 피아노 리사이틀 ● 이소선합창단 정기공연 <종이담쟁이> ● 필립 윌트&프레디 캠프 듀오 콘서트
27	28	29	30
● 서울시무용단 춤극 <신시(神市)>(~10.28) ● 창작오페라 <불량심청>(~10.30) ● 고봉인, 더 첼리스트 ● 에르완 리샤 비올라 독주회	●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시각 선정작가 단체 쇼케이스 전시>(~11.11) ● KBS교향악단 제711회 정기연주회 ● 세익스피어 인 발레 <스페셜 갈라>(~10.30)	● 토요일은 청이좋아 <웨딩콘서트> ● 무용 <BOKKO> ● 2016년 비아프린지페스티벌 메뉴(~10.30) ● 연극 <도서관오디세이>(~10.30) ● 국립국악관현악단 <2016 상주작곡가: 김성국, 정일련> ● 2016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 강윤지 비올라 독주회

01

SAT



서울거리예술축제2016

구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올해부터 <서울거리예술축제2016>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지난 9월 28일(수) 일상적인 공간 '마을'에서 시작한 축제는 9월 30일(금) 개막공연과 함께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공간'으로 이어지며 축제의 불을 밝힌다. 5일간 국내외 50여 작품의 거리공연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0월 2일(일)
장소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대로, 청계천로, 덕수궁길
관람료 무료
문의 festivalseoul.or.kr 02-3290-7090



<시그널-그 시절 그날의 널 기억해>

박물관 도시 서울 프로젝트인 <서울을 모아줘> 캠페인의 오프라인 행사다. 과거의 서울이 담긴 전시와 네트워킹 파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다.

일시 ~10월 8일(토)
장소 서울도서관
관람료 무료
문의 fb.com/museumseoul 02-3290-7194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

시민의 일상에서 사용되던 물건이 모여 서울의 작은 박물관이 만들어집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충분한 생활유산을 기록하고자 하는 이번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12월 31일(토)
참여방법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클릭 후 '응답하라 2015' 카테고리 등록
문의 fb.com/museumseoul 02-3290-7192



2016 종아서-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일상 속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예술의 확산을 돕는 <종아서-예술동아리> 축제다. 시민이 직접 기획한 축제로 이번 행사에는 61개 동아리의 공연과 전시 그리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일시 ~10월 2일(일)
장소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142



미디어아트 <ART BEYOND ART>

시민청의 힐링 공간인 소리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다. 영화와 최첨단의 영상기술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융복합 장르가 감동을 전하며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컨버전스 아트(Convergence Art) 전시다. 컨버전스 아트는 기존 평면의 그림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것을 말한다.

일시 ~12월 31일(토)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소리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1



[MEET] 전시 <헤르메스의 상자>

그리스 신화 속 헤르메스를 모티브로 준비한 안가영 작가의 전시다. 게임과 미디어아트가 결합한 설치 미술로 인터넷 문화에 관한 작가의 시선을 담았다.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MEET]의 참가 전시다.

일시 ~10월 2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 *월요일 휴관
장소 문래예술공장 2층 박스씨어터
관람료 무료
문의 www.sfac.or.kr 02-2676-4300



제16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PAF)

16년간 공연예술계를 이끌어온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무용 축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운영되며, 6개국 17작품 총 40회 공연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일시 ~10월 30일(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관람료 공연별로 상이
문의 www.spaf.or.kr 02-2098-2985



활력콘서트

시민예술가들이 선사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일시 평일 오후 12시·12시 30분 주말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활력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0057

국립극단 <로베르토 주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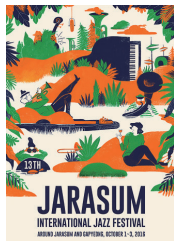
실제 유럽에서 일어난 이탈리아의 연쇄 살인범 '로베르토 주코(Roberto Succo)'의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쓴 극작가 베르나르-마리 콜테스의 작품이다. 베를린 사우쉬네 극장에서 초연된 이 작품을 프랑스 연출가 장 랑베르-빌드와 스위스 연출가 로랑조 말라게라의 공동 연출로 명동예술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일시 ~10월 16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공휴일 오후 3시
*화요일 공연 없음, 만 18세 이상 관람가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www.ntck.or.kr 1644-2003



제13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올해 13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의 재즈 페스티벌. 오레곤, 카에타누 벨로주, 웅산 등 국내외 다양한 재즈 뮤지션이 한자리에 모여 가평의 자라섬을 재즈로 물들일 예정이다.

일시 10월 1일(토)~3일(월)

장소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가평읍내 일

참가비 1일 5만 원, 2일 8만 원, 3일 10만 원, 청소년 1일 3만5천 원

*현장판매(1일권만 판매) 일반 5만5천 원, 청소년 4만 원.

문의 jarasumjazz.com 031-581-2813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SeMA 비엔날레는 상상 속 화성인의 말인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NERIRI KIRURU HARARA)>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전쟁, 재난, 빈곤 등 원치 않는 유산을 어떻게 미래를 위한 기대감으로 전환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며 내일의 가능성을 묻는다.

일시 ~11월 20일(일) 오전 10시~오후 8시 *월요일 휴무, 공휴일, 하절기~오후 7시, 공휴일 동절기~오후 6시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전관(서소문 본관, 남서울생활미술관 전관, 북서울미술관 일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일부)

관람료 무료

문의 sema.seoul.go.kr 02-2124-8973



서울무형문화축제

평소에 접하지 못한 서울무형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옷칠, 송절주 등 다양한 무형문화 작품 시연 및 체험, 전통놀이, 공연이 준비됐다.

일시 10월 1일(토)~3일(월)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참가비 프로그램 별 상이

문의 seoul-intangibleculturefestival2016.com 02-3443-2695

02

SUN



연극 <뷰티풀라이프>

(주)집컴퍼니가 무대에 올리는 인생과 사랑 이야기다. 노년 부부를 시작으로 젊은 부부, 청년으로 이어지는 사랑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말한다. 김원진 작, 이성호 연출 및 각색.

일시 10월 2일(일)~12월 31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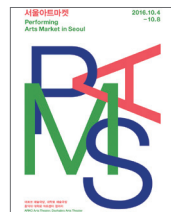
장소 샌터파랑새극장 2관

관람료 전석 3만5천 원

문의 02-719-0988

04

TUE



2016 서울아트마켓

다양하고 활발한 창작과 제작을 바탕으로 한국 공연 예술 작품들의 합리적인 유통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매년 10월 개최하는 네트워킹의 장이다.

일시 10월 4일(화)~8일(토)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갤러리

문의 pams.or.kr 02-708-2275



제11회 여성연출가전 <후레자식>

성화숙, 이슬기, 이수임, 박아롱까지 4인의 여성 연출가가 뭉쳤다.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가 되는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다. 10월 마지막으로 만나는 박아롱 연출의 <후레자식>이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일시 10월 4일(화)~9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열린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2016 대학로소극장축제

170여 개의 공연장이 밀집돼 있는 대학로의 특성과 소극장 연극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대학로의 대표적인 축제다. 올해는 주제별, 장르별 프로그램을 세분해 진행되며 연극 〈학동엄마〉, 〈달빛크로키〉, 〈어제의 용사들〉, 〈AM.303 살인사건〉 작품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일시 10월 4일(화)~16일(일)
장소 아트홀마리카, 아름다운극장, 엘림홀, 연진아트홀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smalltheater.or.kr 02-3674-0472



국악 〈7번국도: The Nomadic Life〉

한국음악앙상블 HONA의 'The Nomadic Life' 시리즈 두 번째 무대다. 동해 해안선을 따라 난 7번 국도에서의 경험을 음악에 담아냈다. 가야금, 장구 등 다양한 한국 악기로 선사하는 콘서트를 만나보자.

일시 10월 4일(화)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hanokmaeul.com 02-786-1442



음악 〈아이다호 'Have a nice Wednesday'〉

기존 홍대 라이브 클럽에서만 볼 수 있었던 뮤지션들의 공연을 클럽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

일시 10월 5일(수)
장소 아이다호
관람료 무료
문의 02-333-7218

전시 〈예술, 한옥을 품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만나는 다양한 예술작품. 고즈넉한 한옥에서 여러 전시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0월 5일(수)~31일(월)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한옥
관람료 무료
문의 hanokmaeul.or.kr 02-2261-0517



남산예술센터 〈변칙 판타지〉

여성 연기자로만 이루어진 일종의 '변칙적' 공연 장르인 여성국극이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다. 일상적 삶을 포기하고 남역 배우가 된 화사원의 이야기를 여성국극이라 가능했던 형식적 원칙과 기술을 이용해 보여주려 한다. 시각예술가 정은영이 연출을 맡았으며 10월 8일(토)에는 공연 종료 후 대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시 10월 5일(수)~9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sartscenter.or.kr 02-758-2150



제2회 극페스티벌 채움

〈하람베를 위한 정의〉, 〈낭만 원숭이〉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극'이라는 장르 안에서 공연을 하는 페스티벌이다. 2회를 맞이하는 올해의 주제는 '동물원에 가다'로 예술가들이 동물원에서 느낀 영감을 관객에게 소개할 예정이며 10월에는 〈하람베를 위한 정의〉, 〈낭만 원숭이〉, 〈카타리나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즉흥을 즐길 줄 아는, 용기있는 당신을 위하여〉가 무대에 오른다.

일시 10월 5일(수)~16일(일)
장소 산울림소극장
관람료 성인 2만 원, 학생 1만4천 원



국립무용단 〈묵향〉

2013년 초연된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다. 윤성주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의 안무와 패션 디자이너 정구호가 연출·디자인을 맡았다. 매·난·국·죽 사군자를 소재로 정갈한 선비정신을 한 폭의 수묵화로 담아내며 전통춤에 현대적 감각을 더했다. 해외 초청 공연을 마치고 새로운 캐스팅으로 돌아온 〈묵향〉을 국내 무대에서 만나보자.

일시 10월 6일(목)~8일(토)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8세 이상 관람가
문의 ntok.go.kr 02-2280-4114





닉 나이트 사진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작가 닉 나이트의 사진전이 국내 최초로 개최된다. 닉 나이트는 사진과 디지털 그래픽 기술의 결합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시도한 1세대 작가로 이번 전시에는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한 닉 나이트의 예술적이고 전위적인 시도를 조명한다.

일시 10월 6일(목)~2017년 3월 26일(일)

장소 대림미술관

관람료 성인 5천 원, 학생 3천 원, 미취학아동 2천 원

문의 daelimuseum.org 02-720-0667



리이슈 코리아 아트페어: 서울

작가가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판매하고 관람객과 함께 예술 작업에 참여하는 미술 축제다. 2014년부터 신진 작가를 발굴해 그들이 쉽게 주목받을 수 있도록 영국 런던에서 전시와 홍보를 진행해왔다.

일시 10월 6일(목)~9일(일)

장소 쿤스트할레

입장권 1만 원

문의 02-6010-6010

07

FRI



2016 서울 상상력발전소 <세운상가 그리고 메이커스>

우리나라 메이커 문화를 주도하던 세운상가에서 진행되는 행사다. 세운상가 내 상인(장인)과 메이커의 협업을 통해 기획한 메이커 워크숍, 세운뮤직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0월 7일(금)~30일(일)

장소 세운상가 5층 실내광장

관람료 무료 *워크숍은 사전 접수 1만 원

문의 sfac.or.kr 02-3290-7043



음악사극 <환상노정기>

판소리와 음악, 김홍도 한국화 영상이 정서적 또는 기술적인 결합으로 환상적인 여행담을 그려냈다. 김홍도라는 한 인간으로서 예술가, 아버지로서의 삶 속에서 그려가는 애환과 치유를 그려낸 음악사극이다.

일시 10월 7일(금)~8일(토)

장소 성수아트홀

관람료 전석 2만5천 원

문의 seongsu.sfac.or.kr 02-458-5230



오케코레오그래피

국립현대무용단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공동 제작해 선보이는 국내 안무가와와의 협업 공연이다. 현대작곡가 존 애덤스(John Adams)의 음악을 재해석하고, 이를 서로 다른 질감의 무브먼트로 풀어내는 신작 2편을 선보일 예정.

일시 10월 7일(금)~9일(일) 평일 8시, 주말 3시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R석 3만 원, S석(비지정석) 2만 원

문의 sac.or.kr 02-3472-1420

08

SAT



한마음살림장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어나가는 시민소통장터. 매월 둘째·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며 다양한 예술 체험과 공연, 전시와 함께 시민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사고팔 수 있다.

일시 10월 8일(토)~9일(일) 오후 12시~6시

장소 서울시장 지하 1층 시민청 일대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0057



예술놀이 아지트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축제

오랫동안 방치됐던 김포가압장이 '서서울예술교육센터'로 새롭게 태어났다. 비교적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서울의 서쪽 지역에 어린이·청소년 누구나 예술적으로 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최초로 건립되는 예술교육 공간이다. 그 개관 축제가 오는 8일(토)부터 9일(일)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일시 10월 8일(토)~9일(일)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758-2023

10

MON

전시 <Site Spectrum>

스펙트럼은 일정한 범위를 의미하지만, 이 범위를 무한대로 상정해 장소 특정적 예술을 진행한다. 75개의 모뉴먼트 제작을 통해 예술의 노동 가치를 증명하고 누구나 스스로의 인생에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냈다.

일시 10월 10일(월)~23일(일)

장소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M30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2976-4300

11

TUE



〈올림푸스 영동한 사진관〉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진행되는 올림푸스와의 협력프로젝트다. 이번 영동한 사진관은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거주 공간 속에서 가족을 떠올릴 수 있는 물건을 모아 정물화 형식으로 사진을 촬영한다.

일시 10월 11일(화)~23일(일)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참가비 무료 *사전신청
문의 sfac.or.kr 02-333-7217

공상온도 〈Here is everywhere〉

4~6명의 작업가의 작업실을 갤러리 겸 카페인 공상온도에 그대로 옮겨와 벽과 천장 그리고 구조물까지 각각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과 애장품을 이용하여 꾸며낸 전시다.

일시 10월 11일(화)~17일(월)
장소 공상온도
참가비 무료
문의 sfac.or.kr 02-333-7218



서울댄스컬렉션 10주년 기념 역대 수상자 공연 II

서울댄스컬렉션&커넥션이 10주년을 맞이해 무대를 만들었다. 30여 명의 역대 수상자들 중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예술적 역량이 발전된 6명의 안무가들과 유명 해외안무가들의 공연을 선보인다.

일시 10월 11일(화)~12일(수)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sfac.or.kr 02-2098-2984

12

WED



〈2016 비기너스(Beginners) 자유발표〉

첫 발을 내딛는 예술가를 위한 '최초예술지원' 프로젝트인 '비기너스(Beginners)' 1차 선정자들의 2차 자유발표 현장이다.

일시 10월 12일(수)~15일(토)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7217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10월의 국악 브런치 콘서트다. 황호준 작곡의 국악관현악곡 '바르도(Bardo)'로 문을 열어 전래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모티브로 한 곡으로 국악관현악 속에 녹아있는 전래 민요 등 다양한 곡과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해설 송혜진, 지휘 이용탁, 협연 김효영·유지숙.

일시 10월 12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7217

13

THU

무용 임지에 〈한국무용사담〉

무용수로서 오랜 시간 훈련해 개인의 몸에 중첩된 기억들과 한 개인이 관계 맺고 있는 또는 관계 맺게 될 시대별 한국춤에 대한 사담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

일시 10월 13일(목) 오후 7시(예정)
장소 서울무용센터 스튜디오 화이트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04-0235



뮤지컬 〈리멤버-독도, 그리고 이야기〉

100년 전, 독도에 서식 하던 토종 바다사자 강치가 '일본'에 의해 멸종된 역사적 사실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소재로 공연한다.

일시 10월 13일(목)~29일(토) 시간미정
장소 성수아트홀
관람료 가격미정
문의 seongsu.sdfac.or.kr 02-2204-7563

14

FRI

예술로 무한상상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서울시민 예술대학' 등 문화예술교육 체험의 장이 열린다.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일시 10월 14일(금)~15일(토)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1, 2층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758-2032



국립극장 <NT Live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국립극장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NT live(National Theatre Live)는 완성도 높은 해외 명작을 촬영해 양 코르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4일(금)에는 영빅(Yonung Vic)극장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15일(토)에는 아서 밀러 원작의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이 상영될 예정이다.

일시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10월 14일(금)~15일(토) 금 오후 8시, 토 오후 7시 *만 15세 이상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10월 15일(토)~16일(일) 주말 오후 2시 *만 18세 이상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1만5천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16

SUN



서울시 대표 비보이 존(B-boy Zone)

2016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비보이 존(B-boy Zone) 행사다. DDP 앞의 도로가 B-boy만의 무대로 꾸며진다. 비보이 배틀, 사이퍼, 체험 프로그램과 퍼포먼스를 만나보자.

일시 10월 16일(일) 오후 12시~6시
장소 DDP 보행전용거리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175

17

MON

전시 <인식개선 프로젝트>

당연하게 생각되던 공공 규칙을 시민이 역제안해보는 시민기획단 프로그램이다. 기획단 6명과 시민디렉터 15명이 참여해 그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전시한다.

일시 10월 17일(월)~29일(토)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175

19

WED

영화 愛 빠지다 II

강제규 영화감독과 클래식 앙상블이 함께하는 영화음악 콘서트다.

일시 10월 19일(수) 오후 8시
장소 나루아트센터
관람료 1만~2만 원
문의 naruart.or.kr 02-2049-4700



국립국악관현악단 <테마가 있는 실내악>

북·장구·징·꽁과리 등 사물악기는 물론, 양금·철현금 등 다소 생소한 국악기까지 다양한 타악기의 향연이 '두드림'의 주제 아래 펼쳐진다. 대규모 국악관현악 무대에서 느끼기 힘든 국악기 특유의 세밀한 연주를 들려줄 예정.

일시 10월 19일(수)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2016 이진우 작가 개인전

프랑스 세르누치 박물관과 조선에듀케이션이 공동 기획한 현대미술화가 이진우 작가의 국내 첫 개인전이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알려져 주목받고 있는 이진우 작가의 '한지'와 '먹'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0월 19일(수)~24일(월)
장소 조선일보미술관
문의 edu.chosun.com/art 02-724-7816

20

THU

프랑스 로렌 국립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 공연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대표 국립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로렌 국립 오케스트라'가 첫 내한 공연을 한다. 국내 관객들에게 프랑스 특유의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일시 10월 20일(목)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20만 원, S석 16만 원, A석 12만 원, B석 8만 원, C석 5만 원
문의 sac.or.kr 02-541-2512



23

SUN

예술. 마음. 치유 전시 <욕 할래? 욕 할래!>

중학생 대상으로 진행됐던 예술치유 프로그램 '예술. 마음. 치유'의 <욕 할래? 욕 할래!>의 결과 전시다. 우리 시대 중학생의 속마음을 살짝 들여다보자.

일시 10월 23일(일)~11월 5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 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943-9300

26

WED



남산예술센터 <나는야 연기왕>

연극계에서 적지 않은 화제작과 문제작을 만들어온 그린피그의 배우들이 '연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섰다. 배우들은 오디션이 요구하는 연기에 도전하며 진정한 연기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그린다.

일시 10월 26일(수)~11월 6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정가 3만 원
문의 nsartscenter.or.kr 02-758-2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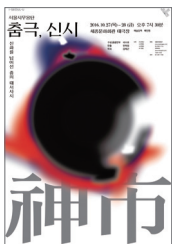
장애아동 창작지원 전시 <프로젝트A>

장애아동과 아티스트의 미술작업 멘토링을 통해 나온 창작 성과물 전시다. 평면작품 및 멘토 멘티의 작업과정을 보여주는 아카이빙 영상 그리고 후원사인 조아제약(주)의 카툰박스가 전시될 예정.

일시 10월 26일(수)~11월 7일(일)
장소 서울시청 지하2층 시민청 이벤트홀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423-6673

27

THU



서울시무용단 춤극 <신시(神市)>

단군신화를 모티브로 한 창작 춤극이다. 작년 5월 국수호 안무, 유희성 연출, 국악과 양악을 넘나드는 김태근 작곡이 함께 초연한 작품으로 올해는 서울시무용단과 발레리나 김주원, 국립무용단 수석 출신 이정윤이 함께할 예정이다.

일시 10월 27일(목)~28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문의 sejongpac.or.kr 02-399-1766

28

FRI



테아트르 드 라 빌 <코벨소>

프랑스 테아트르 드 라 빌의 대표 레퍼토리 <코벨소(Rhinocéros)>가 국립극장을 찾는다. 외젠 이오네스코의 동명 희곡을 바탕으로 하며,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스타 연출가 에마누엘 드마르시 모타가 연출을 맡았다.

일시 10월 28일(금)~30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29

SAT

토요일은 청이 좋아 <웨딩콘서트>

시민청에서 진행되는 '토요일은 청이 좋아'가 <웨딩콘서트>를 선보인다. 작은결혼문화컨퍼런스와 함께 시민청예술가의 축하 공연과 토크콘서트, 특별 초청 공연이 진행될 예정.

일시 10월 29(토)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0057

무용 <BOKKO>

복고댄스와 애니메이션이 물려온다! 현실에 없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을 미디어가 실제로 구현하며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공연이다. 한편으로는 실재를 아름답게 모방한 미디어는 현실을 규정하기도 한다.

일시 10월 29(토) 오후 7시 30분 예정
장소 서울무용센터 스튜디오 블랙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04-0235



국립극장 완창 판소리 <김미나의 적벽가_박봉술제>

이미 두 차례 국립극장 완창 판소리 무대에 선 바 있는 김미나의 무대다. 고음이 많고 풍부한 성량을 필요로 해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작품인 '적벽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수로는 송원조, 윤호세가 함께한다.

일시 10월 29(토) 오후 3시
장소 KB 하늘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ntok.or.kr 02-2280-4114



2016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한국에서는 Last Carnival로 잘 알려진 프로젝트 연주 그룹 어쿠스틱 카페가 내한한다. 쓰루 노리히로, 나카무라 유리코, 마에다 요시히코 등 3인이 선사하는 어쿠스틱카페의 연주를 만나보자.

일시 10월 29(토) 오후 7시
장소 롯데콘서트홀
관람료 R석 10만 원~C석 3만 원
문의 02-338-3513

정리 이나래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 프로그램

연극
시각
공연
영상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문화재단

제작
남산예술센터
사전 리서치 지원
TPAM(Performing Arts
Meeting in Yokohama)

예매
남산예술센터
인터파크
대학로티켓닷컴
클럽서비스
에스24공연
옥션/지마켓티켓

문의
남산예술센터
02-758-2150

변칙 판타지

ANOMALOUS FANTASY

10.05 –
10.09

정은영 작/연출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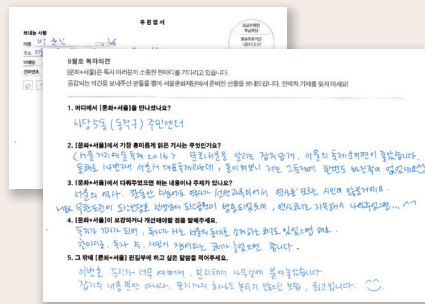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NAMSAN ARTS CENTER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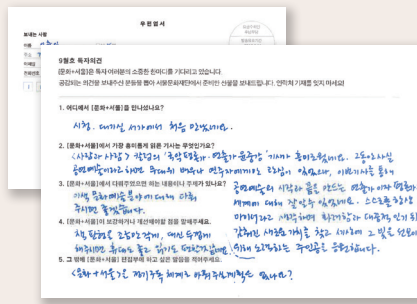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서울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1. 사당5동(동작구) 주민센터
2. <서울거리예술축제2016>. 문화서울을 알리는 잡지답게 서울의 축제 소개 면이 좋았습니다. 올해로 14번째 서울시 대표 축제라는 데 들어켜보니 저는 그 축제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네요. ^^
3. 서울의 역사. 한동안 수능에도 역사가 선택과목이어서 역사를 모르는 시민이 많을 거예요. MBC <무한도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도산공원이 방송되었듯이 역사 코너는 지속해서 나와주었으면... ^^
4. 독자가 기자가 되어 독자가 사는 서울의 동네를 소개하는 코너도 있었으면 해요. 한마디로 독자 즉, 시민이 참여하는 코너가 늘었으면 합니다.
5. 이번 호 표지가 너무 예뻐서 분리해서 사무실에 붙여놓았습니다. 잡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지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신 모습, 최고입니다. ^^

박운진 님



1. 시청 대기실 서가에서 처음 만났어요.
2. '사람과 사람' 칼럼의 '국악평론가 연출가 윤종강' 기사가 흥미로웠네요. 그동안 사실 공연예술이라고 하면 무대 위 배우나 연주자에게만 관심이 있었으나, 이번 기사를 통해 공연예술의 시작과 끝을 만드는 연출가이자 평론가의 세계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네요. 스스로를 항상 마이너라고 생각하며 화려함과 대중적인 기 뒤에 감춰진 새로운 가치를 찾고 세상에 그 빛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을 응원합니다.
3. 이색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4. 책 판형을 조금만 작게, 대신 두껍게 해주시면 휴대하기도 좋고 읽기도 편할 것 같네요.
5. [문화+서울]을 정기구독 체계로 바뀌주실 계획은 없나요?

이춘임 님

편집 후기

심장과파열언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더 달리지 못할 거 같네요.
계속 달리고 싶습니다...
이규승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詩月! 말씀의 사원으로 간다.
반타 블랙의 비빔으로 간다.
안현미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차장

10월 2일까지 열리는 <서울거리예술축제>
현장을 10월호에 담을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독자님들이 이미 더 잘 보셨으리라
믿어요!
이준걸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대리

날이 쌀쌀해져 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기대하겠다는 마음가지이 스멀스멀
더워처럼 물러가네요.
어디 있나요? 답답한 속 뱀 뚫어줄 그것ियो.
이나래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축제와 행사가 풍성한 달 시월을 맘껏 즐길 수
있기 바랍니다.
전민정 | 객원 편집위원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
예술공원,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
습실, 두산아트센터, 몽엔몽, 문래예술공장, 백암아트홀, 상명아
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
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
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
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종강아트갤러리, 한국공연
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 프로그램



나는야 연기왕

10.26 -
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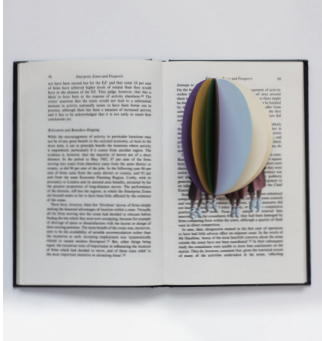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문화재단
그린피그
제작
남산예술센터
그린피그
예매
남산예술센터
인터파크
대확로티켓닷컴
클립서비스
에스24 공연
옥션/지마켓티켓
문의
남산예술센터
02-758-2150

그린피그 공동창작
윤한솔 연출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NAMSAN ARTS CENTER



- 테마 토크**
한국 창작공간의 오늘
- 사람과 사람**
〈변칙 판타지〉 무대에 올리는 미디어 아티스트 정은영
- 진실 혹은 대담**
대중음악계 대형기획사의 서브레이블 설립
- 쟁점 1**
공연계에 만연한 임금 체불 문제
- 쟁점 2**
고용 불안 심화하는 예술강사 제도 변경
- 화제**
서울시 ‘서울예술인플랜’ 발표
- 공간 1**
문학에 관한 다양한 변주곡 〈연희극장〉
- 공간 2**
음악과 사진과 사람의 아지트 ‘조광사진관’
- 10월의 서울문화매뉴얼**